



1

1985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5. 1호

(루계 447)



◆◆◆◆◆◆◆◆◆◆ 차 례 ◆◆◆◆◆◆◆◆◆◆

조국해방 40돐과 당창건 40돐을 혁명적문학작품창작의 일대 양양으로 맞이하자!.....4	
새해의 헌시	6
진 달 래	7
세기의 하늘가에 간절한 념원	8
그 리 움	9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께 영광을	10
조선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드립니다	10
조선혁명의 요람 만경대	12
친선의 노래	12
락원의 보통강	13
크나큰 신념의 자욱	13
1 월 은	14
씨비리의 장미꽃 (외 1 편)	15
세쌍둥이의 모습	15
크나큰 자욱	15
세상에 가장 행복한 집	16
혁명적문학건설의 위대한 기치	17

삶에 대한 생각.....	24
시와 인생.....	24
무산이라 철산은.....	24
금꿀치녀.....	25
내 너밖에 몰라.....	25
언제나 웃기만 한다면... ..	25
충성의 결의, 불타는 열정.....	26
불 꽃.....	29
철의 흐름이 시작되는 곳에서.....	30
토지혁명의 치열한 투쟁속에서 자라나는 농촌혁명가의 빛나는 형상	33
첫 자 리 에.....	37
잊을수 없는 겨울날	38
나 는 너 !.....	47
당을 받드는 마음을 두고.....	48
줄기찬 발걸음	50
사랑의 노래 (외 1 편).....	52
절벽가의 소나무.....	52
송가.....	53
화력.....	61
불씨.....	70
마지막으로 걷는 길	73
력사의 증견자앞에서	74
무 궁 화	76

참 나 무	76
배길우에 띄워보내는 마음	77
조선로동당 창건 40돛기념 전국 방송극작품 현상모집 요강	80

조국해방 40돛과 당창건 40돛을 혁명적문학작품창작의 일대 양양으로 맞이하자!

주체위업의 자랑스런 년대기우에 또하나 빛나는 장을 기록할 새해 1985년이 밝아왔다.

올해에 우리는 조국해방 40돛과 조선로동당창건 40돛을 가장 경사스러운 명절로 뜻깊게 맞이하게 된다.

40년, 그것은 우리 인민이 경애하는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의 행로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온 위대한 전변의 40년이었으며 이 땅에 주체문학예술이 활짝 꽃피난 찬란한 변혁의 40년이였다.

얼마나 많은 혁명의 언덕을 넘어 우리는 오늘의 이 높은 령마루에 올라선것인가.

지난 40년의 력사, 그것은 진정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고 또 바쳐오신 위대한 사랑의 력사였다.

하여 우리 인민과 전체 작가들은 뜻깊은 새해를 맞이하는 이 아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가장 뜨거운 충성의 마음과 경모의 정을 담아 삼가 새해의 인사를 드린다.

지난해는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특기할 사변들과 사건들,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충만된 력사적인 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쏘련과 유럽사회주의 나라들을 방문하시어 형제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의 력사에 빛나는 리정표를 마련하시였으며 사회주의공산주의 위업과 세계혁명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외국방문성과에 고무된 우리인민은 지난해에도 당의 령도밑에 3대혁명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로력적 양양과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지난해에는 또한 남조선수재민들에게 우리 인민의 혈육의 정이 담긴 구호물자를 실어보내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실현되어 근 40년의 분단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획기적사변을 기록하게 되였다.

문학은 시대의 반영이며 시대와 함께 전진한다.

격동적인 현실은 우리 문학에 거대한 사상적내용들로 충만된 생활을 주며 주체형의 인간들의 성격을 깊이있게 형상할수 있는 무궁무진한 원천을 준다.

지난해에 우리 문학은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잊지 못할 겨울》과 당일군의 형상을 취급한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을 비롯하여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장중편소설들, 당과 수령을 노래한 시, 가사 작품들과 후대교양에 바쳐진 아동문학작품들을 수많은 내놓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고계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육친적지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새해 1985년에 우리 작가들앞에 나선 과업은 매우 무겁고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 예술인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가지고 현실속에 들어가 생활을 깊이 탐구하며 창작예술적기량을 높여 혁명적인 문학 예술작품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하겠습니까.》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의 결합은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변할수 없는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근본원칙이다. 우리 작가들은 사상적내용에서 심오하고 예술적형식에서 고상한 문학작품들을 주체의 인간학의 높은 경지에서 창작하기 위하여 피타는 노력과 탐구를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당과 수령을 칭송하는 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작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하고 절실하고 더 심오한 문학적인 주제는 없으며 이 주제의 창작에 바쳐진 시대의 송가보다 더 아름답고 더 고상하고 숭고한 노래는 없다.

수령과 당은 우리의 승리와 영광과 행복의 모든 원천이며 운명과 미래의 영원한 체현자이다. 우리 작가들은 총서 《불멸의 력사》의 장편소설들을 비롯하여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계속 새로운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근로자들을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선 주체형의 혁명가로 육성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하는것은 우리 문학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주체형의 인간전형창조, 여기에 오늘 우리 문학이 창작적력량을 기울여 해결해야 할 형상적과제의 하나가 있으며 우리 문학의 사상예술적질을 높이

기 위한 근본고리의 하나가 있다.

우리는 새해에도 주체형의 인간전형창조에서 새로운 변혁을 이룩하여야 한다.

1920년대 조선혁명의 려명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혁명의 각이한 단계들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충성으로 받들고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전형은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참된 구감으로 되고있다.

우리 문학의 주인공들가운데는 20년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도 있고 전화의 불길속에서 피끓는 청춘을 조국에 바친 인민군전사-영웅들도 있으며 전후 재더미우에서 용광로를 일떠세우고 쇠물을 뽑아낸 로동계급들-천리마기수들도 있고 오늘의 3대혁명전위들과 숨은 영웅들의 빛나는 모습도 있다. 우리 문학은 이들의 빛나는 형상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인간으로 교양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한다.

오늘 전체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새해 신년사와 당의 의도를 심장으로 받들고 천리마에 《80년대속도》를 가한 기세로 질풍같이 내달려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0차 전원회의결정관철을 위한 장엄한 투쟁에서 크나큰 위훈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채취공업, 철도운수, 금속공업부문의 생활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의 보람찬 전투장들에 깊이 침투하여 현실속에서 작품을 구상하고 완성하는 혁명적인 창작기풍을 철저히 세움으로써 근로대중의 심정을 대변하고 그들의 지향과 의지, 념원을 반영한 문학작품들을 훌륭하게 창작하여야 한다.

우리는 자본주의제도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산 체험을 통하여 진실하고 생동하게 보여주는 문학작품들과 근로자들의 혁명교양, 계급교양 특히 반제반미교양에 이바지하는 문학작품들을 창작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혁명의 후세대들이며 우리 조국의 미래이다. 작가들은 새해에 후대교양에 복무하는 작품창작에서도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우리는 또한 조국통일과 남조선인민들의 애국적인 투쟁을 반영한 문학작품들과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창작하는데서도 새로운 전진을 가져와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의 문학작품들이 진실로 당적이고 로동계급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으로서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생활에서 떼어놓을수 없는 귀중한 량식으로, 생활의 참다운 교과서로 되게 하여야 한다.

조국해방 40돐과 당창건 4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우리 문학의 사상예술적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기 위해서는 창작상 일련의 사상미학적문제들도

옳게 해결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작가들은 작품창작에서 종자파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똑바로 인식하는것이 필요하다. 종자의 옳은 설정은 창작의 선결조건이며그 성과를 좌우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종자가 명백하고 심오해야 절실하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제기할수 있고 예술적형상의 제반문제들도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종자에 대한 홀시, 불명료한 파악과 같은 창작태도를 버리고 확고한 목표와 신심을 가지고 작품을 창작해야 한다.

오늘 우리 문학이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의 다른 하나는 작품의 정치사상적풍격과 예술적가치를 규정하는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것이다.

철학적깊이문제는 우리 문학이 반영하는 심각한 사회력사적변혁과 주체시대가 제기하는 인간문제의 새로운 내용에 그 생활적기초를 두고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 문학이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미학적문제이며 우리 문학을 보다 높은 경지에 올려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는 인간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를 깊이있게 해명한 문학작품들을 창작하는데 응당한 관심을 돌림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문학작품을 통하여 심오한 주체의 철학적진리를 받아안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의 사상예술적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한 창작에서 류사성을 극복하고 개성적특성을 적극 살려야 한다. 창작은 본래의 의미에서 비반복적이며 독창적인것이다. 작가들은 자기가 창작하는 작품의 인물들모두가 다 자기의 얼굴, 자기의 목소리, 자기의 숨결을 가진 산인간들로 형상함으로써 창작하는 매 작품 한편한편이 다 새로운 생활영역의 개척으로 이채를 띠게 하여야 한다. 바로 여기에 우리 작가들의 문학적인 위치가 있으며 자기의 창작적인 몫이 있다.

이상의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자면 작가들이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올해에도 우리 작가들은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풍부히 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높은 창작예술적자질을 소유한 작가로 튼튼히 준비하자.

이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조국해방 40돐과 당창건 40돐을 뜻깊게 기념하는 경축장에 우수한 문학작품들을 수많은 내놓을수 있게 될것이며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고 영광스러운 우리당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할수 있게 될것이다.

모두다 조국해방 40돐과 당창건 40돐을 혁명적 문학작품창작의 일대 양양으로 뜻깊게 맞이하자!

새해의 헌시

차영도

금수라 강산에
행복의 락원에
아, 그림처럼 아름답게 밝아오는
1985년 새해의 이 아침 -

누리에 내리는 흰눈처럼
깨끗하고 티없는 인민의 마음
이 아침 만수축원의 설인사
어버이수령님께 삼가 올리나니

오로지 인민을 위하시려
이 세상에 탄생하시였고
한평생을 인민 위해 바치시려
이 세상 멀고먼 길 다 걸으신 수령님!

이제는 일만고생 일만시름 다 잊으시고
이 좋은날, 이 좋은 세월
만복을 누리는 인민의 행복
함께 나누셔야 하시련만

지난해 지난 여름에도
쏟아지는 대륙의 해빛아래
머나먼 나라들의 국경을
몇몇이나 또 돌아오셨습니까

그 영광의 만리길
추억의 만리길에
웁스크의 장미는 다시 붉어 설레이고
엘바강의 물결도 잠들줄 모릅니다

아, 정녕 새해의 이 아침
소리없이 내리는 흰눈은
수령님 인민 위해 한평생 걸으신
그 수없는 자옥마다에 꽃보라로 내리나니

그 길이 아득히
이 땅, 이 누리에
천만립니까
억만립니까

눈이 내립니다
어버이수령님 인민을 위해
너무도 어리신 나이에 고향집을 나서시던
그 못잇을 만경대고개길에도 눈이 내리고

우리 수령님
해방된 조국을 안고오신
그날의 개선팡장에도
마흔번째 세월의 눈은 고요히 내리니

아, 이 눈
복받은 인민의 가슴속에
억만가지 추억을 불러내는 이 아침의 흰눈을
어찌 무심히 볼수 있겠습니까

둘러보면 이 땅의 그 어느곳에도
수령님의 사랑의 자옥 아니어린곳 없어
흰눈내리는 그 모든곳, 모든것에
생각 더욱 깊어지는 새해의 이 아침

우리 당 력사우에
불멸의 기념비로 높이 솟은
당창건기념관의 지붕우에도
흰눈은 내리고내리고

정녕 이 땅우에 보이는건
그 모두 인민의 마음속에
수령님을 생각케 하거니
어찌 감사의 눈물 아니 흘리겠습니까

어버이수령님!
또 한해 새해는 밝아옵니다
수령님 품속에 우리 맞는 희망찬 새해를
력사는 또다시 인민에게 약속해줍니다

수령님 인민을
더 잘살게 해주시려는
그 은정 그 높으신 뜻
이해에도 하늘처럼 받들어가오리니

인민이 한마음 바라는건 오직
어버이수령님의 만수무강뿐,
그 소원 강산에 내리는 눈송이마저
간절히 속삭이며 내리니

아, 인민의 기쁨처럼
강산의 노래처럼
새해의 이 아침에 날리는 눈꽃보라
인민의 소원, 만민의 념원 담았습니다
어버이수령님,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진 달 래

김 규

눈내리는 설날아침
우리 마음 간절히 송이마다 안고서
계절을 앞당겨 꽃망을 펼친
진달래 진달래

나는 사랑해
소박하고 깨끗한 그 아름다움
아꼈던 그 향기 다 담아안고
5호물동가에 피어오르던 그날
우리 수령님 기쁘시여기쁘시여
볼수록 아름답다시던
연분홍빛 진달래

나는 못잊어
받드는 자세 의리로 변함없고
따르는 충성 신념으로 투철하던
그 마음 언제나 이 꽃에 담아
항일의 념전사 피워올리던
사령부피창가의 그 진달래

그날 그 물동가에서
우리 수령님 왜 그리도 기뻐하셨는지
항일의 념전사 그 언제나
한마음 언제나 이 꽃에 담았는지

만수대언덕으로 오르는 마음속에
다시금 소중히 피어나는 진달래
그 어느 산속 외진곳에 뿌리내려도
눈바람 이겨내고 남먼저 피는 꽃
소박하면서도 빛갈 고운
이 향기 이 아름다움

수령님 모시고 변함없이
향도성 받들어 영원히
그 향기 그 아름다움 안고사는
우리 인민의 마음
우리 인민의 모습
아 강산에 만발한
진달래 진달래

세기의 하늘가에 간절한 념원

김일규

조용히 귀 기울이면
간절한 눈망울들 지켜선 창가에
진달래 꽃망을 터지는 소리
새날의 첫 출강을 앞둔
전기로의 쇠물끓는 소리

버드나무거리
그 높은 창가는 아닌가
친애하는 그이께서 먼저 걸어보신
돌부리 하나 없는 꽃길에서
네 타박이며 첫걸음마 떼었다고
딸에게 속삭이는 어머니의 목소리
눈송이 타고 뜨겁게 들려오는곳은

철산봉마루
대발파를 앞둔 그 산정은 아닌가
휴양의 명승지에서
무지개다리 건너 오르던 등산길에
친애하는 그이께서 다녀가신
가슴뜨거운 자욱 새겨져있었다고
못잊어 다시 하는 광부들이야기
내 마음도 적셔주며 들려오는곳은

그이의 사랑넉친 이 땅 그 어디나
감사의 정 차고 넘쳐
겨우내 피운 송이송이 꽃을 팔라
축원의 한마음 고이고고여
자랑찬 위훈의 보고 함께
새해의 첫 인사 삼가 드리자
간절한 마음들이 잠 못드는 이 밤

사랑만을 받아안던
가는 해를 돌이키며
가슴가득 썬웃는 이내 생각도
친애하는 그이 품에 성장하던
추억의 물결타고 거슬러올라라

밤꽃 하얀 고향의 언덕너머
전호속에 밤밝히던 초소의 나날에
가슴가득 아롱지던 희망의 꿈

그토록 소중히 여겨주신 사랑
대학의 창가에서 부풀던 그 꿈을
드넓은 대지에 피워주신 그 은혜

안겨주신 사랑에 보답하고자
내 초소에서 땀흘리며 달릴 때
나도 몰래 안겨지는 크나큰 믿음속에
영광의 대오에 이 몸도 들어섰고
작은 위훈 새겨안고 돌아오는 고향길에
다시금 뜨겁게 베푸신 사랑이여

그 사랑이였더라
그이 들려주신 붓끝을 고르며
내 찾아가는 시의 고장마다
날바다를 가로질러 갑문은 솟아나고
세인을 놀래우며 선광장이 일떠선
전설같은 이야기 꽃피운것은

아, 정녕 그 사랑의 손길은
세월을 앞당기며 우리에게 안겨지는
그 크나큰 행복의 모든것
우리 확신하는 세기의 언덕우에
빛발치는 조국의 무궁한 영광

그때문이 아니던가
만민의 축복속에 우리 수령님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 돌아오실 때
꽃뭉음 흔들며 달려간 우리
크나큰 기쁨의 보고 올리며
그이 받드는 행복에 가슴 부풀던것은

그때문이여라
은혜론 향도의 그 빛발따라
수령님 사랑을 가득히 싣고
인천과 북평을 향해 우리의 배들이
파도를 헤가르며 나갈수 있는것은
통일된 조국의 희망넉친 미래
공산주의 새봄을 눈앞에 바라볼수 있는것은

내 조용히 눈길을 들어

눈내리는 강산에 끝없이 비쳐가는
주체사상탑의 붉은 빛살을 바라보노라
그 붉은 노을속에 그림처럼 펼쳐진
창광거리며 인민대학습당을

그 어디를 바라보아도
가슴속엔 감사의 정만 차오르고
그이 모시여 행복넘친 나날이
가는 한해로만 생각되니

새해를 맞는 이 시각

그이 받들어모시고 영원히 가고갈
영광넘친 나날도
오는 한해로만 생각되어
그토록 무궁한 나날속에
간절한 소원 이어가는 인민의 마음이어

아, 이 땅의 가는 해 오는 해는
어제와 오늘처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드리는
축원의 념원안고
영원한 세기의 하늘가로 이어지고있어라

그 리 움

문성락

꽃이 피는 봄철이 오면
꽃속에 모시고싶고
열매맺는 가을이 오면
향기속에 모시고싶어

간절한 이 마음 꽃을 피우는데
봄에도 가을에도 아니 오시고
눈내리는 겨울날 그 아침에
우리 농장 찾아오신 지도자동지

뒤동산 다락밭
눈꽃이 핀 사과나무 가지를 보시며

꽃피는 봄날에
또다시 오시겠다 하시였으니

꽃피는 봄을 그리는 내 마음
눈길헤쳐 안아오신 봄
그 봄에 피어나는 꽃이어서
그 사랑 열매맺을 꽃이어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려
간절히 기다려
언제나 꽃속에 모시고싶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영광을

로제 꼬또 조무

그렇다! 우리 그이를 만나뵈왔어라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 시대의 태양을
반제 친선 평화를 위한 세계기자대회를 축하하여
그이께서 베풀어주신 연회장에서
우리 그이를 직접 만나뵈옵고
심장은 주체의 빛발로 하여 뿔뿔하였어라

그렇다! 우리 그이를 만나뵈왔어라
위대한 수령님을
그이의 가르치심 받아안은 우리
세계평화를 위하여 투쟁할
의지와 신념 더욱 굳어졌나니
이제 우리의 필봉은
모든 대륙의 인민들을 위한 위업에 바쳐져야
하리

그렇다! 우리 그이를 만나뵈왔어라
김일성 주석을
그이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이께서 우리들에게 미소를 보내실 때면
마음속에 힘이 솟고
주체의 빛발 가슴에 차넘쳤거니
기쁨에 넘친 우리의 심장
그이에 대한 끝없는 흠모의 정으로 부풀어올랐
어라

김일성 주석! 그이는
조선의 위대한 태양
학교와 농장
건설장과 광산들에서
인민들 우러러따르는 태양

김일성 주석! 그이는 위대한 수령
그이는 아시아대륙에서 칭송하는 태양

김일성 주석! 그이는 세계의 위인
그이는 해빛을 갈망하는 온 인류가 흠모하는
태양

김일성 주석!
그이의 존함은 위대하여
온 세계에 빛을 뿌리여라
그이의 위업은 거창하거니
푸른 산들과 기름진 들관
아름다운 호수와 수정같은 내물을 안은
조선은 꽃피는 나라
농민들 로동자들
병사들 학생들
갖가지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들
그이의 가르치심 따르고
그이의 현치교시 관철에 몸바치여라

황홀한 도시 평양이여
너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인
극장들과 유원지들 학교들은
주체의 빛발아래
훌륭한 교향곡으로 노래불리워라

김일성 주석!
그이는 만민의 태양
조선의 은혜로운 태양
온 세계를 밝히는 태양
그이는 영광스러운
천리마진군의 진두에 서계시는분
그이는 주체의 기치 높이 드시고
조국통일위업을 이끄시여라

(필자 기네주간잡지 《호로야》 기자)

조선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드립니다

아브들 라와프 기할 후기야니

아, 인민들과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시는
당신은 근로하는 사람들의 친근한 령도자
인민에 대한 사랑을 지니신 위대한 스승

당신의 성스러운 위업은
인민의 행복과 번영 위해 복무하나니

당신은 자신의 모든것을 인민 위해 바치시며
그들이 세계의 주인된 생활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하기에 온 세계 인민들은
인류의 진정한 벗으로
당신을 우러릅니다

당신께서는 근로하는 인민대중을 만나시려고
수천리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을 이으시여
그들과 한자리에서 담화도 나누십니다

모든 사람들 당신의 안녕을 념려하여
먼길 떠나시지 말기를 바라건만
당신의 건강을 념려하여
깊은 막장에만은
들어가시지 말기를 절절히 바라건만
당신께서는
그 모든곳을 가까이 찾으십니다

당신께서는
그들모두를
한가정의 친형제처럼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시
기에
그들을 한품에 안아
살뜰한 정 부어주십니다

오, 인류가 낳은 위인
당신은 친애하는 지도자
조선인민의 향도성
인민들모두가 당신을 우러러
충성을 다해가나니
당신은 수령님의 후계자
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십니다

당신께서 밝히신 로선
근로대중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것이고
당신은 근로인민모두의 단결의 중심이시기에
인민들은 당신의 두리에 뭉치여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나아갑니다

당신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정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당신을 인민의 지도자로 모신 영예를
그들은 긍지높이 자랑합니다

조선인민의 친근한 **김정일**동지
당신은 공산주의의 태양
인민들의 자랑과 영광의 상징이십니다
당신은 탁월한 위인
인민의 위대한 지도자이십니다

당신께서는 인민에게 끝없는 은정을 안겨주시여
전 인류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계십니다
인민들은 당신을 혁명의 령도자로 높이 추대
하고
숭고한 임무를 맡기였습니다
당신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세계인민들속에 계십니다
하기에 인민들은 모두 긍지높이
당신께서 지니신 인품을 위대성을...
칭송합니다

당신께서 집필하신
주체사상에 대한 모든 로작의 갈피갈피는
자연과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을 밝히고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모든 사상을 해명하
였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혁명운동의 자주적인 미래를 위
하여

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당신은 위대한 수령님의 참다운 후계자
사상과 리론의 영재
인민의 위대한 지도자
인류의 친근한 벗이십니다

당신께서 복과 남을 하나로 이으실
통일의 위업
반드시 성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당신께 축하를 드리웁니다
인류의 존경과 감사의 정을 담아
당신을 우러러
삼가 축원의 인사 드리웁니다.

(필자 아프가니스탄 민족조국전선 기관지
《아니스》 부주필)

조선혁명의 요람 만경대

(중국) 안 룩

1. 대동강 맑은 물 굽이치고
만경봉의 푸른 소나무 무성하네
꽃향기 그윽한 초가집에
혁명의 업적은 빛을 뿌리네

아, 만경대 조선혁명의 요람
세계인민은 우러르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노래하네

2. 항일의 긴긴세월 봉화는 타올라
탁월한 예지로 고난을 이겨 승리하셨네
수령님 해빛아래 강산은 꽃께거늘
조선은 영원한 봄 맞이했네

아, 만경대 조선혁명의 요람
세계인민은 우러르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노래하네

3. 14년 짧은 기간에 공업화를 완성한
조선을 세계는 찬양하네
인민의 락원에 삶의 기쁨 넘치고
영광의 꽃 만경대에 활짝 께네

아, 만경대 조선혁명의 요람
세계인민은 우러르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노래하네

4. 주체사상은 혁명의 등대
영생불멸의 빛발 뿌린다네
수령님 모시고 행복한 나라
조선은 세기에 영광 펼치네

아, 만경대 조선혁명의 요람
세계인민은 우러르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노래하네

친선의 노래

1. 노을이 붉게 타는 이른아침에도
무더운 여름의 깊은 밤에도
내 언제나 천리마의 발굽소리 듣는다네
우의의 노래 우리를 더욱 가깝게 하여주네

2. 내 **김일성**주석의 교시를 마음에 새기네
그이계신 공산주의의 위대한 설계도
펼치셨네
천리마조선을 노래하는
전세계인민들의 목소리 내 듣노라

3. 속도전의 불길높은 주체의 공업전선
승리의 소식을 내 듣는다네
전기화 된 농촌은 사회주의지상락원

- 풍년새노래 내 듣는다네
4. 장중한 **《김일성**장군의 노래》 들으며
내 조선의 찬란한 래일을 보네
《조국의 진달래》 노래 들을 때마다
내 마음 조선에 가있네

아, 형제의 나라 친근한 벗들이여
우리 천만리 멀리 있어도 마음은 하나로
이어졌거늘
증조우의의 꽃송이 활짝 피기를 축원하네
증조우의의 노래 만대에 길이 울려가기를
축원하네

락원의 보통강

1. 보통강 보통강

너는 아름다운 강
맑은 물 속삭이며 흐르고
꽃배의 등불 강물속을 헤엄치네

아, 보통강 락원의 보통강
푸른 버들 붉은 루각 비껴안고
인민의 락원을 노래하네

2. 보통강 보통강

너는 행복의 강
꽃이 만발하고 벼향기 싱그러운
살기 좋은 금수강산의 자랑 안고 흐르네

아, 보통강 락원의 보통강
김일성 원수님 꽃피워주신
행복한 살림을 노래하네

(배민옥 역)

크나큰 신념의 자욱

김시권

폭음이 사라진 새벽의 하늘가에
풀잎으로 위장한 황소의 방울소리
정답게 울리며
발갈이 나서는 길에서
농민들은 맞이했다 놀라움과 환희로
들길의 이슬을 먼저 밟으시며 찾아오시는
군복차림의 최고사령관동지를-

이 땅우에 엄혹한 불구름이 없든
군데군데 쌓은 거름무지도
대견히 굽어보시며
환히 웃으시는 그이의 미소
봄빛처럼 아침처럼 봄노을 펼치시며
사랑의 뜨거움으로
안아주실듯 다가서시거니

어쩔줄 모르는 농민들의 손을
수고한다고 몇번이고 흔들어주시는 그이
한 쌍태머리치녀의 땀배인 보잡이대를
손수 쥐여보시며
황소의 굴레를 잡고있는
한 로인의 마디굵은 손도 어루만지실 때

농민들에겐 안겨왔다 가슴속에 뜨거움이
멀리 분망하신 최고사령부를 자주 떠나시어
얼음풀리는 들판에 농민의 마음보다 앞서
종곡과 쟁기, 비료를 보내주시며

발갈이 봄노래
원췌의 폭음보다 더 억세게 울리게 해주시던
그 뜨거움이

이 시각 얼마나
농민들의 가슴 세차게 높뛰게 하시는가
불탄 땅우에선 생각도 할수 없는
크나큰 뜻을 펼쳐주시는 어버이수령님
래일은 험하고 흥겹게
기계의 손, 과학의 젖줄기로
황금이삭들 저 하늘가에 금빛으로 물들이게 할
휘황한 사회주의농촌의 전망을
환한 웃음으로 바라보시며
크나큰 신념
농민들의 가슴에 안겨주시거니

아, 새벽의 찬공기를 녹이며
뜨겁게 울리는 그이의 말쑥
그것은- 침략자를 짓누르며
이 땅우에 삶의 승리와 봄빛 미래를
한품에 안아오시거니
저 땅김을 내뿜는 아지랑이도
그이의 신념 넘치신 후더운 숨결인가

그이의 높이드신 손길에서 날아오르듯
종달이 우짖는 봄하늘 향해
농민들의 눈앞엔 안겨왔다

이 땅우에 박던 저 낡은 보습대신
 또락또르들이 무지개이랑 물결치게 할 화폭이
 수천년 달구지 뼈격이던 저 들길로는
 자동차들의 발동소리 음악처럼 울릴것을
 황금이삭들 베여가는 수확기운전칸에
 저 보잡이쳐너가 앉아 웃을 그 얼쿨이...
 력사적인 전변에 젖는 감격의 눈빛들이여

아, 이 땅우에 포화가 사납게 몽개치는
 가장 준엄한 시각에
 들판우에 환한 웃음 지으시며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 새벽 또하나
 미제에게 폭탄보다 더 무섭게 공격하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무기를 높이 추켜드셨나니

지금 친히 보습을 쥐시고
 흙을 파헤치시며 앞장서 나가시는
 그이의 땀에 젖는 손-
 그 손은 간밤 깊도록 붉은 연필 쥐시고
 작전도우에 공격화살표 힘차게 그으시며
 미제의 숨통을 짓누르시던 그 손이다

번져가는 이랑의 흙밭우로
 걸으시는 그이의 발걸음은
 포연속 천리 전선을 찾아

파편들이 덮인 전호와 전호속을 걸으시며
 병사들을 승리에로 부르시던 그 걸음이다

침략의 불길로도
 태울수 없는 김서리는 이랑마다에
 삶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그이
 전쟁의 폭음으로도
 드눌게 할수 없는 농민들의 가슴에
 조국의 미래를 안고 숨쉬게 하시는 그이

미제가 무서워하는것은
 전쟁패망만이 아니라
 아, 수령님의 가슴에 안으신
 크나큰 신념으로 일떠선 조선
 더 휘황한 전망의 나래를 펼치거니-

그이는 보습을 쥐신채
 지평선끝에 솟는 아침해를 향해
 머리를 드신다
 저 멀리 전선의 고지들에서
 터져오를 승리의 함성너머
 펼쳐질 아름다운 조국땅의 풍만한 모습을
 벌써 바라보시는 미소어린 안광따라
 사회주의농촌락원을
 함께 바라보는 농민들의 감격이여!

1 월 은

서동린

첫걸음 내여디딘 한해의 첫발이여서
 눈보라 하늘땅에 갈기치고
 은빛으로 얼어붙은 강들에선
 얼음장이 쨍쨍 터지는가
 겨울이 제 위력 한껏 뽐내는
 이 땅의 이 계절 이 추위

누리에 차넘치는 행복에 젖어
 후더운 몸 거리에 나서면
 그날의 우리 수령님 찍으셨던
 그 짙은자욱 눈우에 어리나니

마음속에 다잡는 노를 저어
 못세월 조용히 거슬러오르면
 1925년 1월
 우리 수령님 내 조국 안으시고
 혁명의 첫기슭 떠나신 계절이여

그날부터 아,
 우리 수령님 불구름 눈비 헤치시여
 어둠은 가셔지고 또 가셔지고
 만시름 없어진 터전우에
 재일수 없는 재부 덧실리는
 조선의 1월은 추위도 뜻많은 계절이여라

씨비리의 장미꽃 외 1편

박창화

크라쓰노야르쓰크역두에
환영의 물결이 세차게 굽이치던 날
우리 수령님께 삼가 드린 장미꽃다발 !

그이께서 오시는 날에 맞추어
봄을 앞당겨 붉게 피운 꽃
한송이, 또 한송이...
정성담아 골라낸 꽃송이를

아, 존경과 흠모의 그 마음들이
그대로 온 역두에 향기로 넘치고
높이 들어 환호하는 그 손길들이
기슭이 없는 꽃바다로 설레일 때

광활한 씨비리의 봇나무숲을 넘어

그 향기 이 땅에 날아오고
불길처럼 타고르는 그 빛갈
우리의 마음도 붉게 물들었나니

우리 수령님 받으신 그날부터
두 나라 인민의 가슴속에 뿌리내려
친선과 단결의 월계수로
활짝 피어난 장미꽃!-

진정, 그 시각에 씨비리의 장미꽃은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그 향기 위도와 경도를 넘는
진귀한 꽃으로
세상에 두번다시 피어났다네

세쌍둥이의 모습

엘바강의 유람선도 아니었네
바스타이 산정길도 아니었네
수령님께서 그날
몸소 찾으신곳은

조국의 어느 한 로동자구에 들리신듯,
멀리 갔던 아버지가 돌아오신듯
환하고 인자하신 미소를 담으시고
그이께서 찾으신 독일의 세쌍둥이집-

아시아-유럽를 전감시키던
축원의 그 목소리
환영의 그 꽃물결
이 작은 집에 넘치고

수백만의 손길을 잡아주시던
위대한 그이의 손길
축복의 해발이 되어
아이들의 머리우에 흘러내리고...

하늘같은 그이 품에 안겨
세쌍둥이 해바라기처럼 밝게 웃을 때
제고장에서도 다 알지 못하던 그 모습
온 세상이 알게 되었으니

해빛을 받아 빛나는 삼태성처럼
사랑의 해빛을 받아 빛나는 모습들,
아, 그것은 어머니도 풀수 없었던
세상이 부러워하는 가장 큰 행복이였네 !

크나큰 자욱

김석주

두터운 무쇠로
불로크를 찍어
넓은 길을 깔았다
프레스직장으로 가는 길을

육중한 강철기둥들과
거창한 대형설비들이
날마다 지나가도

흔적도 남지 않은
무쇠포장길

그날 아침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이 길을 걸으시여
3천톤프레스앞에 서시였다

이 굴거리는 쇠덩어리를
프레스는 조용히 눌러버렸다...
만족하신틀 허리에 손을 얹으시고
그이는 프레스의 힘이 아닌
룡성로동계급의 힘을 가늠하시었다

그 힘의 한계는 어디나
만톤프레스를 만들데 대한
크나큰 믿음의 말씀이 끝나자
그들의 가슴속엔 벌써
그 철의 산악이 숨쉬고있었다

이렇게 그이께서는
그 강대한 힘을 안겨주시고
무쇠포장길을 걸어가시었다

이 철의 길우에
크나큰 발자국을 찍어가시며

아, 나는 보았다
그 어떤 힘으로도 누를수 없던
두터운 쇠볼록우에 찍혀있는
그이의 크나큰 발자국들을 !

그 자욱을 따라
1만톤프레스가 걸어가려니,
나는 보았다 무쇠길우에 찍으신
그 거대한 힘과 비약의 자욱우에
더 높이 솟아오를 철의 조국을

-룡성기계공장에서-

세상에 가장 행복한 집

강남섭

우리 수령님
영웅의 고향집을
찾으신 그날은
벼이삭 익어가는 가을날이었고

우리 지도자동지
영웅의 고향집을
찾으신 그날은
앵두꽃 하얗게 핀 봄날이었고...

그 가을날에
벼이삭들은 들었네-
-수복이의 고향인데
들렸다 가야지 ...

그 봄날에
앵두꽃들은 들었네
-리수복의 고향을
찾아보고 갑시다...

뜻밖에 방문을 여시는
우리 수령님을
영웅의 어머니는
더없이 황송해서 맞아들이시고...

뜨락에 들어서시는
우리 지도자동지를
영웅의 어머니는
너무도 기뻐서 어쩔줄 모르시고...

수령님 품에 안기인

어머니는 한없이 고마왔네
-어머니, 평양에 올라오시면
우리 집에 꼭 찾아오십시오

지도자동지 품에 안기인
어머니는 기쁨에 젖었네
-어머니, 리수복영웅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대신 우리가 어머니결에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을 기꺼이 바칠줄 안
전사와 전사의 어머니는 행복하여라

아, 송재산기슭의 집
추녀 낮고 뜨락은 작아도
세월과 더불어
높아가는 집 넓어지는 뜨락-

오늘도 오늘도
영웅전사의 고향집은
자기 품에 돌아온
수천수만의 아들-수복이를
껴안아 맞아들이고있구나

집이여
우리 수령님 언제나 찾아주시고
우리 지도자동지 따듯이 보살펴주시는
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집
우리모두의 집이여 !

혁명적문학건설의 위대한 기치

강농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역사적위업이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진행되고있는 새로운 현실은 근로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미학정신적으로 더욱 힘있게 교양할수 있는 문학작품을 창작할것을 요구한다.

작가동맹제2차대회이후 20여년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문학은 참으로 비약적인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사회주의적개조와 공업화의 완성,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1차5개년계획과 7개년계획의 방대한 사회주의건설강령의 빛나는 구현 등 장엄한 현실과 함께 승리와 영광의 로정을 걸어온 우리 문학은 또한 그에 맞게 사상미학적수준을 더욱 높일것을 요구하였다.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비서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러한 주객관적요구를 깊이 헤아리고 지금으로부터 5년전인 1980년 1월 8일에 조선작가동맹 제3차대회의 소집을 친히 마련해주었을뿐아니라 대회참가자들에게 더없이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시기 문학앞에 나서는 기본과업과 그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본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준것으로 하여 그리고 그 사상리론의 과학성과 심오성, 거대한 실천적의의로 하여 오늘은 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1

문학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는 무엇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심화되고있는 우리 현실발전의 요구와 공산주의인간학의 원리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이 나아갈 기본방향을 과학적으로 밝혀준데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지금 온 나라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운동을 널리 벌리고있는데 이러한 주인공들의 생활과 정신세계를 깊이 파고든다면 훌륭한 종자를 찾아낼수 있을것입니다.》

문학작품의 진정한 가치는 결국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참답게 산다는것은 어떻게 살며 투쟁하는것인

가 하는 혁명관과 인생관을 옳바로 깨우쳐주는데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새로운 역사적시기는 그 이전의 문학이 일찌기 알지 못하였거나 다치지 못한 새로운 문학적인 문제, 즉 자주적인 인간의 운명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명할것을 요구하였다.

이 시대적인 문제는 바로 작품의 사상적핵이며 그 가치를 규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인 종자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며 그를 옳바로 잡을 때에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문학은 종자론에 기초하여 우리 시대의 전형인 숨은 영웅들의 생활과 정신세계에서 종자를 탐구하는데 대한 문제를 밝혀줌으로써 우리 문학으로 하여금 언제나 생활과 함께 전진하면서 생활에서 나서는 초미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해답을 주는 문학으로 발전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것은 시대의 전형으로서 우리 현실에서 수많은 탄생되고있는 숨은 영웅들의 지향과 념원과 관련된다.

그들은 자기들의 사업과 생활을 통하여 공산주의자의 신념과 의지가 무엇인가 하는것을 제기하고있다.

숨은 영웅들은 자기들의 체험과 실천활동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의 참된 신념과 의지는 무엇보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받들려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라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들은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의 빛나는 승리도,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과 찬란한 미래도 굳게 약속되어있다는것을 확신하고있다.

숨은 영웅들은 자기들의 사업과 생활을 통하여 동지애, 혁명적의리 등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도덕률리적인 문제들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다는것으로서 또한 특징지어진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혁명투쟁활동과 함께 시작된 혁명적동지애는 류레없이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승리를 보장하는데서는 말할것도 없었고 동지적인 협조와 단결이 사회생활의 기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를 떠밀고나가는데 있어서도 크나큰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

다.

따라서 숨은 영웅들의 생활과 정신세계를 탐구하여 종자를 잡을데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은 공산주의인간학의 요구를 옳게 구현하게 함과 동시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가 제기하는 근본 문제들을 가장 정당하게 해결할수 있게 하는 탁월한 사상이다.

문헌의 독창성과 과학성은 또한 우리 시대의 구감인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하는 문제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심화되고있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우리 문학의 중요한 과업으로 밝힌데 있다.

한나라 한 시대의 문학의 성격과 특징은 작품에 내세운 전형의 특징에 의하여 규정된다.

따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시대가 제기하는 문제와 함께 그를 담당하고 구현할만한 전형을 옳게 내세워야 한다.

그런데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시대의 구감이며 대표자들이다. 뿐만아니라 그들이 체현하고있는 정치사상적, 정신도덕적 품모는 먼 앞날의 공산주의사회인간들이 지녀야 할 기본특징으로 되고 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이 체득하고있는 주체의 세계관과 투철한 수령관, 그리고 자신의 명예와 공명을 생각함이 없이 남이 보전말건 그 어떤 리유와 조건타발도 없이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위하여 성실히 일하는 숭고한 정신세계는 그들의 높은 정치사상적, 정신도덕적 수준을 그 대로 파시한다.

숨은 영웅들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의 현실은 빛나며 숨은 영웅들을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이 대중적으로 전개됨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무한한 의욕과 활력을 가지고 힘있게 전진하고있는것이 다.

따라서 그들을 빛나게 형상하는것은 현시기 우리 문학앞에 나선 기본과업으로, 그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이처럼 문헌은 현실발전의 특성과 요구, 공산주의인간학의 원리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문학건설의 과학적인 방법론을 밝혀주는 탁월한 지침으로 된다.

다음으로 문헌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는 우리의 주체문학이 응당 갖추어야 할 사상예술적수준에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주고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방

도를 전면적으로 해명해준데 있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작품의 정치사상적풍격과 예술적가치를 규정하는 철학적깊이에 대한 리론을 독창적으로 밝히고 그것을 주체문학이 응당 갖추어야 할 사상예술적수준문제로 천명하고있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문학에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의 하나는 작품의 정치사상적풍격과 예술적가치를 규정하는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것입니다.》

작품의 철학적깊이가 주체문학이 갖추어야 할 사상예술적수준문제와 직접 관련되는것은 철학적깊이의 본질과 관련되어있다.

문학작품의 철학적깊이는 종자의 철학적무게, 사상의 철학적심오성, 사회적문제의 예리성, 생활의 새로운 탐구,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와 언어구사를 통하여 보장되는 창작과정의 총체이다.

철학적깊이는 작품의 어느 한 개별적 또는 부분적 속성 및 측면과만 관련되어있는것이 아니라 작품창작의 모든 고리와 관련되어있는, 말하자면 창작과정의 총체이다. 또한 그것은 사상적내용과 예술적형상의 높이를 다같이 특징지으면서도 그것들을 하나로 련결시키고 통일시키는 새로운 미학적범주이다. ,

따라서 철학적깊이가 보장되지 못하면 도대체 문학작품의 사상적깊이와 예술적높이에 대하여, 그리고 사상성과 예술성의 통일에 대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응당한 수준에서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철학적깊이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져야만 우리는 작품의 정치사상적풍격과 예술적가치를 규정하는 철학적깊이를 보장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을 찾을수 있는것이다.

그것은 철학적깊이가 작가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전반과 관련된 문제로서 인간의 운명에 대한 문제해명에서의 심오성과 철학적성, 그를 해명하는 예술적일반화의 깊이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표현되기에문이다.

작품의 정치사상적풍격과 예술적가치를 규정하는 철학적깊이가 주체문학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상예술적수준으로 되는것은 또한 공산주의인간학으로서의 우리 문학자체의 본성과 관련되어있다.

공산주의인간학은 본질에 있어서 이전시기의 그 어떤 문학도 도달할수 없었던 사상적으로 가장 심오하고 예술적으로 최상의 높이에 도달한 문학이다.

그것은 이 문학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자
주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그의 사상과
의지, 감정과 정서를 통하여 창조할것을 지향하는
새형의 공산주의문학이다.

따라서 사색이 부족하고 사상이 깊지 못하며 또
한 형상이 높지 못한 작품은 엄밀한 의미에서 공산
주의인간학의 권내에 들어올수 없는것이다.

문헌은 다음으로 작가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
량을 높이는 문제를 주체문학건설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기본방도로 제기하고 그를 보장하
기 위한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완벽한 해명을 주
고있다.

혁명과 건설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문학예술
작품창작에서도 작가의 사상의식은 결정적인 역할
을 한다. 사상론에 의거하여 작가의 정치적식견을
높이기 위한 문제를 원리적으로 해명하고있는데 또
한 이 문헌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

작가의 정치적식견을 높이기 위한 문제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상론에 의거함으로써만 옳
게 설정될수 있고 해결될수 있다.

창작의 첫공정인 종자의 선택과 그것을 꽃피우는
과정, 즉 창작의 전과정에서 그 어느 한 고리, 어느
한 형상요소도 작가의 사상의식과 떼어놓고 생각
할수 없다.

주체의 사상론은 작품창작에서 작가의 사상의식
이 가지는 의의를 인정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그의
결정적 역할을 확신하는데로부터 출발한다.

이로부터 작가가 선진적인 사상의식 즉 혁명적인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면 무장할수록 사상적으
로나 예술적으로 훌륭한 작품을 쓰게 된다는 결론
을 얻게 된다.

우리 작가들이 세계에 대한 과학적인 견해와 관
점을 주는 우리 시대의 가장 선진적인 세계관인 주
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무장하는것을 자기
의 작가적인 자질을 높임에 있어서 첫차리에 놓는
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작가들은 웅당히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
의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작가이면서 동시
에 철학자, 사상가가 되여야 한다.

작가의 사상의식이 문학작품창작에서 결정적 역
할을 한다는 사상론은 또한 작가적인 준비에 있어
서 정치사상적준비와 창작적기량을 어떻게 결합하
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옳바른 해답을 준다. 창
작적기량은 작가를 바로 작가로 되게 하는 본질적

특성이다. 아무리 주관적의도는 좋다고 하더라도
그에 맞게 창작적기량이 따르지 못한다면 실패를
면할수 없는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정치사상적준비를 소홀히 하고 예
술적기교 일면만 강조하면 예술지상주의에 빠지게
되며 결국에 있어서 예술적기교자체도 쓸모없게 된
다. 예술적기량을 참답게 꽃피우기 위해서는 작가
의 정치사상적준비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여 그를
앞세우면서 창작적기량을 높이는 사업을 잘 배합
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문헌은 또한 작가의 창작적기량문제를 작품의 철
학적깊이를 보장하여 우리 문학을 진정한 공산주의
인간학으로 발전시킴에 있어서 나서는 관건적인 문
제의 하나로 제기하고있다.

창작적기량문제는 창작과 함께 작가에게 언제나
제기되는 항구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그 항구적인 문제가 어느 시대 어느 문학
에서나 새 문학 건설의 관건적인 문제로, 혁명적과
업으로 제기된적은 일찌기 없었다.

문헌은 이것을 혁명문학건설의 근본문제의 하나
로 제기하였다.

특히 작가에게 있어서 창작적기량은 생명과 같은
것이라는 고전적인 명제는 것처럼 포괄적이고 그리
럼 어려운 창작적기량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있게
하는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작가의 예술적기량문제는 그자체가 실무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언어구사로
부터 예술적일반화에 이르기까지 형상의 전과정과
관련되고있는 문제로서 오랜 창작생활을 통하여 꾸
준히 탐구하고 축적함으로써만 해결할수 있는 문제
이다. 이는 오직 자신의 예술적기량을 높여 보다 훌
륭한 작품으로 당과 혁명에 이바지하려는 작가의
높은 자각과 부단한 투쟁을 요구한다.

문헌은 작가의 창작생활에서 중요하게 나서는 창
작적사색에 대한 문제를 새롭게 밝혀주고 현실체험
문제를 작가의 예술적재능과 결부하여 폭넓게 제기
함으로써 예술적기량문제를 보다 전면적으로 해결
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명철하게 밝혀주신바
와 같이 창작적사색은 작가의 머리에 우연히 떠오
르는 그 어떤 《령감》이 아니라 작가의 인내성있
는 탐구과정이며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의 반영
이다.

다시말하여 창작적사색이란 본질에 있어서 예술
적사색이며 작가의 정치사상적준비와 예술적준비,

작가적인 준비의 총체적인 발현이다.

철학적심도가 있는 작품은 깊은 창작적사색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철학적인 깊이가 있는 작품, 공산주의 인간학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킬수 있는 작품을 쓰기 위해서는 그만큼 수준의 창작적사색을 할수 있게 되어야 하며 또한 그만큼 높은 창작적기량을 소유하여야 한다.

현실은 작가에게 지식과 생활소재를 제공하여주는 무궁무진한 원천이며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을 인식하게 하고 우리 작가들의 세계관형성을 촉진시켜주는 혁명교양의 산학교이다. 뿐만아니라 현실은 우리 작가들의 창작적재능을 꽃피울수 있는 더없는 비옥한 토양이기도 하다.

현실체험이 작가들의 창작적재능을 꽃피울수 있는 비옥한 토양으로 되는것은 창작적재능자체가 현실에 대한 다방면적이며 심도있고 폭넓은 체험과 생활에 대한 끊임없는 축적을 전제로 하고있는데 있다.

따라서 작가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이 귀중한 창작적기량을 탁상우에서 쉽게 습득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안일한 사상 관점과 경향을 모두 극복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항상 침체와 로쇠를 모르고 창작적 환상과 열정에 넘쳐 자기의 예술적재능을 꽃피워나가기 위해 현실체험을 부단히 강화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문헌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는 혁명문학 건설에서 당적령도가 노는 결정적인 역할을 독창적으로 심오하게 천명한데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에 대한 당적지도를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공산주의문학예술건설의 결정적담보입니다.》

로동계급의 문학은 본성에 있어서 당의 사상을 구현하고 당이 개척한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복무하는 문학, 즉 당의 문학이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문학의 발생자체와 그 성격과 사명이 잘 말해준다.

또한 문학은 당사상전선의 중요한 분야이며 특히 사람들에게 미치는 커다란 사상정서적감화력으로 하여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같이 문학분야에 대한 당적령도를 실현하는것은 합법칙적이다.

문학에 대한 당의 령도는 또한 문학예술발전을 위한 결정적인 담보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당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세계관적기초인 로동계급의 선진사상을 밝혀

주며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념원이 민감하게 반영되도록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문학이 나아갈 길을 가르쳐주며 로동계급의 위업수행을 위한 성스러운 사업으로 조직동원하기때문이다.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에 맞게 로동계급의 문학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문예정책을 작성하며 그 실현으로 대중을 조직지도 한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그것을 꽃피우며 한생을 혁명가로 싸워나가도록 보살펴준다.

당은 작가들의 창작을 로동계급의 력사적인 위업수행과 같은 거창한 사업과 련결시켜주며 작가의 창발성과 독창성, 창작적개성의 최대한의 발양에서 혁명문학의 찬란한 개화를 본다.

사랑하는 아들이 길을 헛갈릴세라 늘 보살펴주며 부패하고 퇴폐한 부르조아반동문예사상이 침습해들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주는 당이 있어 혁명문학발전의 앞길은 확고히 담보되어있다.

당의 령도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의 한 길을 걸어온 우리 문학의 발전력사가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해방후 조선문학의 발전력사 특히는 60년대 하반기에 그 전제가 마련되고 1970년대에 대전성기를 맞이하였으며 그를 이어 1980년대에 더욱 찬란한 개화를 열어나가고있는 우리 문학의 산 력사는 문학에 대한 당의 령도가 강화되면 될수록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건설이 강력히 추진된다는 위대한 진리를 밝혀주고있다.

이처럼 당의 령도에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독창적인 사상은 문학에 대한 당의 령도의 본질과 문학예술발전의 추동력을 새롭게 밝힌 위대한 사상으로서 로동계급의 문예사상발전에서는 물론 로동계급의 당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할 강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된다.

2

문헌의 위대성과 진리성은 거기에 담겨진 사상과 리론의 독창성과 심오성에서뿐만아니라 또한 그의 크나큰 생활력을 통하여 남김없이 파시되고있다.

우리 문학의 사상예술적높이는 무엇보다도 로동계급의 문학에서 초미의 문제이며 혁명적수령관확립에서 기본을 이루는 수령형상창조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 중에서 장편소설 《대지는 푸르다》(석윤기), 《은하수》(천세봉), 《압록강》(최학수), 《잊지 못할 겨울》(진재환) 등은 그의 대표적인 실례이다.

여기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것은 영광스러운 당 중앙을 영원히 모시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과 의지를 반영하여 사상의 영재이시며 탁월한 령도력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의 체현자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숭고한 모습을 다양한 형식으로 모시기 시작한것이다.

단편소설집 《거룩한 자옥》, 《조선의 행복》 그리고련번호로 나가는 시집 《향도의 해발을 우러러》 동요동시집 《은 나라 꽃봉오리 영광드려요》 등과 수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어 시대와 인민의 이 절박한 요구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되었다.

우리 문학의 사상예술적높이는 특히 력사물창작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방도를 새롭게 심화발전시킨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을 빛나게 구현하여 각색한 혁명연극 《혈분만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의 옳은 구현, 력사적 원형과 전형, 정치성과 인간성의 호상관계의 정당한 해결, 작품의 철학적깊이로 하여 혁명연극 《혈분만국회》는 우리 인민의 혁명교양, 계급교양은 물론 력사물창조에서와 현대물창조에서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작품으로 되고있다. 장중편소설창작과 가사문학창작에서도 많은 성과들이 이루어졌다.

최근시기에 장중편소설들이 전에없이 량적으로 많이 창작되었을뿐아니라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변희근), 《너당원》(김보행), 《대지의 아침》(제1부)(고병삼), 중편소설 《병사의 고향》(김동욱) 그리고 력사장편소설 《높새바람》(홍석중)등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이 나왔다.

가사문학에서는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리정술),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리정술), 《우리의 신념은 하나》(리정술), 《못잊을 삼일포의 메아리》(전병구)등을 비롯한 수많은 우리 시대의 명가사들, 비록 형식은 작지만 그 내용에서는 대작인 성과작들이 창작되었다.

우리 문학의 발전면모는 이와 같은 질량적인 장성과 함께 심오하고 풍부한 우리 인민의 정신생활을 개척한 그 깊이에서 또한 찾아볼수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근본문제인 수령관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인민의 혁명적 신념과 의지로 되는가 하는것을 깊

이있게 밝히기 시작한것이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노는 수령의 절대적인 지위와 역할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견해로부터 어떻게 수령을 받들고 모셔야 하는가 하는것을 밝혀주는 수령관은 우리 인민의 혁명관, 인생관의 가장 높은 표현이며 그 정수이다. 혁명적수령관을 가질 때에만 참다운 혁명관, 인생관을 소유하였다고 할수 있으며 공산주의자의 혁명적 신념과 의지에 대하여 말할수 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 중의 장편소설 《대지는 푸르다》가 인민들속에서 널리 애독되면서 우리 시대의 참다운 혁명관과 인생관을 세워주는 삶의 교과서로 되고있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작품의 제목자체가 많은것을 시사해주는바와 같이 장편소설 《대지는 푸르다》는 자연그대로의 푸르른 대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 대륙침략을 앞두고 혁명력량에 대한 일제침략자들의 탄압이 류레없이 강화되고 더우기나 좌경모험주의자들의 망동에 의하여 빚어진 5.30폭동의 후과로 말미암아 조선혁명은 참으로 심각하고 엄혹하였다. 일제의 압박과 착취에 못이겨 정든 고향마저 하직하고 산설고 물설은 남의 나라땅에서 망국노의 설움에 울고 일제토벌의 총칼아래 죽어야만했던 우리의 겨레, 조선인민의 처지 또한 비참하였다.

작품은 바로 것처럼 눈물에 절고 슬픔과 한숨에 터갈린 대지-조선인민의 가슴에 어떻게 혁명의 새봄이 찾아왔고 어떻게 그 황량한 불모의 땅이 푸르게 되었는가 하는데 대한 이야기이다.

이에 대하여 력사의 증견자인듯 변태릭로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이 세상에 한 나라 한 민족을 거느리는 인물은 하나밖에 없으며 그런 인물이 없을 때 나라도 백성도 만물이 해를 잃고 젖먹이가 어미를 잃은것이나 다름없이 된다는것을 모른단말일세. 이것을 아는데는 학교문을 많이 드나들고 책장을 많이 번져서가 아니라 망국노의 설움을 시궁창에 코를 들이박고 그 썩은 물을 들이키듯이 몇십년을 돌이켜보아야 눈을 뜨게 되는걸세.》

하면서 로인은 충심으로부터 장군님을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려는 절절한 심정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날일자와 이룰성자로 모시며

김일성으로 새겨 부를것을 엄숙히 제의하는것이다.

이것은 일찌기 독립운동에도 참가해보았고 초기 공산주의운동에도 관계하여보았으며 한다하는 《영웅호걸》들을 만날대로 만나본, 그리하여 이제는

체념과 회의와 비판에 잠겨 오가자라는 자그마한 마을에서 유지로서의 그전날의 체면이나 지키며 살아가는 로인, 이를테면 곡절많은 한 로인의 일생의 총화의 목소리인것이다.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을 직접 보좌하고있는 차광수, 박경학 등 친위진사들의 불타는 심정이기도하였고 오가자와 저기 왕채산기슭, 그리고 만주광야에 널린 공작원들과 열혈청년들, 유명무명의 늙은이와 아낙네들, 아니 캄캄한 밤하늘을 헤가르며 떠오른 태양을 우러러 감격에 목메이는 전체 조선인민의 절절한 목소리였으며 파란많은 현대조선력사의 총화이기도 하였다.

장편소설 《대지는 푸르다》의 사상예술적성과는 바로 1930년이라는 가장 큰 시련에 차고 커다란 전환으로 아로새겨진 해에 우리 인민의 운명에서 일어난 거대한 변화에 대한 심오한 분석과 그것을 통하여 조선인민의 신념과 의지, 희망과 념원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해명한데 있다.

우리 인민의 생활과 역사를 현대성의 견지에서 보다 깊이있게 사색적으로 보고 분석하려는 움직임은 비단 장편소설 《대지는 푸르다》에서뿐아니라 《대지의 아침》(1부) 등 일련의 작품들에서도 나타나고있다.

장편소설 《대지의 아침》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있는것도 다른데 있지 않다. 사실 작품에는 우리나라에서 토지혁명을 반영한 일련의 소설들과 영화들에 비해볼 때 그 어떤 특이한 사건이 설정되거나 《비범한 주인공》이 등장하고있는것이 아니다. 오히려 주인공과 사건의 설정으로 볼 때에 별로 특이한것이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그러나 작품은 그 이전시기 작품들에 비하여 차이가 있을뿐아니라 독특하다고 할수 있다.

그것은 장편소설 《대지의 아침》이 새 농민들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이며 어떤 품에서 그런 인간들이 태어났는가 하는 시대의 철학적인 물음에 대한 해명으로 되고있기때문이다.

일관하게 주어진 사건도 주인공과 맞물린 첨예한 갈등도 없이 마치 주인공의 내면의 목소리와 파동에 귀를 기울이며 가는듯한 작품은 양상으로 보아 자칫하면 지루감을 자아낼수도 있었다. 계급적원썬들의 작간에 의하여 하나밖에 없는 혈분이인 누이동생 초록이마저 잃고 사랑하는 안해가 총상을 당하기까지 하지만 지금까지의 작품권내에서는 주인공과 원썬들과의 대결에서 아직은 불꽃튀는듯한 직

접적인 투쟁이 벌어지지 않고있다.

그 대신 작품에는 그것들을 보상하고도 남을 자기의 고유한 형상체계, 즉 땅처럼 소박하고 땅처럼 성실한 한 농민의 품모와 그것이 어떻게 위대한 태양의 빛발을 받아 혁명적인것과 결합되어 질적변화를 일으키는가 하는것을 밝히는데 그 과제가 있었다. 조선의 새 농민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소설의 기본내용을 이루고있다.

작품은 형상수법에서도 그 어떤 요란한 사건대신에 주인공의 체함에 중점을 두었으며 행동보다 그의 생각과 내면세계의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비록 강대우는 만가재마을과 취야벌경내에서 떠난적이 없지만 우리 나라에서의 토지혁명과 그해 가을에 이르는 시기의 수많은 정치체제의 움직임은 직접, 간접으로 그와 련관을 가지면서 서서히 그의 사상 의식발전에 작용하고있는것이다.

작품은 이러한 형상체계와 수법을 가지고 어떻게 그처럼 소박하고 그처럼 성실하고 또한 그처럼 강의한 강대우와 같은 조선의 농민들이 태어날수 있었는가 하는것을 해명하고있다.

이에 대하여 작품은 다음과 같이 의미심장하게 서술하고있다.

《봄이면 땅에서 움이 터서 가웃이 고개를 쳐드는 연록색 잎사귀와 해빛의 조화를 가리켜 학자들은 광합성작용이니, 무슨 작용이니 하고 수백권의 책을 써내기도 했다.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가리켜 이 지상에서 생명이 발현되는 초점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자연의 리치만 그런것은 아니였다.》

《그가 땅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가 근면하고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그는 마치도 염록체와 같이 이 사랑의 해발을 더욱 뜨겁게 받아안을것이였다.

이리하여 해마다 이 땅우에서 사람들은 자주적인 새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 힘있는 존재로 성장할것이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해빛아래 이땅우에 새 인간들이 태어나고있는것이였다.

다음으로 우리 문학의 발전면모는 우리 시대의 구감이며 전형인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형상이 훌륭하게 창조되어 그 다양하고 매력있는 성격으로써 우리 문학의 화원을 빛나게 장식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문학작품의 사상예술적수준을 집중적으로 말해주는 전형적성격은 한 나라, 한 시대의 문학이 도달한 사상예술적높이를 가늠하게 하는 질적표징이기

도 하다.

오늘뿐아니라 앞날의 공산주의사회에서 살 인간의 사상정신적특질까지 체현하고있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성격을 빛나게 창조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문학의 높은 발전수준을 말해주는것으로서 현실에 대한 작가들의 체험과 탐구가 전에없이 강화되고 그들의 미학적리상이 높아진데서 얻어진 귀중한 결실이다.

최근시기 전형적성격창조에서 특징적인것은 그 어떤 특이한 이야기나 성격에서 전형적인것을 찾으려는것보다 평범하고 일상적인것에서 특징적인것 본질적인것을 찾으려는 노력이 강화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숨은 영웅들이 우리 생활의 도처에서 태어나고있는 우리의 보람찬 현실과 작가들의 진지한 탐구정신의 반영인것이다.

평범하고 일상적인것에서 특징적인것과 본질적인것을 찾으려는 우리 작가들의 노력에서 주목되는것은 우리 시대 인간들의 운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명에 기초하여 그들의 극적인 체험을 확신성있게 구현하고있는것이다.

문학작품은 형식이 크거나 작은것에 관계없이 거기에는 이러저러한 양상을 통하여 인간의 운명이 놓여있기마련이다. 이것은 인간학인 문학의 기본요구의 하나이다. 인간의 운명문제가 없으면 도대체 문학적인 이야기가 있을수 없으며 그 어떤성격도 시대적인 문제도 제기할수 없다. 그러나 인간의 운명문제는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그 내용과 성격이 변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 작가들이 우리 시대 인간들의 운명에서 제기되는 극을 확신성있게 구현하고있다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심화되고있는 오늘의 우리 시대 인간들의 운명이란 어떤 성격의것이며 거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것을 깊이있게 체득하였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우리 시대 당일군들이 어떠한 심장을 지녀야만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은덕에 보답할수 있는가 하는것과 같은 매우 절실하고 뜻깊은 문제를 제기한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이 당일군들은 물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따라배워야 할 참다운 교과서로 되고있는것도 주인공 신철민이 체험하고있는 심각한 극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어느 제철련합기업소의 초급당비서인 신철민은 언제나 자기 사업에 대한 만족을 모르며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요구성숙에서 산다. 따라서 신철민

이 체험하는 극은 사랑하는 안해를 장기병으로 멀리 병원에 두고 늙은 어머니와 아이들과 같이 쓸쓸히 지내야만 하는 가정적인것에도 있지만 기본은 신철민자신이 제기한 요구성이며 그에 도달하기 위한 고심어린 노력이다.

그 요구성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니신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높이에 이르는것이며 그처럼 뜨거운 심장을 지니는 데 있다.

장편소설 《너당원》의 창작경험도 우리에게 많은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장편소설 《너당원》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략원의 10명당원의 한사람인 그 유명한 너당원에 대한 이야기에 기초하고있고 또한 그러한 이야기가 영화로 훌륭하게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자기의 고유한 매력과 감화력을 가지고 우리를 흥분시키는것은 결코 그 어떤 기구한 운명이나 류다른 성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때를 회상해 볼 때 소설에는 별로 기구한 운명이란 없을뿐더러 너주인공의 성격자체도 어질고 정에 물려서 눈물이 흐르기까지 하다.

작품의 매력은 그 어질고 성실한 너주인공이 스스로 자신에게 당원의 본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빛나게 해명하고있는데 있다. 너주인공에게 있어서 당원의 본분이란 어디서 무엇을 하건간에 자기의 사업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데 있다는 거기에 있었다.

이 삶의 목표, 참다운 리상이 있음으로 하여 용너는 그처럼 아글타글 애쓰는것이며 그처럼 심각한 극적체험을 하게 되는것이다.

이 모든 사실들은 우리 작가들이 자신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높이기 위하여 피타는 노력을 하고있으며 자기의 작품으로써 성스러운 주체위업의 완성에 이바지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강화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우리 작가들은 이미 거둔 성과에 만족할수 없으며 또한 자만할 근거가 없다.

우리 문학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혀주신 참다운 주체문학의 높이에 올라서지 못하고있으며 아직도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기때문이다.

이는 오직 주체문학의 건설자라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부단히 높임으로써만 해결될수 있는것이다.

삶에 대한 생각

안충모

시간 가는줄 모르고
일하는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
-벌써 점심시간이요?

흘러가는 분초가 막 아까워
안타까울 때가 제일 좋더라

-하루해가 왜 이다지 짧을가

만약 시계를 자주 쳐다보고
하루해가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그대의 생활에 빈구석이 생겼음은
명심하라 그대의 삶이 빛을 잃었음을

시와 인생

안창만

시의 구절은
밤새워 고치고 다시 쓸수 있어도
내디딘 삶의 자욱
흘러간 인생의 시절은
고칠수도 다시 쓸수도 없다네

내 만약
짧은 한순간이라도
안일과 유혹에 빠지면
인생은 천년을 잃고
삶의 목표는 만리로 아득하리

무산이라 철산은

오재신

무산은 어디메냐
어디메냐
차유령 너머 그리운 고장

굽이굽이 수백리
걸어서 사흘길
수송관 따라 하루길

저녁별 뜨면
철산에서 떠난 쇠돌
제철소뜨락에 산처럼 솟고

새벽별 뜨면
무쇠강관

차판 가득 온 나라에 실려간다오

은혜로운 당의 햇빛
따사로이 넘쳐
정깊은 고장

밭파의 메아리
령넘어 울려와
마음속엔 언제나 가까운 고장

아 무산이라 철산은
김철의 생명선
떨어져선 못사는 고장이랴오

금꿀처녀

최정용

안녕히 가시라
처녀는 인사를 해도
차마 걸음 떨어지지 않아

다시 오시라
처녀는 수집게 웃으며 바래워도
나는 인사말조차 잊고말았네

이제는 들에 피는 꽃보다
은빛 쇠돌이 더 고와보인다는
향기로운 들바람보다
발파연기가 더 그립더라는 처녀

그 누가 무어라 해도
쇠돌을 사랑하는 총각만을
마음에 두리라는
속깊고 정많은 금꿀처녀

이 땅우에 아름다운 처녀들
많고많아도
나는 몰라라
너보다 더 아름다운 처녀
그 어디에 또 있을까

내 너밖에 몰라

한기운

꽃필 땐 과원속에
네 얼굴도 꽃이더라
열매 익는 가을엔
네 마음도 열매로 주렁지더라

아 봄내 가으내 가꾸는 마음
당의 뜻 받드는 그 진정 뜨거워
꽃밖에 열매밖에 네 모르니
처녀야 나도 너밖에 몰라

언제나 웃기만 한다면...

장호건

송이송이 이 마음도 담아
정성스레 엮은 축하의 꽃목걸이
내 달려가 안겨줄 땐
얼굴 붉히던 조립공동무
빙그레 웃네, 영예게시판 가운데서

아슬히 기중기팔에 매달린
회전로의 수십톤 동체
땅이 아닌 하늘가에서 조립하고도

이 처녀앞에선 어쩔줄 몰라하더니
웃었네, 사진기앞에선

그래도 나는 기뻐!
처녀앞에선 웃지 않는다 해도
내 마음속의 저 동무
영예의 꽃목걸이속에
언제나 웃기만 한다면, 웃기만 한다면...

충성의 결의, 불라는 열정

새해 1985년이 밝아왔다.

1985년 !

돌이켜보면 우리 조국이 해방되고 영광스러운 우리 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어언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근 반세기를 치달아오르는 이 오랜 기간 우리 조국의 위용은 얼마나 몰라보게 달라졌는가, 산천도 변하였고 사람들도 변하였으며 혁명은 멀리 앞으로 전진하였다.

조국해방 40돐과 당창건 40돐 !

이 경사스러운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작가들의 가슴가슴은 지금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의 일념으로 불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당의 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더욱 용감하게 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뜻깊은 올해를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작품창작으로 빛내이려는 우리 작가들의 결의는 그 어느때보다도 높다. 들끓는 현실속에서 살며 일하며 창작하는 우리 작가들의 드높은 열정은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마련해줄것이다. 아래에 새해 우리 작가들의 결의들중에서 그 일부를 소개한다.

채탄전선의 영웅들을...

정창운

1985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의 40년간의 업적이 쌓여진 해입니다. 또한 일제의 죄사슬로부터 조국이 해방된지 4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 40년 세월속에 상처투성이였던 조국은 기쁨진 전야로 되고 외롭게 뻗어간 마을들의 오솔길은 변화한 대통로로 변모되었습니다.

머슴군도 이 은혜깊은 기간에 박사로 교수로 자라났고 눈물밖에 모르던 이 땅의 가난뱅이 후손들도 기사로 예술가로 자라났습니다.

저 역시 이 영광스러운 40년세월속에 작가로 자라난 사람입니다.

이런 저에게 있어 1985년은 남다른 결의를 다지고 새로운 출발점에 나서게 합니다.

공업의 식량과도 같은 석탄을 수천척 깊은 막장에서 캐여내는 석탄전선이야말로 우리 시대 인간들의 영예롭고도 보람찬 초소입니다.

제가 이번에 창작하는 작품의 주인공들은 바로 석탄전선의 탄부들로 될것입니다.

그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하전선 깊은곳에서 탄맥을 따라가며 공격구역을 넓혀나가는 탄부들입니다.

이러한 주인공들의 하루하루는 간고하고도 보람차며 분주한 나날로 됩니다.

이 나날에 소설의 주인공들은 영웅들로 자라나며 불굴의 전사로 자라납니다.

작가인 저의 과제는 이 불굴의 전사들과 영웅들의 심장속에 불타고있는 충성심을 독자들에게 유감없이 안겨주는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어려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 영웅들 한사람한사람의 가슴속엔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이 간직되어있습니다. 그 충성심의 넓이는 바다와 같고 높이는 하늘과 같습니다.

우리 작가들의 창조적로동이란 바로 이 동시대인
영웅들의 바다같은 충성심과 하늘같은 충성심을
훌륭하게 써내는것입니다.

이 불타는 충성심으로 일관된 영웅전사들의 내면
세계와 생활화폭들을 빛나게 창조하자면 우선 작가
자신의 심장이 충성심으로 뜨겁게 불타야 할것입니
다.

오랜 세월 작가생활을 하여온 저에게는 이 진리

가 론리로서 체득된것이 아니라 실천로동을 통하여
체득된것입니다.

저는 매 시각 자신의 심장을 충성심으로 불태우
면서 이 작품을 사상에술적으로 높은 경지에 오르
도록 하기 위해 부단한 사색과 탐구를 경주하겠습
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키워준 당과 조국의 은혜에 적
으나마 보답하려고 합니다.

작품의 주인공들을 뜻깊은 당창건 경축장에

김수경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한해를 설계하는것은 사람
들의 생활에서 하나의 관례와도 같은 일이다. 또한
설계한 계획이 원만하게 수행되지 않는 경우도 우
리들이 때로 당하는 일이다.

그러나 나의 경우 새해의 목표는 어김없이 꼭 수
행되어야 한다. 우리 당창건 40돐을 맞이하는 뜻깊
은 경축장에 《현대의 열정》이라는 제목이 붙은
장편소설의 주인공들을 꼭 참가시켜야 할 의무가
작가인 내게 지워져있다.

우리 당에 의해 그 성격이 형성되었으며 우리 당
에 의해 시대의 귀감으로 사람들의 심장속에 아로
새겨졌고 지금은 그들을 따라배우는 사회적운동이
줄기차게 전개되고있는 숨은 영웅들이 그 장편소설
의 주인공으로 되고있기때문이다.

인민생활을 넘려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
을 받드는데 한생의 목표를 둠으로써 평범한 생을
빛나게 수놓아가는 이름없는 녀학자가 소설의 중심
에 서있다. 당에 바치는 그의 념원 그의 열정을 소
중하게 생각하여 만단을 무릅쓰고 힘을 보태주는
어푸수수한 산골농장의 당비서, 탐구에 바치는 녀
학자의 성실성과 량심에 매혹되어 사나이의 웅심깊
은 사랑을 10여년이나 바쳐가는 기계공학자인 수
산물가공기계연구사-

그들의 관계가 소설의 기본 흐름을 이루고있다.
물론 숭고하기까지 한 그들의 노력과 깨끗한 마음
을 무참하게 짓밟는 창조적능력도 없고 시대를 전
진시키려는 열정도 없는 인간들도 등장한다.

시대의 귀감인 숨은 영웅들은 말할것도 없고 그
들의 운명에 그들을 던지고 시련을 안겨주던 보수
주의 소극분자들을 비판한 이 작품이 당창건40돐
을 경축하는 우리 독자들의 손에 가닿아야 할것이
아니겠는가.

안타까운것은 나의 펜이 너무나 무디여 그들을
진실하고도 뜻깊게 형상할수 없을것 같은 위구가
앞서는것이다.

숨은 영웅들을 형상하는 작가이면서 그들의 높은
정신세계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통감할
때도 있다.

그러나 올해와 같은 뜻깊은 해에 나도 또한 얼마
간의 창작적성과로 그날을 맞이해야 할것이 아니겠
는가.

숨은 영웅들이 기울인 그 성실한 노력, 이러한 말
로 자신을 채찍질할뿐이다.

이것이 우리 당창건 40돐과 조국이 광복된지 40
돐이 되는 새해를 맞는 나의 창작적결의이다.

들끓는 현실속으로 !

변홍영

해마다 목표도 크게 세우고 결의도 새롭게 다지
군하지만 한해 총화를 늘 불만스럽게 짓게 되는것
은 무엇때문인가?

창작가들마다 서로 다른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
만 나의 경우에는 현실과 떨어져 탁상문학을 하는
것과 많이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생활과 현실을 떠나서는 그 어떤 새롭고 특색있
는 시도 쓸수 없으며 시문학에서의 풍부한 서정도,
철학적 깊이도 기대할수 없는것이다.

때문에 나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

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무한한 충성심과 고상하고
아름다운 지향과 념원을 노래하기위해 들끓는 현실
속으로 깊이 들어가겠다.

생활속으로 ! 이것이 새해의 첫 출발점에 선 나
의 결의이며 올해 나의 창작에서 성공을 거둘수 있
는 확고한 담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 이해에도 또 얼마나 거창하고 위대한 전
변과 위훈에찬 생활이 우리 앞에 펼쳐질것이며 우
리 시문학은 이 시대의 벽찬 호흡속에서 얼마나 다
양한 화원을 가꾸게 될것인가.

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의 해로 되게 !

김성관

올해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 조선로동당이 창건된
지 40돛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동시에 조국해방 4
0돛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 당과 우리 조국의 력사에 또 하나 격동적이
고도 경사스러운 해로 아로새겨질 이해를 맞으면서
사람들은 지금 견잡을수 없는 흥분속에 잠겨있다.
그 어떤 창조적지혜와 로력으로써 그 력사적인 해
를 빛나게 장식할것인가? 사람들의 흥분점은 바로
거기에 있는것이다.

나는 그렇듯 뜻깊고 경사스러운 올해에 장편소설
《정복자들》을 세상에 내놓으려고 한다.

근로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그들을 영웅적위
훈으로 고무추동할수 있는 소설을 창작한다는것은
그리 쉬운일이 아니다. 허나 꼭 해내야한다.

나는 장편소설 《정복자들》에서 당의 부름을 받
들고 조국의 바다를 정복해나가는 어로공들의 투쟁
을 그리려고 한다. 소설의 중심에는 한 세대군인 선
장이 서있다. 앞에도 물, 뒤에도 물, 물밖에 보이는
것이 없는 허허 창파우에서도 중중첩첩으로 겹쌓이
는 난관을 무릅쓰고 오직 바다를 정복하는 일에만
전심전력하는 젊은 선장! 그는 당에서 부르는 초소

에 한몫 바치고 성실하게 일해나가는 거기에서 진
정한 삶을 찾고 더 없는 보람을 느낀다. 하기에 그
는 자기가하는 일에 대해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
으며 사심을 가지고 일하는 인간, 그 어떤 대가를
노린 《열성분자》들을 몹시 증오하며 그런 인간들
과는 타협을 모른다...

나는 바로 그런 투철하고 당적인 주인공을 작품
에 그리려고 한다. 물론 시대의 요구에 부합되고 독
자들의 지향에 맞는 주인공을 형상한다는것은 창작
경험이 어리고 기량이 낮은 나로서는 매우 아름찬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런것만큼 나는 지금 그 어느때
보다도 높은 창작적요구를 자신에게 제기하고있다.

크게 분발하자! 생활의 진실을 폭넓게 탐구하자!
분초를 아껴가며 깊이 사색하고 창작하자! 나는
이미 자신에게 이런 전투적인 목표를 제기했다. 그
과정은 곧 나에게 작가적인 안목과 창작기량을 한
계단 높이는 계기로도 될것이다. 나는 소설을 완성
하여 세상에 내놓는 과정을 통하여 나의 창작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장식해갈것이다.

당의 시인된 영광을 안고

김만영

나는 요즘 아침노을이 붉게 라는 출근길을 바빠 걸으면서 혹은 달빛어린 대동강물결을 바라보며 사색의 걸음을 옮기면서 때없이 가슴이 찡해오며 어깨가 묵직해지곤함을 느끼곤한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로동청년이었던 저에게 시인의, 작가의 영예를 안겨주시는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던것이다.

저로 말하면 얼마전까지만 해도 독자들의 관심과 기대를 불러일으킬만한 작품도 제대로 써내지 못한, 다만 시를 써보겠다는 욕망과 희망뿐이었던 20대 문학동신원에 불과하였다.

그런 저를 작가대오에 세워주셨으니 친애하는 그이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수 있을가 하는 생각으로 하여, 그리고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으로 하여 어찌 어깨가 무거워지지 않을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때마다 심장의 벽을 세차게 두드리는데는 이름없는 한 로동청년의 희망과 포부까지도 헤아려 찾아주시고 내세워주시는 그 고마운 은정에 기어이 충성으로 보답할 뜨거운 맹세인것이다.

나는 로동계급출신의 시인이다.

지금도 눈앞에는 황황불타오르는 쇠물빛노을을 펼쳐며 낮이나 밤이나 이글대며 끓어번지는 전기로

의 불길이 치솟으며 그 불길앞에서 때로는 호탕히 웃기도 하고, 때로는 과묵히 로심을 들여다 보기도 하는 충성스런 용해공의 모습이안겨진다.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우리 당을 따라 전기로와 함께, 사품치는 쇠물과 힘껏 변함없이 한길을 걸어온 우리의 로동계급.

바라건대 낮이나 밤이나 끊기지 않고 가없이 푸른 하늘에 파도쳐가는 붉은 쇠물빛노을이 나의 끝없는 창작적사색이 되고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전기로의 불길이 나의 창작적열정이 되고, 우리 용해공, 우리 로동계급의 심장의 고동소리가 나의 노래가 되어주기를!

나는 로동계급속에 나의 계급적바탕, 작가적바탕을 둔것을 더없는 긍지로 여기고 우리 로동계급의 당을 따르는 무쇠와 같은 심장, 강철의 신념을 대변하기 위해 마주앉는 책상을 용해장으로, 펼쳐놓는 원고지를 전기로로 생각하고 티없이 맑은 쇠물-시작품을 끓이고 쏘고 또 끓여내겠다. 먼길을 끝까지 걷는 사람은 신들메를 단단히 조여맨다는 말이 있다. 나는 1985년을 나의 창작의 첫단계로 설정하고 새해벽두부터 시간을 쪼개가며 계획적인 학습과 창작을 배합하며 들끓는 현실, 로동계급의 한가운데 뛰어들어 우리 당이 바라는 쇠소리나는 작품을 써냄으로써 시인된 영예를 빛내어나가겠다.

불 꽃

-순천비날론공장건설장에서-

권태여

불꽃이 쏟아진다

소소리높은 철탑우에서

용접의 불꽃이 쏟아진다

철골을 누벼가는 용접공

행복의 꽃비단을 눈앞에 보는가

새 비날론기지건설의 하늘가에서

약속된 승리의 축포를 터친다

뜨거운 입김에 성에발이 날려도

눈보라 기승을 부려도

끓는 피로 자리 정한 역센 날개

허리바를 조이며 더 높이 솟구치는

수리개의 모습이며 로동의 랑만이며!

꺼질줄 모르는 강철의 불꽃을 거느리고

그대 땅우에 내리는 날

구멍뚫린 장갑은 벗어던져도

불에 그슬린 털모자는 벗어던져도

눈보라속에서도 뜨겁게 간직해온 꿈

우리 수령님 준공의 테프를 끊으시는 날

행복의 미소비긴 축배잔우에

오늘의 불꽃을 담아마시리

영원히 식지 않을 심장의 불꽃을

철의 흐름이 시작되는 곳에서

안병모

철의 흐름에 대하여 생각할 때 흔히 사람들은 웅장한 제철소의 위용과 쇠물이 사품쳐 쏟아지는 용광로의 출선구를 먼저 눈앞에 그려볼수도 있다.

하나 이 땅위에 흐르는 철의 대하가 과연 용광로의 출선구에서 시작된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위대한 향도의 자욱이 아로새겨진 조국의 북변, 함경북도와 청진시의 기행의 길에서 찾을수 있었다.

이른아침 서둘러 청진을 떠난 우리는 승용차에 몸을 싣고 금대령을 넘고있었다. 북방의 추위가 몹시 사납다고는 하지만 때때로 잠푼한 날도 있는것이어서 흰눈에 덮인 아아한 산발들은 깊이 잠든듯 고요히 누워있었다.

시에 회의를 왔다가 우리와 함께 떠나게 된 무산광산 기사장동무는 퍼그나 먼길을 오면서도 묻는 말에나 몇마디씩 대답할뿐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산발을 말없이 바라보고있었다. 그는 아마도 말수가 적은 사람같았다. 헌데 산허리를 가로질러 끝없이 뻗어간 정광수송관이 나타나자 도수높은 안경을 추슬러올리며 《저기 보이는게 바로 세계적으로 그 규모를 자랑하는 현대적인 대형장거리정광수송관입니다.》라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백리에 달하는 대형장거리정광수송관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빛나는 력도에 대하여 감회깊이 이야기했다. 그는 또한 정광수송관이 건설되어 무산광산과 김책제철소가 마치 하나의 구내에 이어진듯싶다고 하면서 바로 정광수송관의 끝짐에 무산광산 선광장이 있으니 저기가 나라의 철의 흐름이 시작되는곳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기사장동무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으며 정신을 팔고있는 사이에 차는 어느덧 철산역을 지나 무산광산 정문에 와닿았다.

사무실에 들러 좀 쉬고 떠나라는 기사장동무의 권고도 마다하고 우리는 곧바로 차를 몰아 철산봉으로 올랐다.

해발 1,000미터를 헤아린다는 철산봉에 오르니

눈뿌리 아득하게 펼쳐진 채굴장의 전경이 가슴후련히 안겨온다.

거대한 쇠돌바위들이 청동의 성곽처럼 번쩍이고 다락발 같은 채굴계단들이 규모있게 층층 내려앉았다.

하늘로 고사포신마냥 정대를 뻗친 회전식착정기들과 타격식착정기들이 세찬 동음을 울리며 돌아가는데 여기저기 채굴장들에 듬직하게 자리잡은 대형굴착기들은 둔중한 무쇠팔뚝을 휘두르며 대형자동차들에 쇠돌을 듬뿍듬뿍 퍼담고있다. 그 연장길이가 수백리를 헤아리는 채굴장계단길에는 박토와 광석을 듬뿍이 실은 대형자동차들이 꼬리를 물고 연방 부림터를 향해 달리고있다.

이렇게 대형자동차들이 분주히 실어나른 박토는 1, 2호 박토콘베아에 실리어 바른쪽 산머너 큰 골짜기로 쉬임없이 흘러가고 쇠돌은 새 파쇄장으로부터 선광장까지 잇닿은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에 실리어 끊임없이 흐르고있다.

철산봉은 말그대로 대자연을 정복해나가는 거창한 힘이 융솟음치는듯했다.

여기서 우리를 마중한 로천분광산 기사장동무는 먼저 우리를 계시관앞으로 이끌었다. 대문짝같은 속보들에는 희한한 소식들이 나붙었다.

《착정굴진 5배 !》

《박토를 2개월분 더 선행 !》

《20만톤, 40만톤 대발과 련속 성과적으로 진행 !》

얼핏얼핏 안겨드는 굴발들만 읽어도 들끓는 채광장의 거세찬 숨결이 가슴을 흔들며 안겨진다. 흥분된 우리의 심정을 가늠했는지 분광산 기사장동무는 대형자동차들이 북비며 오가는 채굴장계단길을 가리키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난해 5월 16일 자기들의 일터를 찾아주시고 쇠돌생산정형과 광산의 전반적사업 실태를 료해한데 기초하시여 광산사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강령적과업을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이야기해주는것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광산을 찾으신 그날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외국방문을 떠나

신 날이었다.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헤아리셔야 할 그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무산광산을 찾아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광산에 오시는 첫 걸음으로 여기로 천분광산 종합지령실 앞마당에 차를 세우시었다.

그이께서는 이윽도록 채굴장종합사판도 보아주시고 넓게 펼쳐진 채굴장구역들도 하나하나 부감하신 다음 정광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채굴설비들과 운수수단들을 대형화, 현대화하고 그 리용률을 더욱 높이며 시공을 선포에 따라 세우고 박토를 확고히 앞세울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이어 1광구 먼지이는 채굴장계단길을 가로질러서 꼭쇠돌부림터까지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잠시의 휴식도 없이 제2선광직장까지 찾아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제2선광직장이 현대적인 대형설비들로 훌륭히 꾸려진데 대하여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선포설비들의 리용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을 밝혀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제2선광직장을 기록영화로 찍어 위대한 수령님께 꼭 보여드리도록 하라고 크나큰 은정과 영광을 안겨주시었다.

그이께서는 김책제철소와 청진제강소를 비롯한 금속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리자면 무엇보다 먼저 무산광산에 총력량을 집중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주체적인 철생산기지들이 계속 확장되어 쇠돌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높아진 오늘 무산광산을 사회주의건설의 돌과구로 내세우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천리혜안의 빛나는 예지를 가슴에 새기며 우리는 이곳 광부들이 이룩하고있는 자랑스런 성과들을 보기 위해 광구를 향해 떠났다.

채굴장의 계단길을 따라 발걸음을 다그치는 우리는 최근 몇달사이에 몰라보게 달라진 철산봉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불과 몇걸음을 옮겨놓지 못하고 길을 비켜서야 하는 줄을 지어 오가는 대형자동차들의 행렬, 채굴장 곳곳에서 귀청을 흔들며 세찬 동음을 울리는 대형굴착기들이며 회전식 착정기들과 타격식 착정기들... 기대마다 만부하를 걸고 세차게 돌아간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언제나 통이 크게 판을 벌리고 처음부터 높은목표를 내걸어야 기백있게 일할수 있으며 대중

의 왕성한 의욕과 혁명적열정을 가지고 투쟁해나갈수있습니다.》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이 벌어지고 놀라운 기적이 창조되고있음을 느끼며 감탄을 금치 못하는 우리를 보고 기사장동무는 요즘 광산에서 조업이래 최고수준을 기록하는 기적과 비약이 창조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광산의 실태를 환히 꿰뚫어보시고 정광생산에서 걸린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사실 정광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채광능력을 늘이기 위한 방도를 찾자고 토론도 많이하고 대책도 세우느라고 했지만 이것이 그리 쉽게 풀리는 문제는 아니더군요. 현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누구도 풀지 못하던 문제, 걸리고있던 문제에서 단번에 기본고리를 찾아내시고 통이 큰 작전을 펼쳐주셨답니다. 그이의 현지지도로 하여 박토를 앞세워 채광능력을 높이는 문제, 채광설비들을 현대화, 대형화하는 문제, 로동자들의 후방생활조건을 개선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걸리고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되니 생산에선 비약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열정에 넘친 광산일군의 말은 우리의 가슴을 강하게 울려주었다.

우리는 로천분광산 게시판에서 방금전에 읽었던 속보의 내용이 떠올라 1광구 회전식 착정기전투장을 찾았다.

여기서는 14호, 15호 회전식 착정기 운전공들이 일하고있었다.

박달나무도 얼어터진다는 령하 4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에서도 낮에 밤을 이어 세찬바람과 싸우며 매일 자기들앞에 맡겨진 굴진계획을 훨씬 넘쳐하고있는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승리의 신심과 용기가 어려있었다.

새로운 시공방법을 받아들여 한개정머리를 가지고 종전의 2.5배를 뚫어내고있는 15호 회전식 착정기 초소장 김철동무는 흥분된 목소리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우리 무산광산이 뚫어야 나라의 생명선을 지켜선 김철이 뚫고 김철이 뚫어야 온 나라가 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혁신을 창조해나가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일이지요. 여기가 어떤 일터입니까, 해발

1,000미터를 헤아리는 바로 이 철산봉에 벌써 1948년 6월에 몸소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르시여 우리 광부들과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셨고 지난해 5월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찾아오시여 크나큰 은정과 믿음을 안겨주셨답니다.

참으로 나라의 철의 흐름이 시작되는 이 철산봉이야말로 온 누리에 빛을 뿌리는 해와 별 빛나는 영광의 봉우리지요. 하기에 우리는 다같이 자나깨나 철산봉을 대를 이어 굳건히 지켜갈 한마음뿐이랍니다.》

한 광부의 꾸밈없는 말을 듣노라니 나라가 해방되어 불과 3년밖에 안되던 그해 여름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찾아오시여 협상하기 그지없던 로천채굴장들과 선광장을 돌아보시면서 펼쳐주신 그날의 설계도가 오늘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로 더욱 활짝 꽃피어가고있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뜨거워졌다.

진정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는 비범한 예지와 담력으로 기적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위대한 향도의 기치이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조국의 방방곡곡에서는 날마다 시간마다 전변의 새 역사가 찬란히 엮어지는것이 아닌가!

우리 선조들이 여기 철산봉기슭에서 쇠돌을 캐기 시작하여 장구한 세월이 흘러갔지만 오늘처럼 현대화되고 대형화된 채굴설비군단을 가지고 거대한 규모로 방대한 량의 철광석을 캐낸적은 종래로 없었다.

해방직후에는 굴착기가 고작 9대밖에 없었던 채광장에 오늘은 굴착기, 착정기들이 숲처럼 솟아났고 1호, 2호 박토콘베아를 비롯한 여러 지선콘베아들, 파쇄기와 마광기를 실로 이루다 헤아릴수 없는 생산설비들이 갖추어졌다.

그리하여 얼마전에는 수백만톤에 달하는 박토산을 통채로 옮기는 거대한 규모의 대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어마어마한 박토산, 이것은 대형광차에 실어 한줄로 늘인다면 그 총연장길이가 수천리나 된다고 한다.

광석을 다량락광 다량처리할데 대한 당의 요구는 이렇듯 거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우리가 서있는곳만 하여도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1948년 6월 몸소 다녀가신 그때에 비하여 무려 50여메터나 낮아졌다고 한다. 돌레가 몇십리나 되는 채광장의 전반적인 표고가 50메터 낮아졌다고 생각할 때 여기 철산봉에서 조국의 사회주의건설장들로 얼마나 많은 철의 대하가 굽이쳐 흘러갔을것인가를 능히 짐작할수 있다.

그리고보면 철산봉은 마치도 자기의 어깨를 낮추어 조국을 성스럽게 받들면서도 명예도 공명도 바람이 없이 묵묵히 일해나가는 충성스러운 우리로동계급처럼 과묵하고 듬직하게 조국을 받들어 빛내여가는듯싶다.

이런 생각을 하며 우리는 서곡쇠돌부림터와 제2선광직장을 거쳐 정광생산의 마지막 공정인 전처리직장에 이르렀다.

수많은 교반기들과 피스톤뿔프들이 줄지어 늘어선 작업장인 이곳에서 직장의 한 일군은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선광장에서 생산되는 정광은 모두 광산 저광장으로 흘러들어갔으나 지금은 생산되는 정광이 두 계통으로 갈라져서 일부는 종전과 같이 광산 저광장으로 흘러들고 또한 일부는 피스톤뿔프와 잇닿아있는 정광수송관을 통해서 그대로 김철구내 원료장으로 흘러가고있다고 말해주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대형장거리정광수송관이 건설된 다음부터 정광수송량은 이전에 비할바없이 늘어났다.

광산의 차수리분공장이며 공무동력, 운수, 생활 등 직장들을 차례로 돌아본 우리는 해질녘 철산역에 이르렀다.

마침 기다린듯 《광, 콰광!》 지심을 흔들며 철산봉에서 발파의 메아리가 울려온다. 발파구름이 타래치듯 솟아오르는 철산봉을 이윽도록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는 뜨거운것이 차올랐다.

나라의 철의 거세찬 흐름이 시작되는 충성의 봉우리 !

온 나라를 철과 기계의 숲으로 덮으시려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뜻을 받들어 여기 철산봉은 날마다 시간마다 끊임없는 쇠돌폭포를 쏟으며 보화의 무계와 광채로 사회주의공업강국의 위용을 빛내고있나니-

해와 별 빛나는 보배산이여.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낳으며 그 이름 빛내여가자, 철산봉이여 !

토지혁명의 치열한 투쟁속에서 자라나는 농촌혁명가의 빛나는 형상

-장편소설 《대지의 아침》 제 1 부에 대하여-

김용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서고있는 오늘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훌륭히 키우는것은 혁명적문학예술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이 성스러운 과업을 실현하는데서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장구한 기간 농업전선을 말없이 지켜가면서 당과 인민정권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 온 농촌혁명가의 귀중한 본보기를 훌륭히 창조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난 시기 우리 문학은 토지혁명의 심각한 계급 투쟁속에서 혁명가로 성장하는 긍정적주인공들을 훌륭히 창조하여 농업근로자들을 비롯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데 참답게 이바지하였다.

최근에 창작된 장편소설 《대지의 아침》 제1부(고병삼 작)역시 토지혁명의 심각한 투쟁속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손길아래 주체형의 혁명가로 억세게 자라나는 농촌혁명가의 전형적 산인간의 모습으로 생동하게 그려냄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교양에 참답게 복무하고있으며 작품의 주인공 강대우의 이름은 깽바위, 마영기, 최명진 등과 함께 우리 문학사의 영광스러운 페이지에 당당히 아로새겨지게 되었다.

성격과 력점

이 작품이 거둔 가장 중요한 성과는 장군님의 은덕에 대한 고마움과 땅에 대한 사랑을 체질적으로 간직한 조선농민의 전형적모습을 비반복적인 개성으로 훌륭히 형상한데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이 내세우는 인간문제는 사람들의 생활과투쟁에서 본보기로 될수 있는 전형적인 인간형상을 통하여서만 윤희게 밝혀질수 있다.》

사람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본보기로 될수 있는 인간, 시대와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체현한 전형적인 인간성격을 비반복적인 개성으로 훌륭히 창조하는것은 공산주의인간학의 본질적요구의 하나이며 작품의 사상에술적가치를 결정하는 근본요인의 하나로 된다.

그런것만큼 시대의 대표자, 시대정신의 체현자로서의 인간전형을 개성화하여 생동하게 창조하는것은 창작가의 꾸준하고도 인내성있는 노력과 독창적인 탐구정신을 요구한다.

더우기 비슷한 주제를 설정하고 거의 류사한 생활분야와 생활범위를 설정한 경우 이러한 요구는 더욱더 엄격히 제기된다.

장편소설 《대지의 아침》 제1부는 장편소설 《새봄》과 같이 거의 동시대의 생활을 그리고있으며 생활분야와 생활범위도 거의 같다.

그러나 최명진이와 강대우는 다 같은 조선농민의 전형이면서도 우리앞에는 꼭같은 인물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산 인물들로 나타난다.

여기에 어떤 비결이 있는가.

다 아는바와 같이 인간은 사상과 감정에서 의지와 행동에서 언제나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존재이다. 생활이 다양한것만큼 인간의 사상감정도 다양하며 의지와 지향도 각이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창작가들은 자기가 내세운 주인공의 성격에서 핵, 다시말하여 초점을 정확히 설정하고 력점을 강하게 찍어 거기에 형상창조의 모든 수단들을 집중하여야 한다.

이 작품의 작가는 비상한 탐구력으로 자기의 주인공을 시대의 전형으로, 비반복적인 개성으로 내세우기 위하여 사상의지적측면과 기질적측면에서 성격의 본질을 정확히 규정하고 거기에 강한 력점을 찍으면서 집요하게 형상을 끌고나갔다.

주인공 강대우의 성격적핵은 땅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땅을 주신 장군님의 은덕에 대한 고마움이다. 작가는 주인공의 성격에서 이 두 측면을 성격적핵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강한 형상의 력점을 찍어 근기있게 파고들었다.

대우는 파스한 온돌방 포근한 담요속에서가 아니라 피눈물에 절은 밭고랑우에서 태어나 흙냄새를 맡으며 자라났다.

땅은 그의 출생지였으며 그의 유년시절이 흘러간 추억많은 보금자리이기도 하였으며 피눈물과 젊음의 생기를 빼앗아간 원한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땅때문에 그는 아버지와 생리별을 하였으며 바로 그 땅때문에 사랑하는 어머니와 귀여운 동생들을 잃었다.

한때기나마 제땅을 가지는것은 그의 희망과 소원의 전부였다. 그래서 해방된 그날부터 지주집을 뛰쳐나와 노상 들에 나가 살았으며 남들이 다 즐기는, 해방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월대보름날 밤에도 화톳불을 피우고 최뚝을 짊어내어 논밭을 일구었다.

이 세상 그 누가 그만치 땅을 사랑하고 땅을 그리워하고 땅을 열망하였으랴,

그러나 하느님도 임금도 그한테 제손으로 가꾸어갈 땅 한때기 주지 않았다.

대우의 뜨거운 열망,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해결해주신분은 바로 민족의 영명한 지도자 **김일성** 장군님이시였다.

우리 민족, 우리 농민, 우리의 주인공 대우에게 있어서 장군님은 민족재생의 영웅이시였으며 생명의 은인이시였다.

그래서 대우는 장군님께서 주신 땅을 제목숨처럼 귀중히 여기면서 깨끗한 농민의 양심을 가지고 근면하게 다루며 땅을 빼앗아가려는 지주놈들과 목숨걸고 싸운다.

땅을 주신 장군님의 은혜가 이처럼 고맙기에 땅을 갈아엎을 소가 없고 땅에 뿌릴 씨앗이 없어 모두가 손땀을 흘릴 때에도 소대신 제어깨를 들이밀어서라도 땅을 갈아엎자고 열렬히 호소하는것이다.

땅을 주신 장군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정성들여 가꾼 낱알을 고르고골라 장군님께 드리며 남은 서른가마니를 전부 학교를 짓는데 바친다.

오로지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는것은 그의 드팀없는 신조였으며 철석같은 신념이였다.

장군님께서 땅을 주실 때에도 행복에 겨워 춤만 춘것이 아니라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나라의 살림살이 걱정부터 먼저 하였으며 허봉단의 좌경적인 언사에도 굽어들지 않고 자기의 신념, 장군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굳건히 간직한다.

이처럼 작가는 주인공의 성격에서 두 측면에 력점을 찍고 그것을 깊이있게 파고들으로써 땅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장군님의 은덕에 대한 고마움을 체질적으로 간직한 조선농민의 빛나는 전형을 훌륭히 창조하여 우리 문학에 아주 인상깊은 인간성격을 남겨놓았다.

경험은 바로 주인공의 성격에서 그 핵을 정확히 규정하고 거기에 력점을 찍어 근기있게 파고들어갈 때 개성화의 요구를 훌륭히 실현하여 전형적성격을 감명깊게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확증하여준다.

그러나 지금 일부 창작가들속에서는 주인공의 전형적특질을 파고들어갈 대신 기질적측면에만 매달리면서 여기에서 남과 다른 그 어떤 독특한 특징을 발견하려는 경향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창작가들에게 있

어서 더 중요한것은 주인공의 심장에 육박해들어가는것이며 그의 사상정신적높이에 쫓아오르는것이다.

성격과 생활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속에서 주인공의 성격적특징을 특색있게 그려낸것은 이 작품이 거둔 중요한 성과의 하나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에서 전형적인 성격을 창조하며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밝혀내기 위하여서는 생활을 잘 그려야 한다.》

성격과 생활은 언제나 밀착되어있다.

인간이 있으면 생활이 있기마련이며 생활속에는 언제나 구체적인 인간이 서있다.

문학에서 인간의 구체적인 사상감정은 작가에 의해서 선언적으로 제시되거나 추상적으로 라렬되는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드러난다.

전형적인 인간성격, 산 인간의 개성적인 성격은 생활속에서 드러나며 생활을 통하여 표현된다.

작품에서는 언제나 인간들을 진실하게 보여줄수 있는 전형적인 생활을 풍부하고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다 아는바와 같이 전형적인 생활이란 시대의 본질과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체현하고있는 생활, 다시말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누리려는 인간들의 투쟁을 의미한다.

이 작품은 전형적인 생활을 풍부하고 깊이있게 그릴데 대한 우리 당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조선농민의 전형적인 형상을 빛나게 창조한 본보기 작품으로 될수 있었다.

장편소설 《대지의 아침》(제1부)에는 주인공 강대우의 생활을 중심으로 해방후 토지혁명시기의 다양한 생활들이 생동한 력사적화폭으로 펼쳐지고 있다.

작품에는 농촌위원으로 선출되어 토지개혁을 준비하고 그것을 실현해나가며 또 토지개혁의 성과를 지켜가는 주인공의 투쟁과 생활도 있으며 해방전의 피눈물나는 가정생활과 해방후 누이동생 초록이와 함께 지내는 화목한 가정생활도 있으며 달비와의 사랑넘치는 애정생활도 있다.

주인공의 사회생활전부를 포괄하는 정치생활, 경제생활, 가정생활, 애정생활은 그 모두가 다 농민들의 기본생활 즉 땅을 지키고 땅을 가꾸는 투쟁과 련결되어있다.

작가는 강대우를 장군님께서 주신 제땅이 있는 만가재마을에 든든히 뿌리박아두고 토지혁명을 위

한 심각한 투쟁속에서 점차 혁명가로 자라나는 그의 성장모습을 다양한 생활로 풍부하게 펼쳐보이고 있다.

지난 시기 일부 작품들에서는 주인공의 생활을 다양하게 펼쳐보인다고 하면서 여기저기로 끌고다니면서 생활의 폭을 넓히려는 경향이 있었다.

생활의 풍부성, 다양성은 생활범위의 넓이에 있는것이 아니라 생활의 깊이에 있다는것을 이 작가는 자기의 작품에서 확증하였다.

작품에서 작가는 일화도 능숙하게 리용하여 생활의 풍부성과 작품내용의 흥미를 더욱 강화하고있다.

정확히 선택되고 적중한 대목에 들어간 일화는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과 등장인물의 성격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하면서 작품의 예술적흥미를 돋구어주는데서 중요한 형상수단으로 된다.

이 작품에는 리인민위원회 사무실에서 익살쟁이 고광돌경감이 하는 시부모의 물음에 대답 잘하는 머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여러가지의 생활 일화가 있다.

이 모든 일화들은 생활의 풍부성과 작품의 예술적흥미를 돋구어주는데 훌륭하게 이바지하고있다.

작품에서 작가는 인상깊은 생활세부도 진지하게 탐구선택하여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성격적특징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문학에서 인간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주려면 생활을 통채로가 아니라 세부화하여 그려야 한다.

생활을 통채로 보여주거나 사건을 그대로 라렬하면 인간중심이 아니라 사건본위로 생활을 그리게 되며 무질서한 생활속에서 성격의 초점이 흐려지게 된다.

작가들은 어떤 생활을 그리든지 인물들의 성격을 살리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능숙한 창작가들은 하나의 세부를 창조하여 인간의 성격을 완전히 규정지어주기도 하며 종자와 주제사상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인상깊은 생활세부를 찾아내어 주인공과 기타 등장인물의 성격을 특색있게 그려내고있다.

입당심사에서 허봉만의 좌경적행위로 말미암아 부결된 주인공이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모신 신문 《정로》를 당원증주머니에 정히 넣고 가슴에 품고오는 생활세부는 강대우의 정치적신념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연피우기놀음에 정신이 팔려있던 동네 아이들이 토지를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준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농촌위원들이 벌에 나가 땅을 재는것을 보자 연놀음을 집어던지고 마당가에서 금을 굵고

땅재는 놀음을 벌리는 세부, 또 초록이가 강아지우에 쇠스랑을 올려놓고 황소우에 멍예를 메우고 밭을 가는 흉내를 피우는 세부는 다 땅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열망을 그대로 드러내고있다.

어린 대우가 병든 어머니를 구완하려고 쥐구멍을 헤쳐 쌀알을 줍는 세부, 삼년석달만 있으면 아버지가 돌아오신다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주머니에 쌀알을 그날자만큼 넣어두고 매일 한알씩 버리는 세부, 죽은 어린 동생을 안고 어머니의 무덤가에 찾아간 어린 대우가 어머니를 애절하게 부르면서 좀 받아서 안아달라고 목놓아우는 세부, 이 모든 심리정서적인 세부들은 독자들의 가슴에 커다란 심리적 충격을 주면서 작품의 정서적양상을 살려준다.

작가의 성실한 탐구에 의하여 창조된 이 모든 세부들은 주인공의 성격을 뚜렷이 부각시키고 작품의 사상주제적내용을 심화시키며 생활의 풍부성과 함께 예술적흥미를 높여주는데 참답게 이바지하고있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고상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민족생활도 훌륭히 그려내어 주인공의 정신적미를 돋구어주면서 생활의 풍부성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민족생활이란 민족적관습이 진하게 배여있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의 고유한 생활을 말한다.

민족생활을 잘 그리는것은 문학작품의 진실성을 보장하여줄뿐아니라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어 그들을 애국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

그러나 민족적색채가 짙은 생활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세태풍속적인것을 묘사하는데만 치우치면 안 된다.

세태풍속도 사회제도의 본질을 띠고있는것을 작품의 내용에 맞게 그려야 한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정월보름날 씨름놀이, 그네뛰기, 널뛰기, 연놀이를 즐기는 만가재농민들의 모습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보여주기도 하며 향교리농민들과의 단오명절 씨름놀이, 그네뛰기도 민족적색채가 짙게 그려주고있다.

이 모든 세태풍속적인 화폭들은 해방을 맞은 인민들의 감격과 더불어 훌륭히 묘사됨으로써 더욱 인상깊고 예술적감명도 큰것이다.

참으로 장편소설 《대지의 아침》(제1부)은 전형적인 생활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그려 전형적인 인간성격을 훌륭히 그려낼데 대한 우리 당의 요구를 옹계 구현함으로써 주인공의 성격도 인상깊고 생활도 풍부한 특색있는 작품으로 될수 있었다.

형상의 독창성과 예술적형식

독창적인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예술적형식은 매우 중요하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독창적인 형상을 창조하려면 형상 수단과 수법, 기교도 비반복적으로 살려써야 한다.》

형상의 독창성은 창작가들에게 달려있다.

창작에서 독창성은 바로 작가의 창작적개성이 뚜렷할 때라야 이루어진다. 생활을 제논으로 보고 정확히 분석평가할줄 알며 자기의 독특한 예술적재능과 기량으로 훌륭히 그려낼줄 아는 작가만이 독창적인 형상을 창조해낼수 있다.

왜냐하면 형상수단과 수법은 이 작가와 저 작가에게 따로 있는것이 아니라 일반성과 공통성을 띠는것으로서 모든 작가가 리용할수 있는 공동의 무기이기때문이다. 다만 형상 수단과 수법에 정통하고있는 작가는 그것들을 자기의 의도에 맞게 마음대로 활용하면서 자기식의 묘술을 터득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창작가들은 자기가 내세운 형상의 독창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술적형식의 전반에 걸쳐 자기의 창작적개성을 드러내기 위한 사색과 탐구를 아끼지 않는다.

장편소설 《대지의 아침》(제1부)에서 창작가는 자기의 솜씨를 훌륭히 보여주고있다.

그 몇가지만을 여기서 보기로 하자.

작가는 치밀하고 섬세한 감정조직으로 작품에 심리정서적인 굴곡을 조성하고 독자들에게 깊은예술적감명을 주고있다.

대우의 어린시절은 불우하였다. 그는 아버지와 생리별하였으며 아들의 효성도 받아주지 않고 야속하게 간 어머니를 땅속에 제손으로 묻는다. 아직도 어린 소년시절에 그는 갓난애기의 《어머니》가 되였으며 그나마 흥역에 잃고 어머니의 무덤가에 나란히 눕히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 세상에 대우와 녀동생 초록이만이 남았다.

불우한 세상은 끝장나고 해방이 되였다.

해방의 기쁨속에서 슬픔이 가서질만하자 계급적원수들은 사랑하는 누이동생 초록이를 빼앗아갔다.

대우의 가슴이 얼마나 쓰리고 아팠으랴.

작가는 어머니와 어린 동생의 죽음을 집중적으로 그려놓아 감정조직의 전체를 마련해놓고는 초록이의 가슴아픈 회생을 또다시 주어 기쁨 때나 즐거울 때나 언제나 초록이를 잃은 슬픔을 대우의 가슴에서 재생시켜주면서 작품의 마감까지 끌고나가고있다.

이처럼 작가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감정선은 대우의 정치적신념을 특징짓는 바탕으로 되였으며 대우

의 사회계급적성격을 규정짓는 요인의 하나로 되였다.

분석적인 심리묘사는 이 작품의 독특한 특성의 하나이기도 하다.

작가는 묘사를 평면적으로 라렬하거나 추상적인 설명으로 대치한것이 아니라 각이한 시점에서 다양한 측면을 파고들어 립체적으로 분석적으로 그려내고있다.

전권위원 서학민을 통하여 **김일성**장군님께서 농민들에게 땅을 주시려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취야벌에 뛰어나와 땅의 호흡을 듣고있는 주인공 강대우의 심정을 작가는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강대우는 걸음을 멈추고 두귀를 강구었다. 며칠전까지만 해도 들려오지 않던 소리였다. 갓난아기가 첫 울음을 터뜨린 소리같기도 하고 어머니의 신음소리같기도 했다. 땅속에서 돌돌 흐르는 개울물소리가 아니면 놀라서 잠을 깬 벌레들과 금시 눈이 뜬 풀싹들이 머리로 흠을 툭툭 치받으며 바시락 바시락 기여나오는 소리인지도 모른다. 봄별이 깃들어 한껏 부풀어오른 땅의 가슴팍이 툭툭터갈라지는 소리가 들려오는가 하면 뒤따라 그 무엇이 후-큰숨을 내쉬는듯도 했다. 농민으로서의 그의 감각은 이렇듯 예민했다.》

대지의 박동과 호흡을 예민하게 감수하는 주인공의 심리세계를 작가는 이렇듯 자유분방하고도 섬세한 필치로 예리하게 분석하고 정치적으로 묘사하고있다.

이외에도 지주 채만석의 죽음을 앞두고 그래도 땅뽕기 몇마지기라도 얻어볼가 해서 일정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첩과 머느리, 배다른 딸들과 조카 채일만 등의 각이한 속생각을 그려낸 심리묘사. 채만석의 시체를 앞에 놓고 이 인간쓰레기들이 흘리는 눈물의 서로 다른 질적특성을 분석적으로 그려낸 심리묘사 등은 매우 특색있고 인상적이다.

작가는 인민적어휘원천도 훌륭하게 리용하여 농민생활의 진실성과 당대 시대상을 풍만하게 보여주고있다.

《젊어서 고생은 논밭 전지를 주고도 못산다.》

《술개가 날자 병아리도 간곳 없다.》, 《넘어지면 막대 타령한다.》 등 성구속담들과 《고망년에》, 《파시》와 같은 시대적향기가 짙은 어휘들을 능숙하게 구사함으로써 해방후 우리 농촌의 향취를 더욱 짙게 하고있으며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인상깊게 살리고있다.

×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장편소설 《대지의 아침》(제1부)은 작가의 개성적인 탐구정신으로 해방후 토지혁명의 피어린 투쟁속에서 농촌혁명가로 억세게 성장하는 주인공 강대우의 형상을 독창적으로

창조함으로써 우리 문학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이 작품이 거둔 성과는 우리 작가들에게 창작적 개성을 비롯하여 작품의 사상예술적수준을 더욱 높게 발양할것을 시사하여주고있다.

작가, 예술가는 창작에서 독창성을 발휘하여야만

시대와 인민 앞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으며 문학 예술의 발전에도 독자적으로 기여할수 있다.

우리의 모든 작가들은 독창적인 탐구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전형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조하여 우리 문학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자.

첫 자 리 에

량덕모

또 하루 쇠돌사태 떨구고

갱구를 나서니

기다려 손에 쥐여주는

한장의 구경표

반갑다, 새 영화가 왔구나!

눈길은 벌써

문화회관 지붕우에 뜨겁게 머물고

홍분속에 뛴는 심장의 박동이어

아, 검덕광부

우리가 무엇이기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세상에 태어나는 새 필름

관람의 첫자리에 언제나 앉혀주시는가

나라의 귀한 보화 캐고캐여

조국의 번영을 나날이 펼쳐가는

《최우등생광부》라고

그 일숨씨 대견하다시며

믿음도 사랑도 선참으로 안겨주시는것인가

평양대극장 부러우라

덩실한 금꿀회관 세워주시고

새 공연의 화려한 무대도

여기 먼저 펼치시여

이름난 가수와 배우들

이웃처럼 정들게 하시나니

그 은정속에

낮에도 밤에도 열려있는

공업대학 넓은 문으로

소대와 증대가 기사되어 나오고

막장 휴게실에 집집의 창가에

흘러넘치는 악기소리 노래소리...

아, 로동계급의 새 문화

여기서 꽃피여

도시와 농촌으로 들어가야 함을

깨우쳐주신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땅속깊이 더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를 남먼저

한사람 한사람 안아키워

문명의 절정에 이끌어주시는

은혜로운 향도의 빛발이어!

오, 그 빛발을 안고

검덕광부 그 이름 내 별처럼 빛내리!

공산주의락원으로 달려가는

즐기찬 흐름의 첫자리에서

당히 바라는대로 쇠돌을 캐내는

돌격의 첫자리에서

잊을수 없는 겨울날

김명익

나는 신다섯번째로 설을 맞았다. 기업소지배인의 직무를 수행하여오는지도 어언 스무해가 넘는다. 사람들은 나에게서 사업상면에서나 생활에 대하여 조언을 듣기를 즐겨한다. 그들은 오랜 세월 인생의 많은 언덕길을 넘어 온 나에게서는 막힐것이 없으리라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자신도 그렇게 인정하는 때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얼마전에 내가 한 평범한 처녀 때문에 마음속으로 스스로 자두하여오던 자신의 생애에 대하여 뜻밖에도 의혹을 품게 되었다는것을 상상도 못할것이다...

그것은 어느 추운 겨울날에 있는 일이었다. 이날 나는 중국에 들렀다가 늦은 아침이 되어 공장으로 돌아왔다. 사무실벽말코지에 숨뒀거고리를 걸며 나는 자기도 모르게 창문에 비친 뿌연 하늘에 눈길이 끌렸다. 찌뿌둥한 날씨였다. 어느 하루도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 없었다.

(...또 증기를 높여달라고 현장들에서는 야단이겠는걸...)

나는 혼자속으로 중얼거리며 아침 첫시간에 만나기로 약속한 설비지도원 경호가 찾아오기를 기다렸다. 혹시 나를 기다리다못해 어디로 제 볼 일을 보러 가버렸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는 요사이 불판을 개조하여 증기를 더 올려보겠다고 밤낮없이 보이라실에만 붙박혀있었다.

책상앞에 앉아 사업일지를 펼친 나는 송수화기부터 들었다. 경호는 부서에도 보이라실에도 있지 않았다. 이 바쁜 때에 어디로 돌아다니는것인가 나는 그를 찾아 급히 보내달라고 기요원에게 부탁하고나서 포치할 사업내용들을 일지에 적어나갔다.

증기문제-새 보이라증설 추진! (나는 여기에 밑줄을 진하게 그었다.) 원료와 석탄을 싣고 온 화차 빨리 뽑을것...

이즈음 우리 식료공장에서는 된장과 간장의 전량을 맛내기화할 목표를 내걸고 본격적인 실현단계에 들어서고있는 때여서 그 어느때보다도 할 일이 많았다. 나는 이 일에 경호의 힘을 크게 믿고 있었다. 그는 비록 총각이고 경험이 어리다 하지만 책임성이 높고 사업에서 주인다왔다. 단지 그에게 지내 고 지식한 성미만 아니었다면...

(배심을 키워주어야겠어. 속이 트이질 못했거든...)

조금 지나자 손기척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사업

일지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응답하였다. 가벼운 발자국소리가 나의 앞으로 다가왔다. 음, 어디를 다니다가 이제야 나타났군. 하고 나는 속으로 생각하며 경호가 오늘 영천지구에 가서 하여야 할 임무를 상세히 적은후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나의 앞에 서있는것은 기다리던 경호가 아니라 난데없는 처녀였던것이다.

날씬한 몸매, 웃고있는 인상... 아니 그는 웃고있는것이 아니라 미소를 머금고있었다. 그 미소는 마치 정상적인 표정인양 입가에만 어려있었다. 머루처럼 까맣고 빛나는 처녀의 눈길은 나의 옷양복 두번째 단추에 머무르고있었다. 저런 눈빛을 가진 녀자는 이악하고 완강하다는것을 나는 체험을 통하여 알고있었다. 어덴가 낮이 익어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였다. 하긴 하루에도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식료품과 관련하여 나를 찾아오는것인가... 어느 탁아유치원공급소에서 고급 당과류를 내라고 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누구든지 아침사업포치전에 찾아오는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붙들리면 한것은 허양 달아나는것이였다. 나는 창문너머 찌뿌둥한 날씨를 바라보며 낮을 찡그렸다.

처녀가 고개를 다소곳해보이며 나에게로 한걸음 다가섰다.

《전력감독원입니다...》

그 소리에 나는 다소 놀랐다.

《아, 그렇소.》

나는 반갑게 자리를 권하였다.

《...전력사용정형에 대하여 좀 알아보려 왔습니 다.》

처녀는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나는 처녀가 그저 알아보려온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력관리사업을 감독검열하러 왔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전력감독경험이 오래지 않으며 더우기나 식료공장은 처음이라고 했다. 나에게도 그렇다는것이 알려졌다. 경험있는 감독원이라면 이렇게 지배인실로 곧바로 찾아들어오는 경우가 드물다. 극상 설비지도원단위에서 자기 사업을 끝내고 돌아갈 때나 인사삼아 들린다. 그들은 우리공장이 인민 생활과 밀접히 련관되어있으며 원료와 연료, 설비 자재와 운수수단 등 그밖의 모든면에서 우선적이고 특수보장대상이라는것을 알고있었으며 될수록 도우려 했다.

그렇지만 나는 처녀를 성근히 해주었다... 그리고 경호가 오면 영천지구일을 오후로 미루더라도 처녀의 사업부터 보장해주려고 마음먹었다.

처녀는 웅장택앞에 단정히 앉아있었다. 그는 가끔 유심히 나를 바라보다가 눈길이 마주치면 수줍은듯이 상긋이 웃으며 머리를 숙이곤하였다.

나는 경호가 들어올 때까지 처녀가 갑갑해할까봐 서류함에서 전력사용예약문을 꺼내어 그에게 주었다. 처녀는 나의 친절성에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시간은 흘렀다. 그러나 경호는 들어오지 않았다. 초조하였다. 나는 누구보다 바쁜 사람이었다.

(예, 무슨 사람이 이리도 속을 태운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2층 창문에서는 공장구내가 한눈에 안겨왔다. 넓은 구내는 오가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두 여인이 아까부터 세월없이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그러자 나는 언제인가 경호때문에 공장녀인들의 말밥에 올랐던 일이 생각키웠다.

《이상도 하지요. 우리 지배인동지는 경호지도원과 의중계 지내면서도 어째서 마참한 처녀를 골라주지 못하는걸가요.》

《글쎄요, 종자호박처럼 늙히려는지...》

우리 공장은 아낙네들도 많고 말도 많았다. 그러나 나는 무턱대고 그들을 타할수 없었다. 나 자신 말로는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젊은 지도원이라고는 하지만 나이 서른살이 넘도록 순박하고 어진 처녀를 골라주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이 보오. 경호동무, 언제까지나 무우밑둥처럼 혼자 살수야 없지 않소.》

어느날 나는 이웃지배인들의 연줄로 참한 처녀를 그에게 소개하였다. 그런데 경호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동안 병싯병싯 웃기만하더니 자기는 아직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것이였다.

(아직이라니...혹시 이 친구가...)

나는 벌난 추측이 다들었다... 떠도는 말에 의하면 (경호에 대한 통보는 주로 공장합숙어머니가 나에게 날라오곤하였다.)그는 오래전부터 한 처녀와 편지거래가 있었는데 근래에 툭 끊어졌다는것이다.

그런데 하루는 합숙어머니가 실한 몸을 뚱기적거리며 당과직장을 나서는 나를 향하여 달려오는것이였다. 녀인은 젊은 나이부터 합숙일을 해오느라여서 우리 공장치고 그의 신세를 지지 않은 사람이 절반 없었다. 나도 한때 이 녀인의 시중을 받은적이 있었다.

《아니 원, 그러다 넘어지겠수다, 무슨 일이게 그리 덤비오. ...그래 경호가 어쩔다는겁니까?》

그래도 녀인은 헤덤벼대기만 하였다.

《예? ! ...경호 그 사람에게 애인이 찾아왔다고

요.》

놀랍고도 기쁜 소식이 아닐수 없었다.

《그래 어디에 왔소. 가봅시다.》

나는 너무 반가운김에 녀인의 팔을 마구 끌었다. 그러자 녀인은 펄쩍 뛰며 나에게 속삭이듯 말하는 것이였다.

《글쎄 처녀가 얼마나 참하고 인정이 깊던지...》

녀인의 말에 의하면 처녀가 경호를 찾아오기 시작한것은 얼마전부터였다고 한다. 몇년전 경호가 속도전청년돌격대에서 돌아온 그때부터 처녀의 사진도 그의 품속에서 내내 살아왔다. 그 처녀가 속도전청년돌격대 녀성소대장으로 일하다 갓 돌아온것이였다.

《글쎄 얼마전엔 경호가 보이라개조때문에 저녁 교대에 나온다가에 저녁밥을 싸들고 보이라실로 찾아갔지요. 그랬더니 그 처녀와 고급빵이랑 한가득 놓고 마주앉아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겠수. 처녀는 뭐가 그리도 좋은지 웃음을 참지 못하며 경호의 도면이 대단하다고 침이 마르게 칭찬이지요...》

《그래요?! 》

《...그리구 뭐 날더러 그동안 경호동무때문에 고생이 얼마나 많았겠느냐고 하면서 이 거친 손등을 자꾸만 쓸어만지는게 아니겠수. 나는 그만 어린애처럼...》

녀인은 말끝을 얼버무리며 눈굽을 훔치는것이였다. 그리더니 나의 팔굽을 가만히 건드리며 합숙쪽을 가리켰다. 두 젊은이가 주단처럼 깔린 락업을 밟으며 조용히 거닐고있었다. ...고운 몸매, 잔잔한 걸음씨 그리고 경호모습 또한 얼마나 의젓한것인가. 한달음에 달려가 축하해주고싶은 마음이였으나 그들이 볼세라 나는 슬며시 자리를 피해주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느닷없이 부풀어올랐다. 생활이란 얼마나 좋은것인가. 4년세월 고스란히 기다렸다 서로 만나 저렇듯 사랑을 속삭이고있으니...

《됐수다. 아주머니, 이젠 나도 한시름 났수다. 이제부터 준비를 잘했다가 저들의 결혼식을 잘 차례줍시다. 》

나는 그때처럼 경호의 일을 두고 기뻐한적이 없었다. 그런데 경호는 그후 자기의 일신상문제에 대해서는 감감 잊은듯 보이라에만 매달려있는것이였다.

《지도원동무, 우에서 새 보이라를 넣어주겠다는데 우물쭈물하지 말고 제격 끌어들이지요. 맛내기 화를 빨리 실현하고, 새각시도 맞아들여야지. 》

경호는 히죽이 웃었다.

《뭐, 천천히 하지요...》

그는 랑순한 눈을 슴벅거리며 버릇처럼 손으로

뒤덜미를 문다질렀다.

《저, 그러구 지배인동지. 새 보이라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전력 과 석탄소비기준을 초과하고있는데요.》

《원 별적정 다 하오. 우리가 이제 사철 맞네기장을 떨구지 않고 시민들에게 공급해보오. 그땐 아마 온 도시가 우릴 떠받들거란말ियो. 그래서 우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돌려주는게 아니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새 소비기준을 제정하여줄지도 모른단말ियो.》

그랬으나 자기는 보이라개조에서 손을 뗄수 없노라고 고집을 부렸으며 경호는 나를 설복하려 하였다.

지금도 경호는 그때문에 자리에 붙어있지 않을 것이었다.

처녀는 여전히 단정히 앉아있었고 나는 창문가에서 물러섰다. 전화종이 울렸다. ...구내에서는 경호를 찾을수 없다는 기별이었다. 딱하게는 되었다.

처녀는 서류를 거두며 나를 이윽히 지켜보았다. 어떻게 할것인가. 나는 경호대신 그 누구인가를 불러야 했다. 생산지도원, 기사장...

《저 지배인동지, 만일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저의 사업을 함께 도와주세요.》

처녀는 간청하듯 말하였다.

《글쎄. 그래도 좋긴 하겠지만...》

나는 시간을 타산하며 망설이었다. 그러나 처녀의 눈빛을 보니 차마 그의 청을 거절할수가 없었다.

《정 그렇다면 좋소!》

나는 마침내 사업일지를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처녀는 기쁨을 숨기지 못하였다. ...

하얀 타일이 깔린 복도에서 처녀는 후령후령한 위생복을 덧껴입으며 쑥스러운듯 빙긋이 웃었다. ...식료품생산공정들은 처녀를 몹시도 감동시켰다. 탁아소시절부터 어른으로 성장한 오늘까지도 즐겨 먹고있는 탕과류며 고급식료품들이 어떤공업적공정들을 거쳐 만들어지는가를 직접 보게 되는것은 자못 흥미있는 일이 아닐수 없었다. 처녀는 너무 심취한 나머지 자기의 본분을 다 잊을 정도였다.

《야, 정말 굉장하군요!》

기계를 타고 폭포처럼 쏟아져나오는 고급과자며 갖가지 사탕들을 보며 처녀는 황홀경에 잠겼다.

《지배인동지는 참 좋겠어요.》

물엿작업반을 나서며 처녀는 나를 부러움에 가득 찬 눈길로 바라보았다.

《...사람들과 어린이들은 맛있는 식료품을 대할때마다 지배인동지의 수고를 생각하겠지요.》

《예, 뭐 그렇게까지야...》

사양하듯 나는 이렇게 대답하였으나 마음은 한량

없이 흐뭇하였다. 그런 나머지 나는 처녀에게 묻지 않아도 좋았을 말까지 하게 되었다.

《왜 전력감독원들의 사업은 그렇지 못한가요?》

그러자 처녀는 마지못해 웃음을 지으며 (나에게는 그렇게 보이였다)고개를 숙이는것이였다.

《저희들이야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때가 더 많은걸요...》

나는 처녀가 웃으며 하는 말이였으나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에게 은연중 동정의 마음이 기울어졌다.

《그게 다 좋은 일을 위해서지요...》

나는 빙그레 웃었다. 못사람들의 칭찬 한마디 받지 못하며 일해야 하는 처녀의 따분하고 웃음이 없는 직무를 저으기 리해할수 있었던것이다.

맞네기간장작업반에서는 생산이 한창이였다. 3층천정 높이 우뚝 선 배가 나오고 끝이 빠죽한원통형 발효탱크와 막냉이처럼 나란히 붙어선 종발효계통들이 철사이없이 돌아가고있었다. 고르로운 전동기소리, 압축바람, 증기소리...

《아유. 로케트같군요.》

처녀는 입에 손가오리를 하고 나에게 소리쳤다. 나는 마주 웃었다. 처녀의 비유는 그림직하였다. 그 탱크들에서는 수십톤의 난알에서 추출한 당액이 맞네기균을 키워내고있었다.

천수백배의 확대경에 의하여서만이 볼수 있는 운동성이 없는 그 균들은 자기들의 번식에 적합한 교반과 온도와 바람이 보장되지 않으면 배양을 중단하고 로쇠해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균들은 사람이 얻고저 하는 글루타민산이라는 맞네기성분을 극히 적게 배출한다. 하기에 식료공장에서 증기와 물과 바람은 생산을 의미했으며 그것은 오직 동력의 힘에 의해서만이 담보될수 있는것이였다. ...한번은 우리 공장과 한 계통의 전력을 받아 쓰고있던 기업소의 부주의로 정전사고가 발생한적이 있었는데 그로 인하여 발효탱크들에서는 수십톤의 당액이 단꺼번에 변질될번하였다. 그 사고가 있은다음 시에서는 변전소로부터 단독인입선을 넣어주는 조치를 취해 주기까지 하였었다.

나는 우리 공장이 처음인 처녀의 리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계의 동음속에서도 그 모든것을 설명하였다.

《정말 그래요. 전기는 우리 생활에서 한순간도 없어서는 안될 나라의 귀중한 채부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전기가 마치 흘러가는 강물이기라도 하듯이 망탕 쓰며 허비하고있어요. 글쎄 자기주머니의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처녀의 어조에는 안타깝고 참을수 없어하는 절절

한 그 무엇이 담겨져있었다.

그는 류달리 맛내기간장작업반에서 많은 시간을 지체하였다. 전기설비는 물론 생산일지까지 까보며 전력소비정형을 분석하였다. 그는 여기에서 증기의 부족으로 기대에 만부하를 걸지 못하여 전력이 낭비되고있는것을 제때에 간파한것이였다. 처녀의 눈빛은 차츰 어두워졌다.

《제4호계통이 좋지 않아요...》

현장을 나서며 처녀는 감동원다운 랭정한 어조로 잘라 말하였다. 이때에도 처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의연히 보존되어있었다. 마음의 변화와는 인연이 없는 그러한 미소였던것이다.

고개를 숙이고 침울하게 현장을 나서던 처녀는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머리를 기웃거렸다. 그러더니 바깥창문쪽으로 달려가는것이였다.

《아니 이젠 또 웬일인가요?...》

그는 창문머리로 비죽이 늘어진 고무호스에서 뿐만 김이 뿜어나오는 그앞에서 큰 일이라도 난듯 소리쳤다. 그것은 발효가 끝난 당액속에서 암모니아 성분을 제거할 때 생기는 현상이였다. 누구나 증기로 헛갈리기 쉬웠다.

나는 그것이 증기가 아니라고 거듭 손짓하였으나 처녀는 도무지 그자리를 뜨려고 하지 않았다. 하는수없이 그에게로 가려던 나는 저만치에서 합숙어머니가 부르는것을 띠여보았다.

무슨 일로인지 너인은 말은 못하고 그저 빙어리시늉이였다. 그렇지 않아도 감동원처녀의 점심준비때문에 만나려던 참이어서 나는 처녀를 창결에 남겨두고 그에게로 슬근히 다가갔다.

그러자 너인은 다짜고짜 묻는것이였다.

《어떻수. 그 처녀가 맘에 듬데까?》

《그 처녀라니요?》

어두운데 흥두깨내민격이라더니 나는 어리뻑뻑해졌다.

《경호 색시감말이웨다.》

《원참. 아주머니두, 내가 언제 그 처녀를 보긴하했소.》

그 말에 너인은 입을 딱 벌리며 무릎을 철썩 내리쳤다.

《아이구 이런 변이라구야...》 하며 그는 배를 그러안고 웃어댔다. 어망중에 나도 곁따라 웃었다. 한참 웃다보니 별 싱거운 생각이 다 들었다.

《아주머니, 난 웃을 짬이 없수다. 어서 가서 손님식사나 잘 준비하시오. 그리구 경호를 보면 나에게 인차 보내주시오.》

그랬는데 합숙어머니는 나의 팔을 덥석 붙잡는것이였다.

《에그나, 알량한 어르신네지. 그래 지배인동지

는 저 처녀가 여태 누구인줄 모르고 함께 다녔단말이유.》

너인은 어이가 없다는듯 손을 뻗혀 내저었다.

나는 그만 어뽕뽕해지고말았다.

《아니 그럼 저 감동원처녀가 우리 지도원의 애인이란말이요?》

나는 갑자기 웃음집이 흔들려견딜수 없었다.

《그런걸 왜 이제야 알려주우, 예. 예참... 어쨌든 일이 잘됐수다. 통성이야 천천히 하면 뭐라우. 내 이제 처녀를 데리고 곧 갈테니 호실도 정돈하구 식사준비랑 잘하시우. 그 왜 우리가 늘 좋아하는 생선 튀기랑 있잖소. 이런 때 한번 솜씨를 보이시구려.》

나는 너인의 등을 서둘러 밀어보내고 여전히 증기 아닌 《증기》앞에서 맴돌고있는 처녀에게로 갔다.

《자, 처녀동무, 이젠 그만 들어가 인사나 다시 나옵시다.》

의미심장한 눈길로 말하려던 나는 그만 그가 두손으로 물을 한웅큼 떠서 보이는 바람에 입을 다물어버렸다. 그것은 이상발효현상을 막기 위한 랭각장치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이였다.

《아까운 물이 하수도로 흘러가요. 전기나 다름없지 않아요...》

노여움이 가득찬 처녀는 망홀로 하염없이 흘러드는 더운 물이 귀중한 그 무엇이끼라도 한듯 두손을 모아 뜨고 새여버리면 또 뜨는것이였다...

나는 갑자기 지루하고 갑갑한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속히 이 사업을 결속짓고 처녀와 인간적인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는 조바심이 마음을 괴롭혔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심정을 알리 없는 처녀는 물의 행처며 그 량에 대하여 더욱 까근까근 캐어묻는 것이였다.

지배인실로 돌아온 처녀는 응접탁우에 팔굽을 올려놓으며 나직이 숨을 내쉬었다. 그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몇히여 이슬처럼 반짝이고 레의 그 눈빛은 그 무엇인가를 집요하게 추구하는듯 빛났다.

이윽고 처녀는 자기의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여 검열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런후 정중히 일어나 전력감독정형을 총화하였다. 우점도 이야기했고 결함도 까밝혔다. ...검열원들이 흔히 거치는 사업공정의 하나다. 그들은 잘못된 점을 공장측에 엄중히 제기하며 우리는 그를 허심하게 접수한후 시정할것을 명예를 걸고 담보한다. 그러고나면 사업이 끝나고 우리는 서로 구면이 되며 후날에는 깊은 리해속에 다시 만나게 되는것이다. 지금 저 처녀의 모든 절차들은 표면상 (그렇다. 이제 와서야 표면상일따름이다.)원칙을 요구하고있으며 이것은 서로의 사

업을 위해서도 필요하였다.

드디어 처녀도 앉았고 나도 그만 사업일지를 덮었다. 이렇게 사업상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였다. 처녀는 마치 할 말을 채 못다한듯 바재이며 나직이 숨을 모아쉬는것이였다. 그러더니 결심이나 된듯 나의 책상앞에 인쇄된 용지 한장을 내놓았다. 《…?》 처음 나는 자신의 눈을 의심까지 하였다.

그러나 지배인인 내가 어떻게 그런 법적문서를 헛볼수 있겠는가. 그 문서란 《전기사용위반조서》였던것이다. 거기에는 처녀가 포박포박 박아쓴 위반내용과 그 내용을 승인한다는 활자화된 글발 그리고 기관책임자의 수표만이 공백으로 남아있었다.

처녀는 지금 그 공백판에다 나의 수표를 요구하고있는것이다. …이것도 《표면상 원칙》이겠는가. 나의 수표는 법적책임을 인정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어느 기업소의 책임자 치고 이런 문서앞에 주저하지 않을수 있으랴… 혹시 합숙녀인이 이 처녀를 나에게 잘못 소개한것이 아닐가. 나는 착잡하였다.

처녀의 눈길은 나의 두번째 단추에 머물고있었다. 미소도 여전하였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 미소와 눈길은 나에게 랑소처럼 느끼졌다. 나는 곤청색원주필을 만지작거렸다. …다시 처녀를 얼핏 스쳐본다. 어떻게 할가. 공장의 특수한 사정을 이야기해볼가. 경호에 대해서도… 저 영채도는 완강한 눈빛…

문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처녀와 나는 거의 동시적으로 문쪽을 바라보았다. …경호였다! 그는 체면쩍게 웃으며 우리 두사람을 번갈아 쳐다봤다.

《어마나!》

가볍게 탄성을 지르는 처녀의 얼굴은 활짝 붉어졌다. 반가움과 어색함으로 하여 처녀는 몸둘바를 몰라했다.

《순회동무가 어떻게…》

경호는 나를 보며 숫저워했다.

《글쎄 제가말예요. 처음부터 여기로 오게 된것은 아니였지요. 이곳 지구를 담당한 동무가 갑자기 사정이 생겼어요…》

《아, 그렇소. 아무려면 상관있소.》

상관이 없다니?! …조서장은 여전히 나의 앞에서 수표를 기다리고있었다.

그제서야 경호는 그 법적문서를 알아보았는지 술 짙은 랑순한 눈길을 나에게서 다시 처녀에게로 옮기더니 그곳에서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안의 어느 한곳으로 황황히 사라졌다. …경호야말로 가장 적당치 못한 시간에 나를 찾아온것이였다.

처녀는 태연한듯 미소를 짓고있었으나 그의 귀방울은 마치 잘 익은 물앵두처럼 되어버렸으며 갑자

기 손이 저리기라도 한듯 열심히 주무르고있었다. 경호의 눈길도 다시금 나와 처녀사이에서 허둥거렸다.

하지만 우리 셋중에서 누구보다 난처한 처지에 국면하게 된것은 나자신이었다. 나는 더 이상 어색하기 비길데없는 이 시간을 끌수 없었다. 어쩔줄 몰라하는 두사람의 표정과 마음들이 나에게 그것을 요구했다. 그렇다. 그들은 서로 때늦어 뺏어진 인연들이 아닌가.

급기야 나의 원주필이 조서장우를 날았다. 그러자 하얀 공백판에 곤청색수표가 살아 움직이는듯이 새겨졌다. 나는 숨이 가뻔했다. 그러나 일종의 위안이 나를 진정시켰다. 그들을 위하여 그 어떤 인정을 베풀었다는 그것이였을가…

《자, 어서 이걸 반소!》

나는 우선우선한 표정을 일부러 지었다. 처녀는 조금 당황한듯이 주저하며 그것을 조심히 받아 가방안에 넣었다.

경호의 손이 목덜미에서 슬슬 움직였다.

방안의 공기도 얼마간 흥그러워진듯싶었다.

그런데 처녀만은 무엇이 또 마음에 걸린듯 아래 입술을 감빨며 섰더니 종이 한장을 또 꺼내는것이였다.

《…지배인동지, 저 4호계통말입니다. 〈시간정지〉를 시켜야 하겠습니다.》

감독원처녀의 손에는 붉은색 번개표식의 바탕우에 《운전정지》라고 쓴 봉인표가 들려져있었는데 그것은 바람결에서처럼 가늘게 떨고있었다. 감독원의 권한으로 행사하는 법적제재였다…

나는 가슴이 후두두 뛰었다. 생산에 미치게 될 영향보다 참을성의 한계를 초월한 커다란 상실감이 가져다주는 억제할수 없는 흥분이였다. 이걸 너무하지 않은가… 나는 크게 숨을 들이그었다. 그리고 얼마간 진정하고난 나는 경호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도원동무, 감독원동무의 요구대로 그렇게 하오.》

나는 년장자답게 감정을 억제하였다. 그리고 사업이 끝나면 처녀에게 식사를 대접하여 보내라는 말도 잊지 않고 했다.

문을 나서며 경호는 머춤거렸다. 그러나 나는 두번다시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리고 긴 복도를 따라 멀어져가는 두사람의 발자국소리를 가늠해 들으며 어텐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러자 가슴에서는 경호에 대한련민의 정이 끓어올랐다…

그들이 계단 멀리로 사라지자 나는 쏘파에 몸을 실었다. 온몸이 무겁고 나른했다. 눈을 스프르 감았다. …해저무는 아득한 지평선 멀리 사라지는 렬차,

외로이 선 전주... 나는 환각을 지워버리며 창문으로 시선을 보냈다. 뿌잇한 하늘이 언제나와 같이 비껴있다, 한가닥 버드나무가지가 창가에 드리워있다. 가느다랗고 터실터실한 그가지끝에 해묵은 잎사귀 하나 간신히 매달려 흔들거린다. 나무와 작별하기 못내 아쉽기라도 한듯...이제쯤 그들은 합숙으로 돌아갔을가. 마주앉아 점심도 나눌테지, 즐겁게 이야기도 하며... 나에 대하여 뭐라고 말들을 할가. 좋은 말도 할게고... 예, 예, 그게 무슨 상관인가, 아, 왜 이다지도 피로한가...

그러나 나는 쏘파우에 편히 앉아있을수 없었다. 해야 할 많은 일들이 나의 마음을 재촉하였던것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솜옷을 걸치던 나는 창문너머에서 눈길의 굳어졌다. 순희와 함께 경호가 정문을 나서는것이 보였다. 처녀의 고개는 무겁게 숙여져있었다. 그냥 가버리누나. 경호가 끝내 한마디 한모양인가, 자기네 지배인을 모욕했다고 섭섭한 말을 했을테지, 인정도 사정도 모르는 메마른사람이라고... 다소곳이 걷는 처녀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보인다.

《저희들이야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때가 더 많은걸요.》

아까 처녀가 웃음삼아 하던 말이 떠올랐다. 참 세상에 별난 직업도 있단말이거던...

합숙어머니가 허둥허둥 달려오는것이 보인다.

경호가 쓸쓸히 혼자서 되돌아오는것을 보고 그 녀인은 두 팔을 후줄근히 늘어뜨리며 꺼지게 한숨을 쉰다. ...녀인은 피복 나의 창문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리고 무어라고 손을 뻗혀 내저으며 중얼거렸다. 나를 원망하는것인가! ? 어찌하여 저 녀인은 사랑이란 어디까지나 감정에 기초하고있다는걸 모르고있단말인가.

갑자기 창문에 드리웠던 나무가지에서 묵은 잎사귀가 떨어져 땅우로 날아내렸다. 아마 때마침 고드름이 떨어지며 가지를 건드린 모양이다. 역시 공교로운 일이다. 그러나 봄이 오면 저 가지에서는 새움이 피여날것이였다...

날씨는 더욱 침침했다. 엷은 구름이 소리없이 내려앉더니 눈이 펄펄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바람까지 불었다.

나는 솜옷에 털모자까지 꼭 눌러썼다. 밖에 나서니 진득진득한 눈송이들이 얼굴이며 목깃으로 사정없이 날아들었다. 눈조차 뜨기 어려웠다. 나는 눈발을 헤치며 정문으로 향하였다. 거기서는 영천지구로 떠나는 차가 나를 기다리고있었다. 영천은 시내를 벗어나 30리나 되는 학교개라는 평길을 넘어 교외에 있었다. 경호에게 말기려던 이 일을 내가 하기로 작정했다. 가는 길에 나는 보이라운증기배관을

해결해야 했다. 영천강철공장지배인은 나와 오래전부터 가까이 사귀여오는 친구였다. 그는 내가 웅색해 할 때면 후한 인정을 베풀곤하였다.

공무직장 파철무지에서 맨머리바람으로 서성거리던 경호가 나를 알아보고 달려와 종이 한장을 꺼내 보이었다.

《저, 지배인동지. 이걸 좀 봐주십시오.》

눈송이들이 맨머리바람의 그의 목덜미로 마구 쓸어들었다. 나는 바람을 막아주려고 몸을 돌려뒀으나 아무 보람도 없었다.

《...시험조작을 해봤는데 증기가 훨씬 오릅니다.》

보이라개조에 대한 설명이였다. 그의 눈빛에는 사죄하는듯한 기색이 력연했다.

《지배인동지, 아까 일은 저때문에...》

《무슨 소릴 하는거요.》

나는 그의 말을 밀막아버렸다. 경호는 주뭇거렸다.

《그런데말입니다. 그 랑각수를 보이라에 되돌려쓰려고 합니다.》

경호는 지금 처녀의 말을 되풀이하고있었다.

《보이라에말이요? !》

나는 비꼬듯 빙그레 웃었다.

《...그건 사실 제가 이미전부터 생각해왔는데 관이 없어서...》

경호는 밀을 더듬었다.

나는 문득 고드름 떨어지자 잎사귀가 날아내리던 생각이 났다.

《그럴수도 있을거요. 그러니 날더러 관을 대라는것이겠소!》

《그런게 아닙니다. 당장 소형뿔프날개만 있으면 관은... 저 그 동무가...》

나는 어깨를 으쓱해보이었다.

《또 그 동무요?》

빈정거리듯 반문하고난 나는 잊으려 하였던 처녀에 대한 불쾌한 회상으로 하여 좋지 않은 감정까지 되살아났다. ...어질고 온순한 경호가 그런 처녀와는 행복할수 없다는것을 나는 지배인으로서, 오래동안 함께 사업하여 온 의리로서 권고하고싶다는것을 그자신이 감촉하기를 은근히 바랬던것이다.

《...종소, 종소. 그건 그렇구, 그 보이라말이요, 사방에서 우리를 특별히 생각해서 도와주겠다는데 왜 고생을 사서한단말이요. 글썽 손에 들려주는 떡도 먹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해야 좋겠소...여하튼 잘 생각해보오. 동무를 위해서도 그렇고 공장을 위해서도말이요.》

타이트트 말하던 나는 경호의 작업복 웃주머니에 비죽이 나온 종이쪽지가 눈에 띄웠다. 감독원처녀

가 나에게서 마지막 믿음과 기대를 걷어갔던 그 《운전정지》 봉인표였다. 그제서야 나는 처녀가 어째서 선 걸음으로 돌아갔는지 짐작이 갔다. 필경 경호는 그 봉인표를 두고 자기 애인에게 말했을것이다. 원칙도 사람이 지키고 인정도 사람에게 있는것인데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그래서 처녀는 비난을 받고 떠났을것이다. 그렇다, 사랑이 소중할수록 강경할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구걸하여서는 얻을수 없으며 그런 사랑은 오래 갈수 없는것이기때문이다.

《하여간 장소. 내가 이제 영천지구에 가서 부속들과 인발판을 해결해오면 인차 새 보이라를 설치합시다.》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하듯 말했다.

그의 맨머리우에 눈이 하얗게 내려앉았다.

그는 아무 말도 없었다. 나는 그와 헤어졌다...

진종일 내리던 눈은 오후에야 멎었다. 그대신 바람은 그치지 않았다.

영천지구에서 나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부속들을 차에 실어보낸후 나는 강철공장으로 갔다.

지배인실을 찾아 현관으로 들어서던 나는 현장쪽으로 걸어오는 몸집이 우람하고 보기 좋게 배가 나온 그를 보았다. 강철공장지배인은 언제보나 사람 좋은 인상이었다. 그와 또 한사람이 나란히 걸어왔다. 솜동복차림의 여자였다. 연분홍빛목도리로 머리를 감싼 그 여자는 강철공장지배인에 비해 몸집도 키도 딸같이 어려보였다.

나는 현관앞에 서서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그들이 현관 가까이 왔을 때 나는 그 여자가 전력감독원 순회라는것을 알았다. 우리는 여기서 또 만나게 된것이였다. 어쩐지 민망스러운 생각이 든 나는 먼눈을 팔며 고개를 돌리었다. ...다행히 그들은 현관앞을 그냥 지나 정문으로 향해갔다.

거기서도 강철공장지배인은 처녀와 무엇인가 한동안 말을 주고받았다.

처녀와 헤어진 그는 뒤집을 지고 심중한 표정으로 걸어왔다.

《...왜 그 처녀와 무슨 일이 있었나?》

강철공장지배인은 몸집에 비하여 마음이 푸수한 성미였다.

《정신을 차리고 일해야겠어...》

그는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단단히 걸려든 모양이지...) 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하긴 그 처녀한테라면 제아무리 큰 기업소지배인인들 용빼는수가 없을것이였다.

《...공장의 특수한 조건만 내걸고 교차생산규율을 어기고 전기를 절약하기 위한 생산조직방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현상을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는걸 세.》

《허참. 자네가 뭔가 좀 잘못 처신한것 같네. 그런 처녀에겐 제격 위반조서에 수표나 해서 돌려보내라구. 그러면 후과도 없고 그렇게 거북한 소릴 덜 듣게 될걸세... 생산만 넘쳐한다면 그게 대순가.》

《나도 이제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었지... 좌우간 영천지구를 새로 담당한 전력감독원처녀는 간단치가 않아.》

그는 창문쪽을 바라보았다. 고개를 다소곳이 숙인 처녀의 모습이 멀어져가고있었다.

《저 처녀에게도 사업에서 기쁨이라는걸 느낄 때가 있을가.》

나는 희미하게 보이는 처녀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며 물었다.

《그건 무슨 소린가?》

그는 나를 처음 보기라도 하듯 힐끗 쳐다보았다.

《언제나 고개를 들고 다니지를 못하거던.》

《생각을 깊이 하는거겠지.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쁨을 맛보는지도 모르지...》

《그래?! 하긴 기쁨도 제나름이니까.》

나는 어깨를 으쓱해보이며 히죽이 웃었다.

사무실로 들어온 강철공장지배인은 넓고 번들거리는 책상에 마주 앉아서도 담배만 태웠다. 그는 내가 찾아온 용건을 듣고도 시원히 대답을 안했다. 지도서없이는 곤란하다는것이였다.

《우리 공장에 지도서없이 주고 문제가 섰던적이라도 있었던가?!》

《또 특수라는건가?》

강철공장지배인은 사람좋게 웃었다.

《여보게, 동무나 나나 이젠 생각을 좀 달리 해야겠어. ...나는 앞으로 <특전>을 내걸고 일은 쉽게 하고 평가는 크게 받으며 사는 그런 일군이 되지 않으려네. 그 처녀감독원을 상대하면서 나는 이것을 깨달았네.》

《...? ? 자네도 또 그 처녀인가?! ...하여간 섭섭하네. 그래도 자네를 믿고 예까지 왔는데...》

나는 그에게 더 사정하기를 단념하였다. 그러면서도 시에서 우리의 형편을 알게 되면 증기배관용 자재쯤 풀어주지 않겠는가 하는 배심이 든든하였다.

처녀감독원이요, 명예요 하는 강철공장지배인의 말이 꼭 인발판을 내놓지 않으려는 변명처럼 나에게 들려왔다...

바람이 기승을 부렸다.

나는 시에서 진행되는 월생산총화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강철공장지배인과 함께 승용차에 올랐다.

학교개는 가파롭고 우불구불하였다. 한굽이를 돌면 다음굽이가 나저였고 건너편 코숭이길이는 불빛에

드리났다. 산우에서 불리운 눈보라가 길우에 뽕양
게 뿔었다. 지나는 행인도 없었다. 통근열차가 교대시
간에 맞추어 시내까지 운행되고있었다. 다만 화물
자동차들이 이따금씩 마주쳐왔다.

몹집이 큰 강철공장지배인은 의사등받이에 폭 기
댄채 말이 없었고 나도 눈보라가 심경이질하는 차
창밖에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어쩐지 그렇지 않았
던 우리 두사람의 사이도 그 처녀때문에 버그러진
것만 같은 생각이 느닷없이 들었다.

휘익-눈바람이 달리는 승용차를 붙잡고 맹수처
럼 울부짖었다. 승용차는 간단없이 들추어대며 미
끄러지듯 령길을 내리었다. 차가 고개길을 거의 내
려 마지막 굽인돌이를 돌아서고있는 때였다.

목도리를 쓴 한 녀자의 모습이 언뜻 드리났다가
차창옆으로 휩하니 사라졌다. 등에는 배낭을 무겁
게 지었다. 때마침 산에서 불어내린 눈보라의 흰갈
기가 삼시에 그 녀자를 휘감아버렸다. 혹시 감독원
처녀가 아닐가...? 나는 부지중 느껴지는 이런 예감
에 창결으로 바싹 다가붙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승용차는 벌써 눈보라와 함께 그 녀자를
멀리 남겨놓고 질풍같이 내달리고있었다. 나는 강
철공장지배인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설혹 감독원처
녀였다면 앞좌석에 앉은 그자신이 먼저 알아보고
기꺼이 차를 멈춰세웠을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강철공장지배인은 얼굴 한번 돌리지 않은채 한모양
으로 앉아있을것이였다. 무슨 사연이길래 낮모를
그 녀자는 눈보라를 헤치며 고개를 넘는것일까. 나
는 왜서인지 깊은 숨이 새어나왔다. 처녀에 대한 나
의 고까운 마음이 오죽했으면 지나는 행인을 보고
도 착각까지 하였겠는가...

승용차는 시중심거리에 들어섰다. 여기서는 바람
도 잠잠하고 아늑하였다. 회의실앞에서 차가 멎었
다. 강철공장지배인은 잠들었던 모양인지 선하품을
하며 가방을 찾아들었다...

회의는 늦어 끝났다. 새해 첫달계획을 넘쳐수행
한 공장지배인들이 높이 평가되였다. 그중에는 강
철공장지배인도 나도 들어있었다. 지배인들에게 있
어서 이런 순간처럼 기쁜 때란 없는것이다. 하기에
이런 날엔 우리는 굳게 손을 잡고 사나이답게 친구
답게 축하하곤했었다. 그러나 이날 저녁만은 그렇
게 되지 않았다... 바람도 차고 눈보라도 날리지
않았다. 어느새 노루꼬리만한 저녁해가 지고 저녁어
스름이 공장구내에 드리워있었다. 공장을 바라보니
증기와 보이라에 대한 근심이 본능처럼 나를 사로
잡았다. 문제는 배관을 해결하는것이다. 나는 래일
총국에 올라가 결정적인 답변을 받고야 말리라는
생각을 하며 정문으로 들어섰다.

경비실문이 열리며 함숙어머니가 불쑥 나와 나를

다쫓아왔다.

《지배인동지...》

그의 목소리에는 녀성다운 시름이 한가득 어려있
는데 손에는 보자기에 싼 늑갑통이 들려있었다.

무슨 영문이냐고 다그쳐 묻자 글썽 경호가 제애
인을 닦아세우고있다는것이였다.

《아니 애인을 닦아세우다니?》

내가 다소 시답지 않는 어조로 묻자 녀인은 습관
처럼 손을 뻗혀 내젓는것이였다.

《글썽나말이웨다. 그 처녀가 뺨스를 놓치구 영
천서 예까지 걸어왔다질 않수. 우리 공장에 쓸 뽕가
소형뽕프날개를 지고말이우. 예그나, 이 눈보라에
향고개를...》

순간 나는 가슴에서 무엇인가 덜커덕 내려앉는듯
한 강한 충격을 받았다. 눈보라속으로 잠겨버리던
처녀... 아, 그가 순회였던말인가. 그런데 나는 어찌
자고 그를 지나쳐왔던가. 차를 세우고 알아라도 보
았던들 가슴이 이다지도 미여지지 않았을것을... 그
처녀는 우리 공장일을 위해 눈보라치는 고개길을
걸어오고 지배인인 나는...

목이 짝 막히어버린 나는 그제 죄다 사실이라고
되물을 용기마저 잃고말았다.

함숙녀인은 흘러가는 더운물을 보이라에 되돌려
쓸 소형뽕프며 증기배관의 예비며 하는 말들을 처
녀와 결부시켜 끊임없이 섬겨대는것이였으나 나는
눈보라속으로 사라지던 고개길의 처녀모습이 자꾸
만 눈앞에 서려와 그제 가슴이 미여지는듯하였다.
참으로 나는 50평생을 살아오며 이때처럼 량심의
부끄럼과 인간적수치감을 느껴본적이 없었다.

《그런데 무슨 리유로 그런 처녀를 노엽힌단말이
요?》

나는 그때 무슨 리유로 그렇게 버럭 소리를 질렀
는지 자신도 알지 못했다. 아마도 나 자신에 대한 분
노였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경호가 어디 있소. 왜 그런 녀석을 혼뜨
겁 못내주고 우는 소리요. 예, 참.》

나는 애꿎게 녀인에게만 화를 내며 그의 팔을 끌
다싶이 하였다.

맛내기간장작업반앞마당에 배관들이 널려져있고
땀을 녹이느라고 피워놓은 모닥불이 스러져가고있
었다. 거기서 순회와 경호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나와 함숙어머니는 동안을 두고 우뚝 서버렸다.

《...전 경호동무가 그렇게 생각할줄은 몰랐어요.
지나친 간섭이라니요...》

처녀는 어찌나 흥분되었는지 말끝도 제대로 마무
리지 못하였다.

《그렇소, 나는 달리는 말할수 없소.》

스러졌던 잉결불이 확 피여올랐다, 경호가 화김

에 검불을 모아 물우에 쥐여뿌린 모양이었다. 한순간 그 어방이 환해졌다. 순간이기는 하지만 나는 그 불빛에 연분홍빛 목도리를 퐁퐁 동여맨 순희의 빛나는 그 눈빛과 사라지지 않은 미소를 보았다. 소형 뽀뽀며 전동기와 공구들...

《제발 저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말을 안하게 됐소. 그래 동무는 자기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으로 될수도 있다는걸 모르다니...》

《모욕이라구요?》

《그렇소. 우리 공장사람들에게말이요. 구체적으로 우리 지배인동지요.》

《지배인동지요?! 아니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럴수 있겠어요.》

집에 질린듯 처녀의 음성은 입안으로 잦아들었다.

《그렇다면 절 용서하세요. 그리구 지배인동지에게도 사죄해요.》

《아니, 그렇게 사죄할것까지는 없소. 우리 지배인동지는 좋은 사람이요. 아마 이 사실을 알면 누구보다 기뻐할거요.》

《아이참, 이제는 또 비행기를 태우누만요.》

처녀는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긴장으로 하여 조여들었던 나를 스르르 풀어주었다.

그리고 차츰 종잡을수 없게 되었으며 나의 생각은 뒤죽박죽이 되고말았다.

경호의 음성이 한결 누그러졌다.

《룡담이 아니요. 우리 지배인동지가 장의 맛내기화를 위하여 얼마나 애쓰는지 동무는 모를거요. 그때문에 요사이 흰 머리칼이 더 많아졌소.

...그런데 동무가 우리를 크게 도와주었거든.

자, 보오. 저 보이라실에 있던 증기종합발브를 여기 현장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오. 증기의 도중손실을 막을수 있지. 여러 줄기의 배관을 하나로 통합하니 배관문제가 풀리지. 어디 그뿐이요. 증기를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쓰게되니 같은 증기를 가지고도 효과를 훨씬 높일수 있거든. 이게 어디요.》

《아이참 그만해요. 거야 제가 하두 많은 공장을 다녀보았으니 그 비슷한 말을 했을뿐이지요. 그리고 전 다만 증기의 도중손실만을 생각했는데 여기서...》

《어쨌든 결과는 커졌거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경호는 문득 시치미를 떼며 억양을 바꾸었다.

《...감독원동무, 이제는 제4호계통에 만부하를 걸게 되었으니 전기사용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처녀는 웃지 않았다.

《정말 그렇군요. 그러니 아까 그 <운전정지> 봉

인표를 저에게 돌려주세요. 이걸 두고 떠나는 저의 마음이 이쨌는줄 아세요. 영천지구를 돌아보면서도 고개길을 넘으면서도 내내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봉인표를 붙이지 않아도 되었으니 저는 이런 때가 제일 기뻐요...》

처녀는 경호가 내여주는 봉인표를 받아 꼭꼭 접어 주머니에 넣는것이였다.

경호는 이윽히 그를 바라보았다.

《만일 이 일을 우리 지배인동지가 알면 동무를 등에 업고 다닐거요...》

《아유. 그럼 어쩌나...》

처녀가 깔깔거리며 웃었다.

경호도 웃고 내결에 선 함숙어머니도 웃음을 참느라고 입을 싸쥐었다. 오직 웃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것은 나 혼자뿐이였다. ...어느새 어둠은 더 짙어갔다.

《아유, 이젠 그만해요. ...》

《가만, 그건 그렇다하구. 글썄 동무가 아니면 소형뽀뽀날개쯤 우리가 구하지 못할가봐 영천에서까지 지고온단말이요. 이게 지나친 간섭이 아니고 뭐겠소.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배인동지도 가만있지 않을거요. 동무야 어디까지나 전력감독원이 아니요.》

경호의 음성에는 책방보다 절절한 그 무엇이 더 진하게 잠겨 있었다.

처녀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건 옳아요. 하지만 저는 한줌의 석탄이 어떻게 캐여지고 그 석탄으로 생산되는 한키로와트시의 전력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생각할 때면 잠이 다 안와요.

저는 지배인동지가 위반조서에 허심하게 수표를 해줄 때 많은것을 생각했어요. 인민생활과 관련된 식료공장이야말로 특혜를 받고있는데 지배인동지는 그 특전을 자기가 일을 험하게 하는데 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위반조서나 받았다고 제 할 일을 다했다고 말할수 없지요. ...사실 지배인동지의 마음이야 어땠겠어요. 그이는 공장의 생산을 책임진 일군이 아닌가요.》

누구인가 모닥불을 헤쳤다. 이글거리는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붉게 비쳤다. 그들은 말이 없었다.

순간 나는 어두운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채찍이 나를 호되게 후려친듯 소름이 끼쳤다. 그리고 특수한 불빛이 나의 마음속까지도 송두리채 드러내보인듯싶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었던가...

파철무지앞에서 맨머리바람으로 눈을 맞고 신경호를 보며 저 처녀와는 행복할수 없다고 단정한것은 누구이며 참다운 기쁨을 지니기 위해 눈보라 고개길도 마다하지 않는 순희를 두고 기쁨이 없을것

이라고 비웃은것은 누구였던가.

《특수》와 《특전》을 내걸고 될수록 일을 쉽고 험하게 하면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안을 때 얼굴 한 번 붉힐줄 모르는 그런 인간이 되다니... 그러면서도 자신은 누구보다 뛰고 고생하며 애쓰는 사람이라고 은근히 자부하며 살아온것이 아니었던말인가...

《순희!》

이윽고 경호가 처녀의 이름을 나직이 불러본다.

《경호동무!》

정겨운 처녀의 음성. 어느새 그들의 머리위로 류성이 금을 그으며 지나갔다. 별무리들이 하늘에서 빛나고있었다.

《경호동무, 우리가 이렇게 모닥불가에 앉아있자니 속도전청년돌격대에서 함께 일하던 그때가 생각나요...》

《...우리는 발전소건설장에서 자주 우등불을 지피곤하였지...》

못별들은 다투어 반짝이고 저 멀리 먼 하늘가에서 또 하나의 류성이 살갈이 흐른다.

《아, 그때가 그리워요. 허리를 치는 얼음물, 얼어드는 몸, 그러나 우리는 노래를 부르고 암반을 까부시고 기등을 세웠지요. 무엇이 그리도 우리의 가슴을 불태웠을가요.》

그들은 생각에 잠기었다.

《우리는 그때 시대앞에 지닌 자신들의 책임감을 두고 많이 생각하고 열렬히 론쟁도 하였었지...》

《그래요. 우리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사회주의건설의 돌격대로 내세워준 영광스러운 당중앙

의 그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새세대의 드림 없는 책임감이였어요.》

그들은 또다시 말이 없었다.

《순희! 우리 영원히 그 믿음을 간직하고 혁명앞에 자기의 성스러운 책임감을 다해 가자구.》

따뜻한 불무지앞에 그들은 어깨를 맞대고 행복에 잠겨 앉아있었다.

나는 가슴이 마냥 벅차올랐다. 얼마나 순결하고 깨끗한 그 마음들인가!

합숙녀인의 얼굴에 웃음이 함뿍 어리었다. 나는 웃음이런 녀인의 불우로 두줄기의 눈물이 소리없이 흘러내리는것을 보았다. 인정이 헤쳐서만이라...

나는 그들을 향하여 걸음을 떼었다. 합숙어머니가 나보다 한발 앞서며 소리쳐불렀다.

순희가 먼저 일어나 달려왔다.

《어머니!》

그는 녀인의 팔에 와락 안기었다. 그리고 두 녀인은 걱정을 이기느라고 한동안 놓을줄을 몰랐다.

나는 다시 그자리에 서버렸다. 아직 그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그지없이 가득하였다.

× ×

이 이야기는 오래전 일이 아니다. 그리고 한생을 놓고 보면 순간에 지나지 않는 하루동안의 이야기다. 더구나 나는 이미 젊은 나이도 아니다. 허나 그들이 나의 가슴속에 심어준 순결한 그 마음을 나는 오래오래 간직하고싶다...

나는 너!

김재원

가장 황홀한 빛갈
네가 지니였구나
담찬 사내들만
마음대로 바라볼수 있는

가장 뜨거운 열도
네가 품고있구나
억센 심장 없인
함부로 다가설수 없는

오오, 전기로 전기로
가슴헤쳐 소리치며
번쩍이는 강철을 낳는
너는 이 땅의 창조의 어머니!

전국의 첫 기동도
복구의 대들보도
사회주의 강철탑도
네 품에서 떠나갔다

언제한번 결눈 팔지도 않고
그 무엇 흉내내지도 않고
그 무엇앞에 겁낼줄도 모르더라
온 넋을 창조에만 불태우며

오오, 전기로 전기로
오직 조국을 위해서만
가슴 태우며 사랑을 바치는
너는 나, 나는 너!

당을 받드는 마음을 두고

정영주

올해는 우리 당이 창건된지 40돛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마치와 낫과 붓으로 찬란한 우리 당의 붉은 기발이 처음으로 조국의 창공높이 휘날리던 때로부터 40년!

영광스러운 그 년대기들을 거슬러오르는 나의 마음속엔 언제나 당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당에 기쁨과 만족만을 드리려는것을 자기 삶의 지향으로, 량심으로, 의리로 간직하고 충성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참된 전사들을 생각하게 된다.

참으로당을 받드는 길에 삶의 지향도, 량심도, 의리도 대를 이어 더욱 꽃피여가는 충성의 전위대가 하가 시대의 한복판으로 용용히 굽이치고있다.

나는 남포갑문건설을 취재하는 과정에 이런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

당이 준 하나의 숙결, 하나의 의지로 충성의 낮과 밤을 보내는 남포갑문건설장의 전투원들.

참으로 당의 명령지시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안고 천리마에 《80년대속도》를 가한 기세로 우리 당의 빛나는 년대기를 찬란하게 수놓아가고있는 남포갑문건설장은 시각마다 기적이 번개치고 혁신이 파도치는 격전장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취재수첩을 펼쳐든 나의 가슴은 뜨거운 감회에 젖어들었다.

1981년 5월 22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날바다길을 헤치시며 갑문을 일떠세울 터전을 몸소 잡아주시고 남포갑문건설의 착공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날부터 불과 3년동안에 피도와 끝살뿌리사이의 날바다 가운데는 2000여미터의 가물막이언제가 일떠섰다. 그것도 이전 경험으로보면 7년은 걸려야 할 과제를 첫 철배를 가라앉힌 때로부터 1년 8개월만에 끝내지 않았던가.

령남리에서 피도를 향해 육박하는 흙언제가 완공될 날도 눈앞에 두고있다.

어찌 그뿐이라!

바다기슭에 있던 《고층아파트》 대형함부재들이 련이어 바다로 옮겨지고 자체의 힘, 자체의 기술로 건조된 자동하차부림선이 우람찬 동체를 번뜩이

며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우리 당력사에 충성의 년륜을 새겨가는 돌격대원들의 투쟁모습속에는 가물막이전투에 나선 잠수공들도 보였다.

가물막이전투장에서 예상외의 위급한 정황이 조성되었을 때의 일이었다.

수천톤의 중량을 헤아리는 대형철배 하나가 바다밑의 둔덕진곳에 올라앉아 허리가 끊어질 위험이 조성되었다. 배의 량쪽이 점점 버그러지며 내려갔기 시작하였다.

분과 초를 다투어 고임돌을 쌓아 파괴적인 현상을 막지 못하면 배는 갈라져 파구가 형성될것이며 그때에는 간고하게 쌓아가는 언제에 돌이킬수 없는 후과가 미칠것이었다.

위급한 정황을 막아나서야 할 임무가 바로 잠수공들앞에 나섰다.

배의 허리가 어느 순간에 끊어져 내려앉을지 모르는 바다밑으로 기여들어가 돌을 쌓는다는것은 희생을 각오해야만 했다.

대렬앞에선 지휘관도 선뜻 명령을 내리기 저어하였다.

바로 이때 나 어린 젊은 병사-잠수공이 대렬앞에 나섰다.

《제가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잠수공들이 너도나도 대렬앞에 나섰다.

《전투명령을 어서 내려주십시오. 당앞에 맹세한 시각이 다가옵니다.》

심장의 벽을 두드리는 목소리였다.

《웁소.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을 두려워한적이 있소.》

지휘관도 자기 임무를 대리인에게 넘기고 잠수공들과 함께 바다속으로 뛰어들었다.

결사전이 시작되었다.

...

당이 준 심장 하나이기에

맹세도 오직 하나

...

방송차에서 힘찬 노래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배의 밑창과 바다밑 사이가 1.7미터이던것이 점점 배허리가 버그러지며 0.7미터밖에 남지 않은 아슬아슬한 바다밑 공간으로 돌을 안고 들어가고 또 들어갔다.

나는 그 순간 무비의 헌신성과 희생성의 화신들

을 보는 심정이였다.

그들의 전투보고를 기다리는 숨막히는 그 한초한 초가 나에게는 한시간 맞잡이로 여겨졌다.

이때 내옆에 서있던 한 일군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였다.

《우리 잠수공들은 꼭 해낼것입니다. 원래 수심30미터에서 이렇게 어려운 잠수작업을 하자면 5~6년의 잠수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동무들은 당의 명령지시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안고 불과 6개월을 훈련하고 잠수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갑판우에 벗어놓은 잠수공들의 옷이 파도의 물보라에 젖을것 같아 한켠으로 옮겨놓았다.

그런데 단추가 벗겨진 군복웃주머니에서 자그마한 수첩이 떨어졌다. 나는 부지중 그 수첩을 집어들었다.

거기에는 소박한 이런 글이 적혀있었다.

X월 XX일

…나는 오늘 난생처음으로 잠수복을 입고 바다밑에 들어갔다.

바다밑은 온통 감탕물이 소용돌이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믐밤이였다. 그러나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입대하던날 당의 참된 전사가 되라고 당부하던 교향의 부모들의 눈길이 나를 지켜보는것만 같았다.

아니 우리 당의 권위를 안고 일떠서는 남포갑문 건설장에 쏠린 온 세상의 눈길이 지켜본다고 생각했기때문이다.

X월 XX밤

래일은 XX미터의 바다밑에서 제일 어려운 잠수작업을 하게 된다.

나는 래일 리수복영웅이 육탄이 되어 적의 화점을 막던 그 정신으로 돌파구를 열겠다.

나도 리수복영웅처럼 19살의 사로청원이다.

준엄한 시절에 당과 수령을 위하여 돌도 없는 목숨을 바친 리수복영웅처럼 살며 싸우겠다.

수첩을 펼쳐든 나의 가슴속엔 뜨거운 격량이 솟구치는것 같았다.

알고보니 그 수첩은 맨션참으로 대렬앞에 나섰던 젊은 병사의것이였다. 이어 배우에서 환성이 터져올랐다. 바다밑에서 전투를 성과적으로 끝냈다는 보고가 올라왔던것이다.

이어 잠수공들이 바다위로 불쑥불쑥 솟아올랐다

나는 그들을 배우로 손잡아 이끌어올리기도 하고 잠수복을 벗는 일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아직 숨털도 채가지지 않은 애젊은 잠수공들이였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는 결사전에 맨션참으로 나섰던 젊은 병사에게 다가가 정말 수고했다고, 큰일을 했다고 거듭 진심에 넘쳐 말했다.

그러자 그는 레사롭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남포갑문건설자들에게 대를 두고 전해도 다전하지 못할 은정깊은 사랑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한일보다 받아안은 영예가 이처럼 크고 뜨거운데 어떻게 우리가 당과 수령의 명령관철에서 물불을 헤아리겠습니까.》

바로 이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얼마전에도 또다시 언제까지 나오시여 건설자들의 수고를 헤아리시고 또다시 기계화의 대군단을 보내주시였으며 모두가 영웅이라고 치하하시면서 국가수훈의 높은 영예까지 안겨주시지 않았던가.

그날의 영광, 그날의 감격을 언제나 가슴 뿌듯이 느끼며 전투원들은 이렇듯 영웅적인 소행도 레사로운 일로 맞고보내는것이다.

나의 머리에는 섬광처럼 번뜩이는 생각이 있었다. 애젊은 잠수공들이 받들어올린것은 다만 철배만이 아니였다. 그것은 력사에 없는 거창한 규모의 갑문건설을 온 세계에 선포하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우리는 인민군군인들의 충성심을 믿고 남포갑문을 건설한다고 하신 크나큰 믿음과 평도적권위를 받들어올린것이였다.

그 어떤 역경과 시련속에서도 우리 당을 충성으로 받들어가는 전사의 드팀없는 신념이 기둥이 되고 고임돌이 되어 버그려져 내려앉던 수천톤의 철배를 받들어올렸고 그것이 드팀없는 기초가 되어 오늘 날바다 한가운데 온 세상에 그 위용을 펼치는 언젠가 솟아나고있다.

바로 그것은 우리 혁명의 려명이 밝아오던 1920년대에 조선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받들어 옹위하던 그자세 그대로였다. 바로 그 젊은 병사-잠수공들의 부모들이 그러했다.

불구름 타래치던 전화의 나날, 원썬들의 폭격에 포진지의 동발목이 꺾어져 내릴 때 그들은 자기의 어깨를 들이밀고 포를 구원하였으며 단 한순간도 멸적의 포성을 멈추지 않았다.

전후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그 시절, 그들은 1만톤의 강재만 더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고 하신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12만톤의 강재를 뽑아 안팎의 원썬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당을 건결히 받들어 보위하였다. 바로 김철과 황철이 그렇게 일떠섰고 우리 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그렇게 일떠섰다. 나는 뜨거워오르는 마음속에 이렇게 되새겼다.

이끼오른 성벽을 받들어올린 성돌은 세월의 비바람속에 풍화될수 있어도 우리 당을 받든 충성의 고임돌은 영원히 변함을 모를것이라고…

줄기찬 발걸음

리기창

사람들은 누구나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며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일해나가는 자신들의 발걸음을 두고 저으기 만족을 느끼는 법이다. 그것은 혁명의 한길, 인생의 로정을 쉽없이 힘찬 정보로 주름잡아 걸고있다는 남다른 긍지감때문이라.

하기에 정보로 걷는다는 말은 흔히 자기 임무를 어김없이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들의 드림없는 발걸음에 대한 대명사로 쓰이기도 하는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정보》로 라는 대명사로 비유하기에는 너무도 엄청난 발걸음의 주인공들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새해의 벽두에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0차전원회의 결정을 성과적으로 관철하는 길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돌파구를 활짝 열어 제끼며 천리마에 《80년대속도》를 가한 기세로 전진하고있는 검덕광업종합기업소를 찾아갔을때였다.

새로운 대고조의 돌파구로 정해진 검덕지구는 충성의 불도가니로 들끓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산의 첫공정인 채취공업이 앞서나가야 다른 모든 공업부문들도 빨리 발전할수 있습니다.》

그날 4.5갱선전실에서는 심부채굴장을 마련하기 위한 굴진소대들간의 굴뚝기경쟁 10일총화와 함께 우승자들에 대한 축하모임이 벌어졌다.

광산적인 화력은 수십만톤의 고품위광물을 캐내게 될 4.5갱과 7.1갱의 심부채굴장을 마련하는데 집중되었으며 여기에 역량있는 대부분의 굴진소대들이 동원되어 치열한 경쟁을 벌리고있었다.

10일간 경쟁의 첫 자리는 기업소적으로 이름 높은 3대혁명붉은기 고속도굴진소대가 차지하였다.

도예술단에서 신년맞이 경제선동을 온 배우동무들이 그들의 가슴마다 축하의 꽃다발을 아름아름 안겨주고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였다.

너성가수의 독창이 끝났을 때 객석에서 다부진 체구의 중년남자가 받았던 꽃다발을 다시 들고 무대를 향하여 뛰어나가는것이였다.

내곁에 앉은 부갱장동무가 이번 총화에서 1등의 영예를 쟁취한 고속도굴진소대장동무라고 귀엽해 주는것이였다.

지하전길막장에서 앞벽을 밀며 일해온 굴뚝기공답게 네모진 얼굴에는 철빛이 돌았다. 소대장동무

는 너가수에게 꽃다발을 덥석 안겨주더니 쇠소리가 나는 음성으로 결의를 다지는것이였다.

《우리 소대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0차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새로운 대고조의 돌파구에 저희들을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굴진속도를 더 높여 월말까지 현재보다 2배의 굴길을 더 밀 결심입니다!》

순간 장내에서는 우렁찬 박수갈채가 터져올랐다.

뒤이어 배우동무들이 다시 달려나와 꽃목걸이를 걸어주는가 하면 공무직장동무들이 새로 창안한 만능소공구를 안고 올라가 소대장에게 안겨주는것이였다. 소대장동무는 축하의 꽃보라와 박수갈채를 누비며 결의도 드높이 객석으로 내려왔다. 박수는 그칠줄 몰랐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곁에 앉은 부갱장동무는 박수칠 생각마저 잊은듯 수첩에다 무슨 수자를 계산해 보는것이 아닌가.

너무나 아름다운 목표를 결의했기때문에 못미더워서 속구구를 해보는것일가?

이윽고 나의 의문이 실린 눈길을 감축한 부갱장동무는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정말 날을 따라 가속도라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호기심에 이끌린 나는 이렇게 물었다. 그러자 부갱장동무는 수첩에 썩인 계산수치를 보이며 대답했다.

《저 동무들은 전달에 비해 또다시 7미터를 더 밀 결심입니다. 저렇게 달마다 자기들 스스로 굴진도표를 부단히 높이 올려세우고 돌파하군하지요!》

《...?!》

그의 뜻하지 않은 말에 가슴노리가 몽클해졌다.

맡겨진 계획수행에도 만족을 모르고 달마다 더 높이 치달아오르는 사람들!

나는 그 순간 새로운 대고조의 선코에서 달리고있는 검덕사람들의 힘찬 걸음새를 가늠할수 있을것 같은 커다란 충격을 느꼈다. 그리하여 나는 모임이 끝나자 소대장동무를 취재하자고 찾았으나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내가 사람들의 물결을 헤치며 두리번거리는데 부갱장동무가 다가왔다.

《소대장동문 방금 받았던 그 축하의 꽃다발이랑 만능소공구를 오늘 모임에 못참가하고 일하는 저녁교대동무들에게 안겨주겠다구 막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소행을 통해서도 소대장동무의 남다른 뜨거운 마음의 갈피를 새롭게 엿볼수 있는것 같았다.

나는 부갱장동무에게 그들이 일하는 모습도 직접 볼겸해서 막장으로 따라 들어가겠노라고 했다. 그러자 부갱장동무는 자기도 막장을 돌아볼참이었는데 함께 들어가자고 선뜻 앞서는것이였다.

이윽고 우리가 불밝은 사랑의 인차에 올라앉았을 때 부갱장동무는 나에게 소대장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소대장동무는 천리마 대진군의 첫걸음을 떠던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1956년 12월전원회의결정에 접하자 제대배낭을 멘채 검덕으로 달려와 착암기를 틀어잡았던것이다.

그때로부터 몇년후인 4월의 봄날, 그는 지하천길 막장에서 뜻밖에도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는 영광을 지녔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굴진공들의 험한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고 동무들은 인민경제의 첫 돌파구를 열어가는데 지하의 척후병들이니만큼 언제나 진군의 앞장에 서서 남보다 더 빨리 줄기찬 큰 걸음으로 나아가야 한다시며 친히 굴진을 앞세울 방도까지 찾아주시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직 굴진공들의 걸음을 떠밀어주지 못한채 갱박 난장에서 김빠지게 용트림을 하던 압축기들을 끝없이 전진하는 굴진공들의 뒤를 따라 갱안깊이로 옮길데 대한 독창적인 방도를 밝혀주시으로써 고속도굴진의 줄기찬 첫걸음을 떼어주시였다.

그날부터 그들은 날에 날마다 새 기준량을 끊임없이 창조하여 더 높은 언덕으로 치달아오르기 시작하였던것이다.

그러기에 지난날 일부 전문가들이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물젖은 《탐사자막대기》를 짚어가며 검덕에 광물매장량이 밀창났다고 《선언》했을 때에도 추호도 드팀없이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떼여주신 그 걸음으로 막아서는 침철압벽을 밀어제끼며 지심깊이 더 뚫고내려가 억만보화의 무진장한 광맥을 찾아냈던것이며 한때 종파분자들이 경제규모장성에 비례한 생산장성속도의 감퇴설을 운운하면서 검덕의 광물생산계획량을 낮추려고 했을 때에도 그들은 고속도굴진의 세찬불길로 광물생산에서 전례없는 대비약을 일으킴으로써 당의 로선과 방침을 견결히 옹호관철하였던것이다.

이렇게 계속 전진 계속 혁신의 한길을 주름잡아 줄기차게 진군하던 그들은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옵던 영광의 그 지하천길막장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뵈옵는 감격에 접했던것이다.

그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들이 드팀없이 걸어온 충성의 자욱을 더듬어보시듯 끝없이 뻗어간 갱도를 이윽도록 바라보시면서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순간의 담보도 없이 3대혁명의 앞장에 서서 전진할데 대한 크나큰 신임을 안겨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굴뚝기를 더 힘있게 다그치게 할수 있도록

채굴설비의 고속도화 현대화, 대형화를 실현하여 장거리 벨트콘베아, 관수송, 대형광차, 착암대차, 이적기를 비롯한 최신형의 채굴운광설비들을 마련해주시고 그들에게 비행사와 같은 특혜를 베풀어주심으로써 오늘은 《80년대속도》 창조의 선두에 세워주신것이다.

이렇듯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떼주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끌어주시는 천리마에 《80년대속도》를 가한 발걸음으로 비약의 나날을 주름잡아 달려온것이였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던 부갱장동무는 차창밖으로 끝없이 흐르는 갱도를 감회깊은 눈길로 바라보며 한마디 보태는것이였다.

《마치 이 끝없는 굴길이 그 동무들이 드팀없이 걸어온 충성의 도표나 다름없지요…》

그의 시를 읊듯하는 목소리에 나는 더욱 깊어지는 굴길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참으로 여기 지하천 척속에도 그늘없이 비쳐준 사랑의 해빛, 은성의 별빛을 전조등처럼 밝히며 걸음걸음 뚫고간 충성의 지름길인가! 나는 뜨거워지는 가슴의 파동을 금할수 없었다. 어서 빨리 그들의 미더운 모습을 보고싶은 욕망뿐이였다.

우리는 인차로 몇십분 달린후에 다시 승강기를 바꾸어타고 지심깊이로 내려갔다. 아마 몇백미터는 더 내려가는듯싶었다. 승강기에서 내려서도 다시 한참이나 걸어갔다.

이처럼 깊은 굴길을 그들이 걸음걸음 뚫고왔으리라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다.

광석을 가득가득 실은 대형광차들이 줄지어 흘러나오고있었다.

얼마를 걸어가자 착암기소리가 지심을 흔들었다. 어느덧 우리 눈앞에는 환한 간데라불빛속에 착암대차로 앞벽을 뚫고있는 굴진공들의 역센 모습이 우뚝이 안겨왔다. 바로 내가 찾던 소대장동무가 착암공들에게 자기가 받았던 꽃다발과 만능소공구주머니를 안겨주며 무엇인가 열렬히 호소하고있었다.

아마 방금전 축하모임에서 다진 결의를 전하고있으리라…

앞벽에 걸린 한장의 이동속보가 시야에 안겨든다.

《새해에 더 높은 새 기록, 새 기준을 !》

나는 굴밭속에서 그들의 심장속에 불타는 지향을 뜨겁게 읽을수 있었다.

부갱장동무가 그한테 다가가더니 나를 소개해주었다.

소대장동무는 나를 보자, 어줍게 웃으며 인사했다.

《작가동무의 글감이 될만한 일을 아직 해놓지 못했는걸요…》

《뭘요. 방금 소대장동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날마다 굴진속도를 높여왔는지요 ?》

내가 어떻게 물었을 때 그는 한동안 생각하더니 저력있는 음성으로 입을 여는것이였다.

《참말이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믿음과 사랑은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더욱 높아만가는데 인민경제의 돌파구를 열어가는 우리의 진군속도가 언제나 오늘이나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당에 올리는 어제의 충성의 보고수자가 오늘 다시 그대로 반복될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떼주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걸음으로 전진한다면 아무리 우리앞에 사나운 석수와 굳은 암벽이 막아선다 해도 우리의 걸음속도를 늦출수 없다고봅니다!》 그의 열찬 대답은 나의 가슴을 다시한번 뜨겁게 울려주었다.

바로 이것이 순간의 담보도 모르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줄기차게 치달아오르는 굴진공들의 힘찬 발걸음의 추동력이 아닌가!

우리는 150만톤유색고지점령에서 자기들이 언제나 혁신의 선구자가 되어 날마다 새 기준 새 기록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겠다는 불같은 결의를 듣고 그들과 헤어져 막장을 떠났다.

깡도를 걸어나오는 나의 가슴은 그들에게 받아안은 뜨거운 충격으로 하여 세차게 뒤설레였다.

얼마를 지나서 드센 발파소리가 지심깊이에서 터져올랐다.

《벌써 한발과 해제끼는군!》

부갱장동무가 흐뭇한 웃음을 머금고 중얼거렸다. 발파소리는 한동안이나 계속 지심을 뒤흔드는 것이었다.

순간 나에게는 그 발파소리가 마치 《담보》나 《정보》로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혁신과 기적을 창조하며 천리마에 《80년대속도》를 가한 기세로 억세게 전진하는 굴진공들의 줄기찬 발구름소리처럼 들리는 것이었다.

바로 그 발걸음으로 새해에도 당이 제시한 고지우에 남먼저 오르리라!

사랑의 노래 외 1 편

김봉운

나는 사랑한다네
낭끝에 피여웃는 연분홍색 진달래
조잘조잘 속삭이며 흐르는 개울물
버들꽃 향긋한 산촌의 봄을

나는 사랑한다네
아지랑이 피는 봄하늘의 종달새
뜨락또르 기름진 땅을 갈아
씨뿌리며 흥성이는 전야의 봄을

아!봄!
소생하는 봄계절은 다시 오건만
그 누가 말했더냐
두번다시 못오는것 인생의 봄이라고

마음도 생각도
찬란한 미래도
당의 뜻 받들어 피여 웃는
내 마음은 언제나 한계절
봄 꽃피는 봄계절만 찾아와

폭풍속에
불길속에
소중한 청춘의 삶이
순간에 진들 어떠랴

나는 더없이 사랑한다네
변함없이 드림없이
혁명의 한길우에 피여웃는
영생의 봄을.

절벽가의 소나무

치솟은 봉우리 둘러짚고
절벽가에 뿌리내린 소나무

어린시절 그때에도 푸르싱싱
반백넴은 오늘봐도 푸르청청

세월의 모진풍상 다 이기고
굽힐줄 모르는 너의 기상

볼수록 이 가슴 후더워져라

나도 너처럼 억세게 살고저

낭끝에 솟은 한그루의 소나무
뿌리만은 조국의 자양을 빨고있으려니

아, 나는 당의 품에 안겨
그 젖줄기를 빨며 사는 아들

살아도 죽어도 내 녀은
언제나 너처럼 푸르리.

송 가

림재성

서진규는 오랜 생각끝에 그 처녀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하고 붓을 들었다.

이것이 동무에게 보내는 나의 마지막 편지일수 있다.

송아지가 풀을 뜯으며 엄마-하고 우는 고향땅에서 어린 동요시절의 꿈을 함께 키우던 먼 그때로부터 대학의 창밖은 강당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머나먼 고향의 향취를 가슴뿌듯이 안겨주는 대동강유보도의 저녁 산보길에서 동무와 나의 우정은 깊어갔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것은 한낱 운명의 희롱에 불과했다. 우리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마도 남들처럼 훌륭한 시설이 갖추어진 중앙병원이 아니라 바람소리를 벗삼아 사는 한적한 진료소에 만족해하는 나를 리상이 낮고 생활에 대한 요구가 높지 못한것으로 생각하는 동무의 물리해로부터 시작됐을것이다.

하긴 나도 처음에는 동무처럼 그렇게 생각했다.

하여 나를 이 궁벽한 벽촌으로 파견하는 일군을 보고 〈사람들 모욕하지 말라〉고 삿대질을 했다. 많은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자신을 〈그 어떤 수난자〉처럼 생각하는 날들에는 레외없이 동무에 대한 생각으로 뜬눈으로 밤을 밝혔다. 그랬으나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던가 하는것을 생활이 나에게 가르쳐주었다. 나의 그릇된 생각을 깨우쳐준 생활의 한토막을 아래에 적는다.

나는 그해 마지막 날도 하늘아래 첫동네인 청산골의 작은 진료소창가에 앉아 동무를 생각하였다.

함박눈이 펄펄 내리는 그믐밤이었다. 바람이 잦으니 주위는 천길나락속처럼 피피하다. 인가라고는 고개 하나를 넘고 남으로 15리 떨어진곳에 있는 간이역의 두 집과 북으로 10리 들어가 텔레비존중계소 감시원네 집이 한채, 그리고 매년에 준의가 되는 간호원의 집까지 해서 모두 네채뿐이니 청산골에서는 개짖는 소리조차 듣기 힘들었다.

나는 이때처럼 자신을 불행한 사람으로 생각해본 적은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대학에서 나의 평가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공부는 한번도 첫자리를 양보해보지 않았다. 게다가 우리 학부에서 손꼽히는 손풍금수였던 나는 언제나 떠들썩한 벼들의 사랑에 떠받들려 살았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적막한 초소가 차려졌는지 알수 없었다. 생각할수록 자기가 나서자란 교장이 그리웠고 안타까웠다. 나

는 마침내 이교장을 뜨기로 결심했다. 이제 사흘만 지나 약국으로 약품을 가지러간 영옥이가 돌아오면 그에게 진료소를 맡기고 군당에 찾아가리라.

밖에서는 함박눈이 펄펄 쏟아진다.

참으로 많은것을 생각해 하고 꿈을 꾸게 하는 밤이었다. 도사에서 나서자란 나는 세밀의 밤이 이렇게도 조용하다는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매해 이 밤을 얼마나 큰 흥분과 감격속에서 보냈던가. 허지만 벽촌의 이 밤은 노래도 없고 웃음도 없다. 오직 끝없이 꿈꿀 자유가 있었으니 그 꿈은 이미 기억에서 지워져버린 가지가지 생활들을 자그마한것까지 그리워지게 할뿐이다.

내가 이역의 풍경과도 같은 낯설은 적막한 실경을 바라보며 동무를 얼마나 그리워했겠는지는 짐작도 할수 없을것이다. 박씨같이 고르로운 흰 이를 드러내며 소녀처럼 소리없이 웃는 표정으로부터 미세한 몸동작에 이르기까지 동무의 모든것이 나에게서 귀중한것이였다.

(에이참, 갑갑하다구야.)

나는 벽에 걸어놓은 일력장을 단꺼번에 석장 뜰 때 시뻘겅게 단 난로안에 집어넣고싶었다.

나는 피피한 이 밤의 고요를 더는 참아낼수가 없어 년하장을 꺼내놓았다. 그 년하장이 결코 나보다 먼저 동무의 품에 안기지 못하리라는것을 모르는바가 아니였지만 쓰지 않고는 견딜수 없는 심정이였다.

내가 피끓는 심장의 호소와 열이 스며있는 신랄한 표현들을 골라가면서 한자한자 새겨넣고있을때였다. 돌연 대문을 쿵쿵 두들겨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무의식중에 한번 진저리를 치고나서 엉거주춤 일어났다. 유리문에 두텁게 얼어붙은 성에를 한끝 긁어내고 밖을 내다보니 노루가죽 덧걸이를 입고 머리에도 역시 그러루한 털로 만든 큼직한 병거지를 눈두덩까지 폭 눌러쓴 늙은이가 한손에는 팽술불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힘껏 대문을 두들겨대고있었다. 나는 얼른 달려나가 대문의 빗장을 벗겨주었다.

눈을 잔뜩 뒤집어쓴 사람이 나를 떠박지르듯하며 급하게 들어왔다. 낯선 그는 팽대뼈가 두드러지고 입이 일직선으로 찌졌으며 시꺼먼 눈썹이 역시 그렇게 뻗어 마주 잇닿은것 같은 장대한 늙은이였다.

《무슨 일때문에 오셨습니까?》

나는 직업적인 타성으로 로인의 얼굴표정을 살피며 물었다.

《젊은이는 누구예요?》

로인은 말은 나에게 붙이면서도 눈길은 줄곧 간막이 저쪽의 작은 처치실을 더듬고있었다. 영육이를 찾는모양이다. 나는 그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간호원은 사흘후에야 돌아온다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었다.

《그러니까 젊은이는 새로 온 선상이란말이웬까?》

병거지를 벗어 탁탁 털던 로인의 손이 굳어졌다. 내가 그렇다고 대답하니 로인은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잠시 망설이다가 인사도 없이 돌아서고말았다. 무엇때문에 왔느냐고 물어볼 사이조차 없었다. 나는 로인이 나간 출입문을 멍청하니 바라보다가 한 잠만에야 정신이 펴져 들어 문을 걸어차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눈오는 깊은 밤에 사연없이 진료소에 찾아오지 않았을것이다. 더우기 늙은이의 표정은 어젠가 심상치 않은데가 있었던것이다.

《여보슈-》

하고 나는 어리짐작으로 로인이 갇음직한 정거장쪽에 대고 소리쳐불렀다.

눈은 이미 멎고 검푸른 하늘우에 달이 솟아오르는 했으나 바람질이 시작되어 내 목소리가 멀리가지 못했다. 나는 몇걸음 앞으로 내달리며 또 소리쳤다. 그런데 뜻밖에도 정거장과는 정반대쪽에서 석식한 목소리가 응답해왔다. 나는 돌파서 소리난쪽을 향하여 내달렸다. 진료소 앞으로 흐르는 자그마한 내 저쪽에서 시꺼먼 사람의 형체가 얼른거렸다. 나는 로인과 내가에서 마주쳤다.

《로인님, 진료소에 찾아올적에는 무슨 사연이 있었겠는데...》

나는 숨찬 소리로 역시 못미더운 눈초리로 흘겨보는 로인에게 물었다. 이때 나의 솔직한 심정을 말한다면 이름모를 한 늙은이에게서 무시당한것으로 하여 심한 모욕감도 느꼈던것만은 사실이었다.

《실은 머느리에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기에...》

로인은 언 입을 간신히 놀리며 떠듬거렸다. 알고보니 초산을 겪는 머느리가 초저녁부터 배가 아프다고 드러누웠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징조가 좋지 않다는것이다.

《군병원에서 입원하라고 여러번 재촉이 있었는데 안손이 없는 집안걱정에 차일피일하다가 그만... 어이구 이 늙은게 주책없이...》

그러니 일은 뻔했다. 아무리 산모가 급한들 학생같은 애송이에게 해산방조를 청할수야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것이다. 나는 자존심이 상하는것을 억지로 참았다. 비록 내파의기는 하지만 해산방조쯤은

우습게 알고있던 나였다. 나는 자신있게 말했다.

《갑시다...아니, 로인님 잠깐만...》

나는 로인을 얼어붙은 내가에 세워놓고 황급히 진료소로 달려들어가 왕진준비를 서둘렀다. 나는 그때 무슨 타산이 있거나 자신심이 있는것은 아니었다. 오직 고통을 받고있는 산모와 미구하여 태어날 새 생명이 걱정되었고 나의 자그마한 힘으로나마 그들을 도와야겠다는 도의감이 있었을뿐이었다. ...

진규는 만년필을 놓고 편지를 끝맺지 못한채 바람안에 걸어넣었다. 출입문밖에서 인기척이 났던것이다.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뜻밖에도 텔레비존 중계소의 녀성기계공이었다. 그의 품안에는 꽃포대에 싸인 갓난애기가 있었다.

《어이구, 이녀석 좀 안아봅시다.》

진규는 반가움이 앞서 두팔을 앞으로 내뻗치었다. 녀인은 귀밀을 살짝 붉히며 그에게 애기를 내어맡겼다. 젖살이 올라 포동포동해진 얼굴이며 영채가 오롱초롱한 검은 눈동자... 이 없는 입을 짹벌리고 발버둥치는 갓난애기를 바라보는 진규는 얼굴이 환해졌다. 이런 때 그의 머리속에서는 온갖 잡념과 범속한 생각들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오직 뜨거운 인간애와 조국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만이 태동하는것이였다.

《아이가 어떻습니까?》

진규는 행복한 미소를 그리며 자기 애기를 내려다보는 젊은 녀인에게 물었다.

《아이는 탈없이 잘 자랍니다. 젖도 잘 빨고요.》

《그런데 어째...?》

《저... 시아버님이 선생님을 모셔오라기에...》

녀인은 또 귀밀이 발기우리해진다.

《나를말입니까?》

진규는 영문을 알수 없었다.

《오늘이 우리 일남이 백날입니다. 차린건 없지만 식사나 한끼 나누었으면 해요.》

(하, 내 정신 좀 보지.)

진규는 이마를 탁 쳤다. 간밤 늦도록 이 진료소에 앉아있으면서 세상살이를 엮다가 돌아간 늙은이의 청이 생각났다.

《모두들 기다리고있습니다.》

녀인은 진규가 일어나기전에는 자리를 뜰것 같지 않았다. 마침 점심참이었다.

《갑시다.》

진규는 선선히 응낙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부신 태양이 좁은 청산골을 비쳐주고있었다. 구름 한점 볼수 없이 맑게 개인 훌륭한 날씨였다. 해발고가 천을 넘는 고산지대라 아직은 음달진곳에 희끗희끗한 눈무지가 보이지만 내가에는 버들개지가 빨갛게 피어났다, 자연의 톨조란 어길수 없는것

이어서 준엄한 계절을 이겨낸 이 북방고원지대에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진규는 머리가 휘어-내 돌리도록 신선한 대기를 가슴가득 들이키고 녀인의 뒤를 따라 징검다리를 건넜다. 푸른 숲에 가리워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굴뚝 한끝만 보이는 이 청산골에 첫 기둥을 박은 로인의 집도 전에없이 반가웠다.

조찰떡에 산골을 받쳐 배불리 점심을 대접받은 진규는 진료소로 돌아오자 쓰던 편지를 다시 펼쳐 놓았다. 늙은이의 후한 대접을 받고나니 편지를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불같이 일어났던 것이다.

나는 눈무지에 빠지기도 하면서 늙은이의 뒤를 허둥지둥 쫓아갔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귀틀집의 빨간 불빛이 저만큼 보이는데도 집안밖이 쥐죽은듯 조용한것이였다.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덜컥 무너져내렸다. 로인도 심상치 않은 기미를 느꼈는지 덤벼치며 내질던 걸음을 우뚝 멈추었다. 나는 달빛을 받아 푸르스름하게 보이던 로인의 얼굴이 꺼멓게 흐려지는것을 보았다. 우리 두사람이 말없이 얼마간 걸었을 때였다. 출입문의 돌쩌귀 늘어나는 소리가 뼈격거리더니 웬 사람이 귀틀집에서 뛰어나왔다.

《거 창식이 아니냐?》

로인이 걸음을 다우치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몹시 갈리고 떨렸다.

《저예요. 아버지-》

저쪽에서 맞받아 웨치며 달려왔다. 우리들은 마당가에서 마주쳤다. 늙은이의 아들이라고 짐작되는 그 청년은 나도 몇번 본일이 있는데 얼굴에서 김이 문문 나는 그때 그의 모상은 전혀 낯선 사람처럼 생소하게 느껴졌다.

《새애기가 좀 어떠냐?》

로인이 아들에게 다우쳐 물었다.

《까무라쳤어유.》

청년의 입에서 단김이 확 뿜어나왔다. 그는 제압당 나의 팔을 부여잡고 집으로 끌었다. 지체없이 뚫린 물에 손을 씻고 녀인을 살피기 시작했다.

가슴이 철렁했다. 비록 산부인과를 전문하지는 않았으나 내 소견으로도 산모가 순산하기 어렵겠다는게 인차 알렸던것이다. 이런 경우는 수술도 각오해야 한다.(어쩐다...?) 나는 망설였다.

두 남정, 녀인의 시아버지와 남편은 먼발치에서 내 얼굴표정만 살피고있었다.

《군병원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녀인에게 주사를 놓고난 나는 두사람에게 지체없이 담가를 준비하도록 일켰다. 한편 나는 눈에 걸리는대로 옷가지들을 벗겨 녀인이 춥지 않도록 껴입혔다. 이 모든 일은 불과 몇분사이에 진행되였다.

일행이 귀틀집을 나서니 수림우를 스치는 바람소

리가 귀를 메게 울려왔다. 노적이 심한 이고장의 날씨란 방금전까지 잠풍하다가도 이렇게 변덕을 부리면 좀체로 견잡지 못하는것이다.

로인은 이마우에 손채양을 해붙이고 별들이 하나둘 숨어버리는 저쪽 룡두봉쪽을 불안스레 살폈다.

《허- 날씨가 망녕을 부리는군.》

가뜩이나 어두워보이던 늙은이의 얼굴이 확 뒤덮은 구름때문에 더욱 컴컴하게 보였다. 그의 우려는 무근거한것이 아니였다. 일행이 집을 떠나 불과 두마장길도 축내지 못했을 때 우려하던 눈보라가 터지고야말았다.

참으로 청산골의 눈보라는 지독스러웠다. 10리 밖에 있는 청산의 주봉인 룡두봉에서 협착한 이골을 향하여 곧추 내리꽂히는 바람이 우-우-하고 기승을 부리면 해종일 내려쌓인 눈들이 태를치는 바람에 휘말려 공중으로 치솟아올랐다. 눈보라를 일으키는 세찬 바람이 털모자의 귀덜개를 잡아채고 옷자락을 물어뜯으며 웅덩이에 태를 칠듯 앞뒤좌우로 휘둘러놓았다. 골은 바람소리로 하여 귀가 멍멍하고 한치앞을 내다보기 어려웠다. 그 눈보라속을 뚫고 한발자욱 한발자욱 힘들게 걸어들어갔다. 때때로 허리를 치게 쌓인 눈무지에 빠지는 바람에 담가가 뒤집힐것처럼 비칠거렸다.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했다. 다리가 뻣뻣해오고 숨이 턱에 닿았다. 그러나 숨을 돌릴새가 없었다. 이제 20분후이면 간이역을 통과하는 마지막 렬차가 지나간다. 그 렬차를 놓치면 래일아침 9시에 지나가는 완행렬차를 리용해야 한다. 그것은 안될 일이다. 경각에 달린 산모를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침까지 기다리게 할수는 없는것이다.

《빨리... 좀 더 빨리 !》

그래도 늙은이는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일없쇄다만 선상님은...》

하고 말꼬리를 흐리는 늙은이는 미안하고 죄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심정이 리해는 되면서도 아직도 나를 책상물림의 애승이로 여기는것이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우정화를 내는척 했다.

《내가 어쨌다는겁니까?!》

《눈보라가 쉬이 잦아들것 같지 않쇄다.》

《걱정 마십시오. 내 이래봐두 대학때는 스키신수였습니다... 자아 빨리 !》

나는 늙은이가 멘 담가의 앞채를 떠받들며 련속 재촉했다. 그러나 우려하던 그 일은 마침내 닥쳐오고말았다. 우리가 정거장을 한마장가량 남겨놓고 마지막 힘을 짜내고있을 땐 차창마나 불빛 환한 렬객렬차가 굽인돌이 저쪽에 불쑥 나타났던것이다. 일행은 약속이나 한듯이 흠칫 굳어지고말았다.

나는 전기기관차의 눈부신 전조등의 불빛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렁 무너져내리는것을 느꼈다. 수림을 스치는 바람소리를 벗삼아 시간을 보내는 이 궁벽한 벽촌의 단조로운 생활에서 열차의 기적소리는 고향에 계시는 다심한 어머니의 정다운 목소리였고 강당에서 우정을 나누던 벗들의 뜨거운 애무의 속삭임이었다. 그러나 이 밤만은 그 소리가 어찌서 그렇게도 매정스러웠던지...

방법은 오직 한가지가 있을뿐이다. 이제 한시간 후에 청산역을 통과하는 급행열차를 세워가지고 산모를 후송하는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그 방법은 자신이 없었다. 철도에서 통과하는 열차를 세운다는것은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청산역장은 늙은이 말대로 바늘구멍만한 용수도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이 청산진료소로 배치받아오던 지난 가을의 일이 피땀 떠올랐다.

그때 내가 열차에서 내려 막 개찰구로 나가려는데 웬 사람이 역사 저쪽에서 오라고 손짓을 했다. 키가 크지 않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작달만한편이면서 체격이 단단해보이는 그는 내 손짐을 저울우에 올려놓으라고 명령했다. 나는 그의 정복차림새로 보아 역장이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벌금을 물어야 되겠소.》

그는 별로 성도 내지 않고 범상하게 말했다.

《왜 벌금을 내랍니까?》

내가 물었다.

《동무의 손짐은 규정보다 두키로그람이나 초과합니다.》

《아니, 그까짓 두키로그람을 초과한걸 가지고 벌금을 문단말입니까?》

나는 목덜미까지 새빨개졌다. 무례한 그의 요구가 어처구니없다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고 느꼈던것이다.

《그까짓거라니 ... ?》

역장은 고리가 처지고 흰자위가 더 많아보이는 눈으로 놀랍다는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손님은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뉘키로그람쯤은 에누리해서 반소?》

자아 이런 사람과 얘기를 더 해선 무엇하랴. 나는 그가 요구하는 벌금을 물고는 속으로 연신 《두상태기 두상태기》 하는 갖은 험담을 다 퍼부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있을 때 아버지가 기침을 깃었다.

《선상님 어떻게 할갑쇼?》

로인이 물었다. 나는 그제야 두사람이 담가를 멘채 무릎까지 치는 눈속에 뻗치고 서있다는것을 느끼고 펄쩍 놀랐다.

《갑시다!》

나는 구두쇠같은 역장을 설복할 자신은 없었지만

다르게 할수는 없었다.

진규는 또다시 편지를 끝맺을수 없었다. 출입문이 활짝 열리면서 청산골에 단 한명밖에 없는 처녀인 명옥이가 냉큼 뛰어들어왔던것이다. 순간 진규의 두눈은 놀라움으로 하여 동그랗게 커지고 입에서는 가벼운 탄성이 흘러나왔다. 언제 봐야 두툼한 숨저고리를 입고 자작 뜬 양털목도리로 온머리를 빈틈없이 챙챙 감고 다니던 시골처녀의 모습은 간데없고 파란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도시풍의 옷차림을 한 전혀 새로운 영옥이가 그의 앞에 서있었다.

동백기름내가 물씬 풍기는 함치르르한 머리며 고산지대의 노적 심한 계절풍에 그을은 가무스름한 동그란 얼굴, 봉긋한 젖가슴, 허리를 꼭줄라맨 날씬한 키, 무릎이 보일락말락한 탄력있는 미끈한 두다리... 입을 빙글썽하게 열고 취한듯이 처녀를 바라보는 진규는 흡사 모자라는 사람 같기도 하고 어찌보면 반정신나간 사람 같기도 했다.

그 처녀의 가슴에는 활짝 핀 연분홍진달래가 한 아름 안겨있다.

《아이, 선생님 왜 그렇게 보십니까, 혹시 제옷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처녀는 매무시를 살피며 귀밀을 살짝 붉혔다.

《아... 아니요... 그 옷이 참 꼭... 어울리요.》

진규는 흠칫하며 말더듬이처럼 떠듬거렸다.

《그렇습니까?》

처녀는 방그레 웃더니 다시한번 제 옷차림을 훑어보았다. 웬일인지 두손은 부자연스럽게 뒤로 감추었다.

《선생님, 내가 뭘 가지고왔는가 알아맞혀보세요.》

《글쎄 ...》

진규는 고개를 기웃거렸다. 등뒤로 감춘 처녀의 손이 수상쩍기는 하였으나 짐작이 가지 않았다.

《애태우지 말구 뒤에 감춘 손이나 내보이랴구.》

진규는 처녀쪽으로 한걸음 다가서며 두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글쎄 알아맞추어보시라는데두요.》

처녀는 알곶게 생글생글 웃으며 진규 따라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산비둘기알을 얻어온게 아닌가?》

진규는 언제인가 산비둘기알을 얻어다 깨워 길렀으면 하는 의향을 말한적이 있었다.

처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옳지, 친구들한테서 편지가 왔겠군.》

진규는 통신원이 늘 타고다니는 완행열차의 기적소리가 방금전에 울리던것이 생각났다. 그러나 이번에도 짐작이 맞지 않았다.

《편지는 편진데 맞추지 못했어요.》

처녀는 평양성의 한 고적이 그려진 우표 낙장이 붙은 편지를 내밀었다. 그것은 먼 도시에서 온 진규가 꿈속에서도 잊을수 없는 그 처녀에게서 온 편지였다.

《내가 맞았지요. 오늘쯤은 꼭 편지가 올거라구… 어서 읽으세요. 네.》

처녀가 재촉했다.

진규는 편지를 기다렸었다. 우편통신원이 빈 가방을 메고 올 때에는 진규 자신은 물론 처녀도 안타까와했다. 그러니 편지로 해서 기뻐할 사람은 진규뿐이 아니리라.

진규는 편지봉투를 뜯었다. 그러나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그의 얼굴은 차츰 흐려지기 시작했다.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딸 하나를 기둥처럼 믿고 아까운 청춘을 고스란히 바친 어머니를 버리고 이고장을 떠날수 없는 저를 이해해주세요. 뜨거운 악수를 보내요.》

진규는 영옥이가 지켜보고있다는것도 느끼지 못하고 의자우에 털썩 주저앉고말았다. 하긴 진규가 그 처녀의 마음속동요를 느끼기 시작한것은 여러달째였다. 잦아지는 편지회수에서 그리고 애수를 담은 낙두리와 청원의 글줄들에서 그 처녀의 편안치 못한 마음속이 들여다보였던것이다. 그랬으나 진규는 이 불길한 계시와도 같은 추측을 믿지 않았다. 진규에 대한 그 녀자의 사랑은 그렇듯 다심하고 열정적이었던것이다. 그는 마루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집어들고 다시 읽기 시작했다. 믿으려 하지 않았던 그 모든것이 믿지 않을수 없는 현실로, 생생한 화폭으로 편지지에 펼쳐졌다.

《아이 선생님 왜 그러시나요. 어디가 편치 않은가요?… 혹시 그 녀동무가 앓는가요?》

수심기가 짙게 비긴 영옥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그제야 비로소 악몽에서 깨어난것처럼 정신이 펴쩍 든 진규는 그때까지 손에 쥐고있는 편지를 되는데로 꾸겨 휴지통에 넣었다. 그리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기를 지켜보는 영옥이-아무리 비바람이 사나와도 숙여들지 않으며 동화되지도 않을 순진한 처녀를 점도록 바라보았다.

이날 진규는 여러날째 짹짹이 써오던 편지를 끝맺기로 결심했다.

내가 불빛이 환한 운전실을 겸하는 정거장 사무실에 들어서니 문제의 그 늙스구레한 역장이 폐색기에 붙어 어덴가 전화를 걸고있었다. 보배 반시간 후에 지나가는 급행열차의 길차지수속을 하는것같았다. 나는 고집스럽게 생긴 역장의 뒤통수를 아니꼽게 쏘아보며 그가 송수화기를 놓기를 기다렸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흥정을 하거나 빌붙을것이 아니라 진공적으로 들이대야 한다.

《역장동무, 급행열차를 세워줘야 되겠습니다.》

나는 길차지수속을 끝내고 사령전화기를 집어드는 역장앞을 막아서며 무작정 들이댔다. 역장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멍하니 나를 바라보다가 한발자욱 뒤로 주춤 물러섰다. 참으로 그때 나의 기상은 만만치 않았다기보다는 무서웠다고 해야 옳았을것이다. 달이 뜬 눈에서는 서늘한 기운이 돌았고 숨이 거치른탓에 어깨가 쉬임없이 오르내렸다.

《무슨 생똥같은 소린가, 뭐…뭐 급행열차를 어찌구어째…?》

마침내 정신을 차린 역장이 껍 고함을 질렀다.

《환자가 급합니다.》

《뭐 급행열차가 협동농장의 거름달구지 같은줄 아는가?》

이렇게 두사람은 종이장 한갈피를 사이에 두고 목에 피대를 돈구어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한결음도 양보하지 않고 서로 떡 뺄치고 수닭처럼 맞붙은 우리들은 사령원의 꾸중이 아니었더라면 무슨 창피한 일이 벌여졌겠는지 상상조차 할수 없었다. 그렇게 사태는 엄중했었다.

《운전실에서 떠드는 사람이 누구요?》

사령원이 엄하게 물었다. 역장이 사령전화기를 들어놓은탓에 청산역에서 고아댄 두사람의 목소리가 먼 철도국 사령실에 고스란히 전달되었던것이다.

《허-진료소에 와있는 헛내기의사가…급…급행열차를 세우라는겁니다. 마악 명령…》

역장의 코날개가 두어번 벌름거리더니 마침내 요란한 재채기가 터졌다. 이때라고 생각한 나는 그의 손에서 송수화기를 나구어냈다. 두손으로 송수화기를 꼭 움켜쥐고 손수건으로 코물을 훔쳐내는 역장쪽으로 등을 돌려댔다. 그리고는 마치 매를 피하려는 사람처럼 허리를 꼬부리고 고함을 질렀다.

《사령원동지도 어머니가 있었기에 이 세상에 태어났겠지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말이다. 레스링선수처럼 단단하게 생긴 그 산골역장이 덤벼든다면 영악없이 송수화기를 빼앗길것 같아 단마디로 사연을 말한다는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 그런 말이 튀어나온것이다. 그러나 놀랄줄 알았던 열차사령원은 오히려 찔찔 웃으며 덤비지 말고 천천히 말하라고 했다. 그제야 숨구멍이 확 열리는것 같았다. 나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러나 그때 무슨 말을 했던지는 생각나지 않는다. 그저 《산모》나 《위급》이니 하는 낱말들이 수없이 반복되었다는것만 기억된다.

《아니, 동무…!》

역장이 벼락같이 덤벼들어 송수화기를 잡아빼앗는바람에 내 말은 몽청 허리가 끊어지고말았다.

《어째 그 얘기를 이제사 하는가!》

역장이 어찌나 성이 났던지 턱이 떨어진것처럼 실룩거렸다.

《아니, 그건…저… 동지…》

나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다. 사실 역장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산모가 지금 어디 있소?》

역장이 재차 물었다.

《저 … 대합실에 …》

《멍텅구리, 바보…!》

역장은 나를 밀어제치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새 철도부 담당사령원에서 급행열차를 세울데 대한 승인을 받은 철도국사령원이 종합호출기로 관계역장들을 불러내는 소리가 수화기를 통하여 간신히 들려왔다.

《지금 청산역에 생명이 위급한 산모가 있다. 산모와 새로 태어날 어린 생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제3급행열차를 청산역에 1분간 세울것. 삼수역에서는 군병원에 연락하여 구급차를 역전에 대기시킬것. 청산역장은…》

나는 그다음 말을 듣지 못했다. 눈앞에서 분주히 돌아치는 역장의 작달막한 모습이 뿌연 안개의 장막속에서 얼른거렸다. 나는 울면서도 그것을 조금도 느끼지 못했다. 부끄럽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청산역장파위는 우습게 알고 기만하게 통과만 하던 급행열차가 한 산모를 위하여 공손하게 벗어나게 되었다.

나는 맞다든 첫 객차에 산모를 태웠다. 되도록 짧은 시간에 열차를 타자니 침대차까지 찾아갈수가 없었다. 그러나 열차가 떠나자 산모에게는 뜻하지 않은 정황이 새로 생겼다. 객차가 흔들거리는 바람에 주사기운에 잠들었던 산모가 깨어났는데 집에서와 같은 진동이 다시 반복되었다. 맨 뒤꽂무니에 매달려있는 침대차까지 가기는 어려웠다. 손님들이 자리를 양보해주었다. 담당객차 열차원이 두개의 긴의자에 침대를 만들고 사람들이 드나드는 통로쪽에 백포로 휘장을 만들어졌다.

《아이고 배야… 어머니이…》

산모가 태를 치며 비명을 질렀다. 나는 어찌할바를 몰랐다. 림상경험이 전혀 없는데다 막내아들로 태어난 나는 해산하는 녀인의 고통을 모른다. 그런 사정을 알리 없는 녀인의 짧은 남편과 그의 시아버지는 나의 얼굴만 쳐다본다.

《어머니이-나… 나… 죽어요!》

녀인은 점점 더 악을 쓴다. 객차안의 모든 손님들이 잠에서 깨어나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열차원은 발만 동동 구른다.

《에그, 선생이 새파랗게 쏘다보니 통 경험이 없나보웁니다.》

손님들속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헌데 여러분가운데 조산원이 없소?》

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잠잠하다.

열차는 덜커덩거리며 쉬임없이 앞으로 내달린다. 룡두봉우에 빼딱하니 걸려있는 상현달도 자취를 감추었다. 검푸른 하늘에는 별이 바글바글 쪼고 강산은 장설로 뒤덮였다.

《허, 이거 큰일 나겠군.》

누군가의 긴 탄식소리. 울상이 되어 발을 구르던 열차원의 까만 눈에 벅긋 결심의 빛이 떠올랐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열차원은 이 한마디를 남기고 어디론가 달려가는 것이었다. 나는 그를 붙잡고 사연을 물어볼사이도 없었다. 그러나 얼마 안있어 모든것을 알게 되었다. 하루일과를 끝낸 열차방송실에서 때아닌 방송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손님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지금 달리는 제3급행열차에 중태에 빠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손님들 가운데 의료일군이 있으면 지체없이 기관차직후로부터 세번째 객차로 와주십시오. 객차번호는 04378호. 거듭 말씀드립니다…》

열차안의 모든 손님들이 잠에서 깨어났다. 한사람의 산모를 위하여 모두들 걱정했다.

다시 객차로 달려온 담당열차원의 하얀 이마와 코등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내뿜었다. 이제 갓 스물도 못된 나 어린 처녀가 산모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어른스레 걱정하고 뛰고 했다.

《고맙소, 고맙소.》

나는 동생벌되는 그 처녀의 동실한 어깨를 대구 쓸어주었다.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로인이었다. 채수염을 길게 드리운 풍신쑤는 그 늙은이는 객차문턱을 넘어서자부터 환자를 찾았다.

《환자가 어디 있소?》

내가 있는곳을 향해 곧추 달려오는 로인의 손에는 굵은 동침이 번쩍거렸다.

나는 실망하고말았다.

《로인님이 볼 환자가 아닙니다.》

나는 무슨 환자냐고 자꾸만 묻는 동의사의 굵은 동침을 민망스럽게 바라보며 이마살을 찌프렸다.

열차원은 숨도 돌릴새 없이 돌파서 다시 방송실로 달려갔다. 《이거 안됐소그려.》

동의사는 보기만해도 체기쑤는 푹 떨어질것 같은 굵은 동침을 슬그머니 집어넣었다. 그러나 돌아가지는 않았다.

동의사아바이의 뒤를 이어 여러 의료일군들이 달려왔다. 그중에는 구급약까지 들고온 내과 의사도 있었으며 외상이나 절골파위는 우습게 아는 젊은 군의도 있었으나 산모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이런 혼란속에서 급행열차는 최대의 속력으로 또 한정거장을 지났다.

산모의 고통은 결정에 다달았다.

렬차는 이제 겨우 한개 정거장을 지났다. 앞으로 한시간은 더 견디어야 한다.

나는 마침내 두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말았다. 절망에 빠졌던것이다.

이때 뜻밖에 기적이 일어났다. 식당주방에서 일하리라고 보기 쉬운 뚱뚱한 녀인이 똥기적거리며 들어오더니 호기심많은 눈으로 백포안을 기웃거렸다. 나는 시끄러운 생각이 들어 녀인을 쫓아버리려다가 깜짝 놀랐다. 녀인의 손에 커다란 겹자가 들려있었던것이다.

《홍, 환자라기에 오지 않을가 하다가 미심결에 왔더니... 하긴 남자들은 아이를 낳아보지 못했으니까...》

녀인은 조산원이었다. 조산원의 입은 대단히 걸었으나 모든 사람들, 지어는 머리 허연 늙은이들까지도 그에게는 공손히 대했다. 지어 두려워하기까지 했다. 하긴 모든 사람들이 저런 녀인의 손에 떠받들려 이 세상구경을 하지 않았겠는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같은 말을 뇌였다.

《인사는 후에 하고 물이나 떠오구려...아, 젊은이, 식당차에 가면 끓인 물이 있을거네.》

녀인은 눈에 걸리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명령하고 재촉했다. 객차안의 모든 손님들이 묵묵히 그리고 민첩하게 그의 명령을 집행했다. 그러나 아직은 산모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하였다.

산모의 입에서는 짜지는듯한 비명과 신음소리가 간간히 흘러나왔다.

《아, 뭘 이다지도 엄살을 피우는거야,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오만자루의 품이든다고 해서 〈오마니〉 일세. 새색시는 그 오만자루중에서 겨우 한자루의 품도 들이지 않구 뭘 이다지도 죽는시늉을 하나...에그, ...》

수다스러운 녀두리가 중얼중얼 들려오던 포장너머 저쪽에서 갑자기 조산원의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미처 정신을 차리기도전에 포장에 활제껴지더니 뚱뚱한 조산원이 뛰어나왔는데 반죽 좋고 자신만만하던 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어떻습니까?》

나는 또한번 가슴이 철렁해서 다우쳐 물었다.

《난산이웨다.》

《무슨 수가 없을가요?》

《병원에 가야지 여기선...》

나는 가슴이 덜컥 무너져내려 자기도 모르게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때 두사람의 얘기를 듣고있던 늙은 동의사가 자기가 좀 보겠노라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늙은이의 굵은 동침이 못미덥기는 했으나 날로 지위

가 확고해지는 동의를 믿듯이 그에게서도 기적이 일어날것을 기대하는수밖에 없었다. 아닌게아니라 그 늙은이가 기적을 가져왔다. 한참만에 휘장밖으로 얼굴을 내민 늙은 동의사는 아직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있는 조산원과 혈색이 좋고 얼굴에 늘 웃음이 떠있는 젊은 군의를 들어오라고 불렀다.

산모간에 모인 네사람-그것은 그야말로 내과, 외과, 동의과, 산부인과-하나의 자그마한 병원기술집단이었다.

협의회가 진행되었다.

분공에 따라 네사람이 민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가 제일 미심쩍게 생각하던 그 구리동침이 효과를 냈는지 태를 치며 몸부림을 치던 산모가 잠든 사람처럼 눈을 감고 조용히 누워있었다.

이마에는 좁쌀같은 땀방울이 돌아났다.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조산원이 언제 그랬나싶게 천연한 표정으로 산모를 돌봤다. 녀인의 아래배를 술술 만지던 그는 우리 세사람-늙은 동의사와 젊은 군의, 그리고 나를 등을 떠밀어 밖으로 내쫓았다.

《남정들은 이제 할일이 없수다... 눈치도 없이... 그렇지, 아래배에 힘을 줘라...힘을...!》

미래의 애기아버지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툭툭 떨어졌다.

렬차는 좌우로 가볍게 몸을 흔들면서 어둠속을 달리고 또 달렸다. 렬차가 정거장을 통과할 때마다 렬차장이 달려와 산모의 건강상태를 물어봤는데 그들중에는 가까운 정거장역장뿐아니라 멀리로는 철도부의 사령원들, 보건부의 당직일군들도 있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산모의 건강을 녀려해서 마음을 쓰고있는것인가.

날이 밝아오고있었다. 하늘이 희끄무레해지면서 바글바글 끓던 별들이 하나둘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렬차안의 손님들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들락날락했다. 모두들 가슴을 조이며 하회를 기다리고있었다.

렬차가 어느 한 정거장을 지나 마지막 신호주를 벗어날무렵이었다. 녀인의 비명과 함께 돌연 으앙-하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졌다.

사람들은 일제히 안도의 숨을 확 내쉬었다. 이어 입을 다물고 잠잠하던 차안의 확성기에서 귀에익은 방송원의 흥분된 목소리가 울려왔다.

《손님 여러분! 정식정각으로 달리고있는 제3급행렬차에서 나라의 생명이 또 한명 태어났습니다. 우리 렬차의 큰 경사입니다. 다같이 애기어머니와 어린애를 열렬히 축하합시다.》

와- 웃음이 터졌다. 그다음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다. 이 객차 저 객차에서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다. 찾아온 사람들의 그들의 신분도 각이했지

만 손에 들고 온 물건들은 더욱 놀라운 것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애기포단으로 쓰라고 꽃천을 가져왔는가 하면 기저귀감을 가져오기도 했다. 먼 자강도 십산골에서 바다가에 사는 딸네 집에 간다는 할머니는 꿀단지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번에도 제일 곁을 뜬 마지막 사람의 《선물》이 가장 인기를 끌었다. 방금전 산모의 해산을 방조해준 조산원처럼 몸이 가로 퍼진 녀인이 미역국을 한소랭이나 끓여가지고 찾아왔던 것이다. 알고보니 렬차식당 책임자였다.

김이 문문 나는 미역국을 본 늙은이-애기의 할아버지는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고말았다.

《우리 집 안간은 저 사람을 지주집 외양간에서 낳았수다. 몸을 풀고도 미역국은커녕 죽물 한사발 배불리 먹지 못하구 퍼덩이같은것을 내게 말기구 갓습네다. 어이구!》

늙은이의 거무스레한 볼로 뜨거운 눈물줄기가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거칠어지는 숨을 고누느라 잠깐 말을 끊었다가 재촉했다.

《그런데 우리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내 조국은 사람을 위해서라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로인도 울고 손님들도 울었다.

렬차는 속력을 높였다. 달리는 렬차의 무쇠바퀴 밑에서 눈보라가 일었다. 저기 산상에 아침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새날이 밝아온 것이다.

으앙- 으앙-

새해의 첫날 아침 조국에 인사를 드리듯 아기는 더욱 쨍쨍한 소리로 울었다. 해저문 농촌의 달구지 길을 걸으면서 혹은 번잡한 도시의 출근길에서 렬사롭게 들어오던 그 애기울음소리가 오늘따라 나의 가슴을 찔고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아마도 그것은 한 인간의 탄생을 위하여 바쳐지는 어머니-조국의 손길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먼 옛이야기로가 아니라 심장으로 체험했기때문일것이다. 그리고 또 생각했다. 저 애기의 반짝이는 두눈에 처음 비쳐진 수다쟁이 조산원똥똥보, 식당책임자, 바다가의 딸네 집으로 가는 할머니 그리고 아직도 뭔가 도와줄게 없을가 해서 편안한자기자리로 가지 않고 손님들 새참에 끼워앉아 불안해하고있는 늙은 동의사와 젊은 군인… 그들이 바로 그렇게 깨끗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받들어모시고 사는 우리 인민들이고 그들이 사는곳이 내 고향이 아니겠는가.

나는 환한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렇듯 뜨거운 인간애와 성실한 로동으로 조국에 헌신하는 이들, 인민들이 있는곳이면 그 어디인

들 내 마다하랴.》

어머니가 자식을 버리지 못하듯 자식이 제 고향을 버리지 못하는 법…

이런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대로 될수 없는것이다.

편지를 끝낸 진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것처럼 마음도 몸도 다같이 홀가분했다. 그는 산너머 저기 철길쪽에서 기적소리가 울려오자 방안을 왔다갔다하기 시작했다. 이제 통신원에게 편지를 쥐여보내면 길지 않은 청춘시절에 남긴 얼룩진 생활의 흔적은 자취없이 사라지고말것이다.

출입문이 소리없이 열리면서 영옥이가 들어섰다. 그의 가슴에는 활짝 핀 진달래가 한아름 안겨있었다. 그는 렬사롭게 강력에 다가가 시들어버린 꽃을 뽑아버리고 싱싱한 새 꽃을 꽃았다.

진규는 그냥 방안을 왔다갔다했다. 그제야 영옥이는 진규를 외아해서 바라보며 무슨 일이 생겼느냐고 물었다.

《아… 아니요.》

진규는 그때까지 손에 쥐고있던 회답편지를 주머니에 쑤셔넣었다. 그리고 긴 자기의 팔을 어떻게 건사할지 몰라 우물쭈물하다가 책상우의 청진기와 손칼을 마루바닥에 떨어뜨렸다. 여지없이 당황해버린 그는 덤벼치며 오금을 꺾었으나 청진기쪽에 먼저 손을 내민것은 그가 아니라 영옥이었다. 진규는 바로 자기의 눈아래 그 처녀의 도두룩한 이마우에 흘러내린 앞머리가 파르르 떨리는것을 보았다.

《영옥이 고맙소.》

처녀는 살눈섭이 긴 까만 눈을 깜박거리며 진규의 마음을 떠보려는듯 뻔히 쳐다보았다. 이때 창밖에 철도제복을 입은 작달막한 늙은이가 고개를 힘껏 제끼고 꺾꺾 웃었다. 목책우에서 혹은 꽃망울진울안의 복숭아나무아지에서 다사하게 우짚던 참새떼들이 화닥닥 놀라 저멀리 날아갔다.

영옥이는 얼굴을 붉히며 진규를 가벼이 떠밀었다.

《청산골에 또 한세대 늘어나게 됐네. 허허.》

익살섞인 늙은이의 늘어진 청이 길게 울려왔다.

진규는 온몸에 거불을 뒤집어쓴것 같았다.

《급행렬차라도 세워줄터이니 어서어서…》

늙은이는 점점 청을 높여 떠들어냈다.

《아바이, 보지요. 내 이제 아픈 주사루 놔주지않나 봅소. 야-》

진규는 창밖에 얼굴을 내밀고 위협적으로 쫓아거리는 벽촌의 토배기처녀-영옥의 뒤모습을 흐뭇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때는 꽃피는 계절이었다.

화 력

조 대 환

1

막장의 정면굴착기운전공인 홍안의 청년 김정무의 뒤통수는 고깔모자를 씌워놓은듯 류벌스레 삐죽하다. 그래서 탄부들은 그렇게 불그러진 바로 거기에 정무의 남다른 생각을 운전하고있는 《영풍뇌수》라는것이 꼭 들어차있는 모양이라고 했다. 어떤 축들은 《एं터리박사》가 틀어앉아있다고도 했다. 김정무로서는 그러루한 말을 듣는것이 십분 당연했다. 바로 며칠전이었다. 탄발형편이 점점 나빠져서 모두들 걱정을 했다. 그런데 정무만은 생청같은 소리를 했다. 굴을 뚫지 않고도 탄을 캘수 없겠는가고 했던것이다. 그러잖아도 신경이 예민해져있던 책임운전공 로재수아바이는 벌컥 화를 냈다. 초상집에 가서 혼사말을 한다며 다시는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오금을 박아 눌러놓았다.

그러나 정무는 로재수의 그썸한 말은 그 무슨 노래가락처럼 들어두는데 습관이 되어있었다.

노여움을 타는 때도 없었다. 그렇다고 주눅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히죽 웃으면 그것이 다였다.

지금도 정무는 또 무슨 묘한 생각을 고안하고있는지 전차갱입구에 있는 늙은 돌배나무에 잔뜩 몸을 기대고 서서 하모니카만 불고있었다. 아마 추운 줄도 잊은가보았다.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하고 하모니카만 불고있는 정무의 뒤통으로 얼굴에 꽃수건을 두른 옥실이가 살금살금 고양이걸음으로 다가가고있었다. 정무를 한번 깜짝 놀래보려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그는 다시 마음을 고쳐먹은듯 《정무동무!》 하고 나직이 입을 열었다.

《축하해요! 정무동무!》

옥실이는 등위로 감추어가지고 간 진달래꽃뭉음을 정무의 앞으로 내밀었다.

정무의 두눈은 대뜸 휘둥그레졌다.

《아니, 겨울도 아직은 되겨울인데-》

《압축기실에서 피운거예요.》

《고맙소, 옥실동무!》

정무는 꽃뭉음을 덥석 받아안았다. 그러더니 《봄의 선구자! 진달래!》 하고 시라도 한수 읊는듯했다.

정무가 이처럼 진달래꽃을 보고 가슴벅차하는것은 이 겨울에 만발한 진달래라는것때문만은 아니였다. 그처럼 바라고 고대하던 채굴막장의 정면굴착기를 래일부터는 단독으로 운전하게 된 걱정이 되살아났기때문이었다.

그는 흥분에 뜬 목소리로 《옥실동무!》 하고 입을 열었다.

《난 이렇게 생각해, 봄에만 피는 이 꽃을 겨울에 벌써 피게 한것처럼 석탄도 그렇게 캐낼수 있다고 말ियो.》

《호호...그걸 어떻게요.》

《어떻게라니 동무넌 이 꽃을 어떻게 벌써 피게 했소.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라니요.》

《차, 이런 물도 주고 온도도 맞춰주고 두루두루 정성을 다했겠지, 어서 피어나라고말ियो. 그러니 석탄생산도 그렇게 정성과 힘을 다 기울이면 봄에 캘것도 이 겨울에 캐낼수 있을것 같단말ियो.》

옥실이는 그러는 정무의 뒤통수를 슬쩍 바라보았다. 말을 해도 이렇게만 하니 그 뒤통수에 《एं터리박사》가 들어앉아있다는 소리를 듣는다는 생각을 한 모양이었다. 그런데 정무는 바로 그 뒤통수를 쑥쑥 문대는것이였다.

옥실이는 참다못해 소리를 내서 웃다가 그만 《아이고 발이야!》 하고 그자리에 쪼그려앉으며 비명을 터뜨렸다.

그저께였다. 압축기운전공 라옥실이는 공기배관을 점검하며 막장까지 들어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더 발목을 접질렀었다. 그것을 안 정무가 다짜고짜로 그의 발에 여섯대나 되는 침을 놓았다. 옥실이는 그때 침을 맞지 않겠다고 별의별 양탈을 다 썼다.》

하지만 정무는 옥실이의 발목을 무슨 기계로나 틀어잡듯 짹 움켜잡고 움작달싸도 못하게 하였다. 옥실이는 숨이 넘어갈듯 업살을 피우며 정무의 뒤통등을 죽어라 하고 쥐어박았다. 했지만 그것은 메추리알같은거로 콩크리트바닥을 치는것이나 조금도 다를바가 없었다. 정무는 끔적도 않고 침만 찔렀다. 아무튼 그런탓인지 부엌던 발도 하루밤사이에 저지반 다 가라앉고 걸기도 쉬웠다.

《그걸 봐, 이젠 석대만 더 맞으라구.》

정무는 안주머니로 손을 넣었다. 옥실이는 기겁을 했다. 이제는 죽어도 안맞는다고 두손을 마구 흔들었다. 그러거나말거나 정무는 안주머니에서 꺼낸 원주필뚜껑을 팽팽 돌렸다. 어제아침에 눈물을 가랑가랑 개피면서 옥실이가 본 그 무시무시한 침들이 원주필통안에 빼곡이 들어가있었다.

《이번엔 석대면 돼!》

《아이고 싫다는데.》

《그럼 조퇴를 하고 병원엘 행차하고싶나?》

정무가 침을 고르며 잠시 서있는데 어디선가 《정

무!》 하는 로재수아바이의 석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침애기만 해도 고무풍선같은 너석이라며 침통을 빼앗아버리려고 눈치만 살피는 아바이였다. 그런데 어디서 벌써 보고 나타났는지 알수가 없었다. 정무는 부랴부랴 침통을 감추었다. 로재수는 저쪽 저탄장으로 난 언덕길에서 누런 개털모자를 벗어든채 소릴쳤던것이다.

《정무! 얼핏 이리 좀 오게!》

로재수는 얼른, 혹은 빨리라는 말을 얼핏이라는 말로 통털어 대신하고있었다.

(차, 이거 요진통에 잡힌걸.)

정무는 갈데없이 빼앗겼다는 생각을 했다. 5년전에도 그에게 기타를 빼앗겼던 일이 있는 정무였다.

《아니, 꿀먹은 벙어리가 됐나? 얼핏 오라는 데.》

로재수가 또 소릴 쳤다. 그래도 정무가 움직이지 않자 로재수는 화가 난듯 성큼성큼 마주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정무와 마주선 로재수의 읊에서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탄말이 나왔다. 그것은 정무에게 침을 한대 놓아달라는것이였다. 《허참...》

로재수자신도 차마 정무에게 그런 말을 꺼내기가 쑥스럽다는듯 손에 들었던 개털모자를 머리우에 올려놓으며 공연히 뒤를 바라보는 등 여느때없이 몸가짐새가 부자연스러웠다. 정무는 정무대로 어색스러웠다. 침애기만 나와도 아주까리침통 가지고 앉은뱅이 고치려 접어든다며 정무의 침통이 5년전의 정무나 오늘의 정무나 다를바 없는 증거물이라며 도리질을 하던 그였다. 그런데 별안간 침을 놓아달라니... 정무는 혹시 잘못 들은게 아닌가싶었다.

《저, 침말입니까?》

《허, 거참 어제 영양제식당에서 칠면조고기가 꽤 입에 당기더라니... 아마 그놈이 잘못된것 같아. 옷배가 무뎡하고...》

로재수는 지금도 그렇다는듯 배를 슬슬 문대기였다.

정무는 피륙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다. 욕도 잘하고 화도 잘 내는 이 령감을 한번 혼을 내볼가하는 알קות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거기로 가자구. 거, 참...》

그리하여 정무는 로재수를 따라 자기네 소대의 휴계실로 갔다.

2

5년전 김정무는 탄광적으로 조직된 120미터 수직갱건설에 동원된 일이 있었다. 바로 그때 정무네 소대장으로 코허리가 볼록 나오고 꺾하면 노발대발 소리를 잘 치군하는 로재수가 왔었다. 그러던 어느날 정무는 착암조력을 하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참을수가 없게 되었다. 정무는 이마살을 잔뜩 찌프리고 로재수에게 사정을 말했다. 그리하여 정무는 그길로 탄광병원엘 찾아갔다. 거기서 그는 난생 처음 침을 맞았다. 그런데 이상스러운것은 그렇게 아프던 배가 언제 그랬더니실게 딱 멎은것이였다.

《차, 귀신이 울고가겠는걸. 침이란게 도대체 뭔데...》

그는 병원에서 나서는 길로 곧추 갡으로 향했다. 그런데 정무를 기다리고나 있던듯 옥실이가 길가의 큰 소나무아래에서 울상이 되어 바라보고있었다.

탄광중학교 졸업반이었던 옥실이는 자기보다 두해 우인 정무를 학교때부터 잘 아는 사이였다.

《왜 그러고 섰니?》

《기타줄이 끊어졌어요.》

정무는 그제서야 소나무뒤에 세워둔 옥실이의 밤색기타를 발견하였다.

알고보니 당장 120미터 수직갱건설장에 찾아가 예술선전대공연을 해야했는데 누가 잘못 다쳐서 두줄이나 끊어졌다는것이였다.

《예비가 없니?》

《없으니깐 그러지요.》

옥실이는 마치도 정무가 줄을 끊어뜨리기라도한듯 쌀쌀히 두눈을 내리깔았다.

《예비를 가지고있어야지. 빨리 우리 집에 갔다와. 내 책상 아래서랍을 열면...》

정무의 말이 끝나기도전에 옥실이는 벌써 나는듯 달려가기 시작했다.

정무는 옥실이가 올 때까지 기타나 치자는 생각을 했다. 두줄이 없지만 그런대로 칠수 있었다.

정무는 한쪽발을 무릎우에 척 포개엿고 앉아 기타를 치기 시작했다.

정무의 기타소리는 오고가던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들였다. 벌써 너댓명이나 정무의 곁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며 망상에 잠겨있었다. 그런데 얼마후에 정무의 앞으로 다가온 사람은 다짜고짜로 폭탄이 터지는듯한 소리를 질렀다.

《당장 일어나지 못해!》

정무는 와뜰 놀랐다.

코허리에 언덕이 진 사람, 금시 어디든지 후려칠듯 두주먹을 부르쥐고 마주선 사람은 로재수였다.

《이따위 건달군을... 그래도 당장 죽여가는 소리를 하길래 따라나왔더니...》

정무는 그만 목맨 강아지처럼 아무말도 못하고 로재수의 뒤를 따라 다시 갡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며칠후에 정무는 자기의 기타를 가지고 막장휴계실로 갔던 일이 있었다.

《이건 또 뭐 말라빠진거야, 얼핏 못가져와!》

《.....!》

《이런 물건짜이 똑똑한놈을 피병환자로 만들어 놓는단말이야!》

로재수는 정무의 손에서 기타를 빼앗았다. 바로 그해 정무는 새로 확장한 청년경으로 이동되어가면서 《탄캐기외에는 다시는 탄대 머리를 쓰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겨우 기타를 찾았다.

그러다가 이번에 탄광에서 취한 새로운 조치에 따라 전차갱 채탄중대로 오게 되었다. 바로 여기서 정무는 로재수와 또 만나게 되었던것이다. 그러나 지금이나 그때나 두사람사이에는 별로 씨원치 않았다. 게다가 얼마전 채탄중대회의가 있은후부터 그들 두사이에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회의에서 중대장은 굴착기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말해보라고 했다. 정무는 서슴지 않고 《예, 있습니다.》하고 닥침 일어났다.

굴착기에 사람을 한명 더 붙일 모양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의 석탄생산량을 놓고 도무지 성이 차지 않아하던 그였다. 적어도 지금보다 두배정도로 더 캐낼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여 별별 공상을 다 해보던 그였는데 굴착기에 사람을 한명 더 붙일 모양이었다. 물론 굴착기로 탄을 캔다고 하여 그것이 만족해져서 할줄도 모르는 굴착기운전을 할줄 안다하고 자리를 바꾼것은 아니다. 울리굴이나 채탄기나 도무지 정무의 욕심을 만족시켜주지 못했는데 그래도 굴착기는 한결 해볼만한것 같았다. 그런데 그것이 된말썹을 일으켰다. 떡먹은 입 쓸듯 시치미를 뺀 따고난 그것이 화단거리가 되었던것이다. 굴착기에 대해서는 알짜 무식쟁이라는것이 첫날부터 굶주린 사람 눈들어가듯 뽀드름해졌기때문이었다.

청맹파니가 왔다는것을 알게 된 로재수는 망치로 못대가리를 조여박듯 《보조공의 신발은 디젤유가 묻기전부터》라며 호되게도 답새기군하였다.

하지만 정무는 어쨌든 고맙다고 생각했다. 자칫 하면 피백스러운 로재수한테 쫓겨서 다시 울리굴막장으로 갈수도 있겠다고 단단히 맘먹고 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것만도 다행이었기때문이었다.

그럭저럭 기대청소로부터 삼백여구멍이나 되는 구멍에 기름을 주며 한두가지씩 운전법을 익히기 시작했다. 그러며 따라다니기 시작한 로재수의 손탁은 5년전이나 지금이나 바늘구멍만큼도 다를바가 없이 맵고찼다. 로재수의 밑에서 보조공을 한다는것은 오뉴월 복중에 숯화로를 끼고 앉아있는것만큼이나 빠근했다. 세상 배찬 노릇이었다. 정무는 그럴수록 양심을 먹었다. 화깁에 마른장작더미만 높아진다고 로재수의 잔소리가 벼락같은 욕으로 번져쳐도 정무는 나오지 않는 웃음을 히쭈켜리며 빼죽한 뒤통수만 쑥쑥 문대는것으로 모든것을 대신했다. 한주일이 가고 또 열흘이 가니 굴착기운전이라는것이 대체 어떻게 돼먹은것인지 원리가 터득되었다. 강아지눈만큼이나 뜨게 되고보니 직접 운전대를 잡아보고싶은 충동이 정무를 못견디게 했다.

굴착기라는것이 덩치는 산더미같아도 운전조작법을 한손으로 할수 있는 착암기만도 못하게 알보였다. 어느날 정무는 로재수에게 운전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다. 로재수는 대번에 얼굴이 수수떡처럼 검붉어지면서 우르락푸르락 야단을 했다.

굴착기운전대가 피병이나 청하게 하는 기타같은줄 아느냐고 샷대질까지 했다. 그렇게 하고도 씨원찮아 자격증을 내놓아보라며 비행사도 해보지않았느냐고 다파댔다.

그래서 정무는 집에 두었다고 한마디 대답을 했는데 로재수는 그것이 대꾸질이라며 《비행사자격증과 같이 두었겠지? 중대장은 속어도 로재수는 못속여!》하고 으름장을 놓았다. 게다가 이제는 배가 안아프냐고 5년전일을 쭉서놓기도 했다. 이래저래 허리 부러진 호랑이라고 정무는 기가 꺾이고말았다. 그래서 며칠동안 입을 꼭 다물고있었더니 이번에는 사나이놈답지 않다느니 졸장부는 이런 중기계를 못다룬다니 하고 또 가만히 있지 않았다.

하긴 정무도 우정 입을 다물고있자니 무슨 징역살이라도 하는것 같아 견딜수가 없었다. 그래서 로재수가 소침해진녀석이라고 혀를 찰 때 정무는 또 다시 운전대를 주지 않으니 가만히 있을수밖에 있느냐고 불평조로 한마디 했다. 그러면 무슨 알도리가 있음직도 했기때문이었다. 과연 알 도리가있었다. 로재수는 자기의 등뒤에 앉아서 배우던 정무를 이번엔 아예 운전칸에서 내려놓았다. 앉아서 배우니 너무 편안해서 그런 잡생각을 한다며 바닥에 내려가 서서 보라는것이였다.

정무는 하도 기가 막혀 다 걸어치우고 다시 울리굴에 가서 탄이나 켈가부다 하는 생각도 없지않았다. 그는 로재수의 산봉우리처럼 된 코허리를 사정없이 쏘아보며 저 령감의 둘째아들인가 셋째인가의 코도 저렇던데 하고 마뜩지 않은 눈길로 엿서보았다. 그러자 로재수는 잡고있던 운전대를 놓으며 눈을 딱 부릅떴다.

《팽이처럼 때려야 움직일테야? 내리라는데 왜 이렇게 버티고있어? 얼핏 내리지 못할가? 입으로는 그렇게 탕탕 큰소리 쳐도 그게 다 포뎀어진 장기군 같은 김빠진 소리란말이야. 여기서 굴착기로 탄을 켈게 있어? 굴을 뚫지 않고 탄을 캔다니 이불속에 들어가 탄을 켈게지. 얼핏 못내릴가?》

하느수 없이 정무는 운전대라고는 만져도 보지 못하고 운전칸에서 쫓겨내리게 되었다. 올라가라올라가라 하고는 흔들어 떨구는식 같기도 했다.

《거기서 보란거야,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건 벌써 배우는데 정신을 집중하지 않는단 소리야. 우물을 파도 한우물을 파야지.》

로재수는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땅바닥에 내려선 정무에게 한마디 더 덧붙이고나서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

웃으며 침맛는다고 정무는 그러는 로재수에게 우정 손을 흔들어보였다.

그러나 속으로는 《어서 한국 더 불러보시지요. 제길.》 하고 길다르고 속다른 행동을 해보며 뒤통수를 쑥쑥 문댔다.

온종일 우두커니 서서 돌아가는 굴착기를 바라보기란 과연 맥나는 노릇이었다. 그는 탄을 싣고 드나드는 자동차들만 《하나, 둘, 셋...》 하고 쓸데없이 세여도 보고 《피빅스런 령감태기!》 하고 증열증열 욱도 해보았다. 이런 일이 벌써 며칠째 반복되자 입심중은 막장의 탄부들이 지나가고 지나오며 《총도 없는 어깨에 새가 앉았네》 하고 간데라불을 휘둘러보이며 놀려주는가하면 한수 더 뜨는 친구들은 《...꿈이 앉았네》 하고 《유격대 5형제》에서 나오는 영화의 한 대목도 려상케 했다.

억울하기도 하고 약도 오른 정무는 올리굴로 정말 다시 갈셈치고 로재수에게 올려받쳤다. 석탄생산에 화력을 집중하라는것이 당의 방침이 아닌가. 그러자면 배우는것도 그렇게 해야 될게 아닌가. 탄광정문앞에 대문짝같이 써놓은 구호를 못보았는가. 주어진 조건대로나 하는것이 무슨 화력을 집중하는것인가. 한해에 배우게 된걸 한달에 배우면 그게 좋은게구 그게 화력을 집중하는게 아닌가 하고 참고오던 울분을 터뜨리며 정식 들이쳤다.

그러나 로재수는 여전히 로재수였다.

그런것쯤에 귀를 기울일 그가 아니었다. 다만 욱을 퍼붓거나 과거를 쑤셔내지 않았달뿐이지 내려세운 정무를 올려놓지 않았다.

굴레슨 안팎급사동이신세가 된 정무는 문짖에 끼운 손가락처럼 마음이 저렸다. 상대방의 심정을 아무리 몰라준다고 해도 이처럼이야 절벽강산이라싶어 왈각 울음이 복받치기도 했다....

정무는 지나간 나날들을 이렇게 더듬어보며 로재수의 뒤를 따라 휴계실로 들어갔다. 여기서 로재수에게 침을 놓아주자는것이였다.

휴계실에는 마침 아무도 없었다. 파르스름한 물뽕끼칠을 한 벽체를 따라 삼면에 맞물려놓은 긴의자들도 정갈하게 물결레질이 되어있었다.

로재수는 방한가운데 있는 큰 책상우에 털모자를 벗어놓더니 긴의자로 다가가서 거기에 두발을 쭈켜고 눕는것이였다.

《얼핏 중완을 한대 놓아달라구.》

로재수는 누운채로 웃웃을 밀어올렸다. 배에 침을 놓으라는것이였다.

《아, 아닙니다. 어서 일어나앉으십시오. 이 무릎에 놓겠습니다. 무릎에.》

정무는 로재수의 무릎을 손으로 만지며 말했다.

《배가 아프다는데 다리에 침을 놔?》

로재수는 입이 쓰거운듯 정무를 올려다보던 눈길을 판데로 돌렸다.

《글쎄 그렇게 놓습니다. 난 탄도 이렇게 뒀으면 합니다. 땅속에 있는 탄도 굴을 뚫지 않고 어떻게 로천에 앉아...》

《듣기 싫네, 얼핏 여기다 침이나 놓으라구.》

로재수는 정무의 말을 중도에서 끊으며 자기의 배를 손으로 두드렸다.

솔직히 말해 이 순간 로재수는 몹시 배가 아팠다. 탄광병원엘 가야겠다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그런데 벌써 휴계실에 걸려있는 벽시계는 정각 세시를 가리켰다. 네시부터는 교대를 해야 할 로재수였다. 했지만 정무는 얼른 침을 놓으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탄소리만 하는것이였다.

《여기가 족삼리혈이라는곳입니다. 여기에 침을 놓으면 ...》

정무는 로재수의 무릎아래를 손으로 꼭꼭 눌렀다. 그러더니 그의 아래도리를 걷어올렸다. 드디어 돛바늘만큼이나 큰 침을 하나 끌었다. 로재수는 눈을 꼭 감고말았다.

정무는 려달아 석대의 침을 찔렀다.

잠시후에 정무는 침을 뽑았다. 그러자 로재수는 창턱에 놓아두었던 침통을 닝큼 집었다.

《내 입이 닳아빠지게 말하지만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야 돼, 탄부가 침은 뭐 말라빠진 침이야 내 오늘 정무가 너무 섭섭해할가보아 병원에 가서 약 한봉지 타먹으면 될것도 눈을 감고 소경앞에 관상을 비운거야. 그러니 채심해서 운전을 하라구.이제는 단독으로 근무를 서야 할 운전공이 아닌가. 우리 탄광에서는 뭐니뭐니해도 우리 굴착기가 제구실을 해야 탄이 나온다는걸 알지 않나. 난 정무가 잘되라고 해서 이러는게야. 그러니 다른 공상일랑 말고 채심하라구. 〈의료봉사대〉 힘동무도 늘 막장에 나와 살다싶이 하지 않나. 그 처녀동무도 그렇구. 〈의료봉사대〉 뿐인가. 탄광병원 마선생도 아예 우리 막장을 담당하지 않았다. 그러니 제발 채심하라구. 마음이 갈라지면 힘도 갈라지는법이야.》

로재수는 그답지 않게 조용한 어조로 타이르고 나서 침통을 손에 든채 휴계실문을 나섰다.

(마음이 갈라지면 힘도 갈라진다? ...)

정무는 파고 세운듯 그냥 서있었다.

3

정무는 굴착기로 썩하고 올라갔다. 지긋지긋하던 보조공시절에 로재수가 하던대로 그는 연유조절기를 알맞춤히 당겨놓고 시창밖으로 얼굴을 내밀며 탄발형편을 한번 눈여겨본다. 엔진에서 울려나오는 소리와 권양기와 소리들에도 귀를 기울여본다. 이상이 없다고 확정이 되자 그는 네개의 운전대중에 량쪽의 회전대와 권양대를 먼저 조종한다. 그러면 이발이 번쩍번쩍하는 정면삽이 어느덧 탄발을 파헤

치고 검은탄을 철철 넘도록 퍼담아올린다. 정무의 손은 날과랐듯이 조향대와 견인대로 옮겨진다.

이렇게 일이 시작되어 얼마쯤 되면 옥실이가 의례히 나타나곤했다.

옥실이는 배관을 점검한다는 단 한가지의 구실로 압축기장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이 굴착기막장까지 꼭꼭 나타난다.

하기야 핑계핑계 도라지 핑계라고 만약 배관을 점검하며 오고가겠다는 리유가 없게 된다면 막장지원이라는 그럴듯한 조건을 찾아낸직한 옥실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지 옥실이가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탄발이 점점 드러이 나는 모양이었다. 한시간에도 두세번씩은 내려서서 큰돌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차, 이거 오늘은 옥실이조차 안오는군...》

정무는 시창밖을 훑음훑음 내다보며 중얼거렸다. 정무가 이처럼 옥실을 늘 고맙게 여기는것은 전적으로 침문제와 관련이 있다. 정무가 침놓는 자격을 받을 때까지는 옥실이의 도움이 대단히 컸다. 군동의병원 원장을 하는 옥실이의 큰아버지에게 정무를 데리고 가서 직접 소개시켜주기도했고 침구학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책들도 구해다주었다. 이러는 사이에 정무는 옥실을 남다르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은 왜 나타나지 않는지 알수가 없었다.

어느때쯤 되었는지 시창앞에서 로재수의 짜증이 섞인 목소리가 벼락같이 들려왔다.

《뭘 또 딴 생각이야? 무슨놈의 탄삽이 동냥삽이야!》

정무는 깜짝 놀랐다.

정면삽이 뚫게 떠지는것을 깜짝 모르고있었던것이다. 그런데 언제 나왔는지 로재수의 눈에 딱 걸려든것이였다.

이렇게 하루 또 하루 나날이 흘러갔다. 겨울도 갔다. 전차갱입구에는 연분홍의 진달래가 만발했다. 그러던 어느날 채탄중대에서는 2. 4분기석탄생산과제를 넘쳐수행하기 위한 결의모임이 있었다.

정무는 이 회의에서 자기자신도 결의토론을 할셈으로 궁리를 해보았다.

혹시 로재수아버이가 토론을 하지 않겠는가 하여 훑음훑음 뒤를 바라보기도 했다. 그러다가 한번은 그와 눈길이 딱 마주쳤다. 순간 로재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연락을 향해 걸어나갔다.

연락앞에 나선 로재수는 《동무들!》 하고 회의 참가자들을 한번 휘-둘러보았다.

《자, 이제부터 2. 4분기가 시작됐단말입니다. 9천톤을 캐야 된다는것은 뉘집 아이 떡 집어주는것과는 다르단말입니다. 하지만 문제 없수다. 요즘 김정무동무는 남들이 1년씩이나 배워야 하는 굴착기운전을 그야말로 눈감빡할 사이에 벌써 단독으로

하게 되었던말입니다. 이게 다 뭐겠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석탄생산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석탄생산에 화력을 집중한 김정무동무의 노력이 아니겠소. 그래 결론이뭘요. 날보구 기타를 빼앗은 두상이니 침통을 회수한 령감이니 해도 석탄을 많이 캐자고 그런게 아닌가말이요. 하지만 이건 다 김정무동무의 성과우다. 요사이 탄발이 좀 애를 먹이긴 해도 난 김정무동무가 자기 계획을 1. 4분기에 110프로씩이나 초과한것처럼 2. 4분기에도 문제 없다고 장담합니다. 내 손에 장을 지지겠소. 그래 안그렇단말이요. 참 얼핏얼핏 해치운단말이요.》

로재수는 들었던 손을 내리면서 갑자기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바람에 탄부들은 소리를 내서 웃으며 마주 손뼉을 쳤다. 그것은 로재수가 말한대로 김정무의 로력적성과에 대한 탄부들의 찬사인 동시에 로재수에 대한 뜨거운 존경이기도 했다.

그날밤 정무는 옥실이와 남몰래 만나곤하는 전차갱 저탄장으로 올라가는 언덕길에서 하모니카를 불었다. 그러면 거기서 멀지 않은곳에 집이 있는 옥실이가 그 소리를 듣고 나올것이였다. 아니나다를가 정무가 한창 하모니카를 부는데 먼발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정무는 하모니카를 불면서 달빛이 어렴풋이 비치는 산기슭을 내려가보았다.

그런데 가까이 오고있는것은 옥실이가 아니라 로재수였다.

《굴착기가 죽은것도 몰라?》

로재수는 첫마디부터 소릴 질렀다.

《굴착기가 죽다니요?》

로재수는 들은척도 않고 오던 길을 돌아서서 내려갔다. 정무는 급히 뒤따랐다. 영문을 알수 없었다.

《왜 섰습니까? 고장입니까?》

《...》

《언제부터 섰습니까?》

《...》

로재수는 시끄럽다는듯 종종걸음만 놓고있었다.

정무는 그래서 더 지긋어졌다. 로재수의 입을 열어놓고야말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슬쩍 이렇게 말했다.

《아버이가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낸게 아닙니까?》

《쓸개빠진 소리 작작해!》

《그럼 그제 왜서냐말입니다.》

《돌만 캐낼수 없으니 선거지.》

《아, 그렇구만요.》

정무는 한눈물 찡긋하고 로재수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돌만 나온단말이지, 끝내 탄발이 말썽인걸...)

굴착기가 멎으니 막장도 숨을 죽인듯싶었다. 대낮같이 밝게 쬔여있던 여러개의 전기불도 모조리 꺼졌고 자동차도 얼씬하지 않았다.

김정무조차도 굴착기운전칸에 홀로 앉아 잠든듯 눈을 감고있었다. 아직까지는 로재수가 죽일놈살릴 놈하고 된욕을 퍼부어도 그것이 다 자기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표시이려니 하고 생각해왔었다. 그리하여 때로는 고깝기도 하고 약도 올랐으나 스스로 채찍질을 하며 녹장혀 놀렸고 그래서 응석도 더 부렸고 그래서 우정 똥판지같은 소리도 더 해가며 일해온그였다. 그런데 굴착기가 멎은 오늘밤의 로재수를 놓고는 좀처럼 그렇게 생각할수 없는 정무였다. 그가 말하는대로 등도 보고 날도 보며 매사를 실수없이 차근차근 해나가는 경험많은 운전공으로서 책임성 높은 탄부의 년장자로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로재수를 느끼게 되었던것이다. 정무는 그에 대한 선명치 못한 의혹이 점점 깊어졌다. 그래서 아까부터 굳어진듯 숨을 죽이고있는 이 굴착기운전칸에 홀로 앉아 눈을 감고 생각이 깊어진것이였다.

아까 로재수는 발동이 꺼진 굴착기앞에서 탄광참모부의 지령이라며 래일부터 굴착기를 대분해하자고 했었다. 정무는 그 리유를 모르지 않았다. 이미 탄광에서는 정무네굴착기를 탄발이 끝나는 차례로 옮기기 위하여 전차갱 5편도상층 1호막장을 굴착기채탄막장으로 확장하고있었던것이다. 그리하여 굴착기의 각을 떠가지고 그리로 자리를 옮기자는 것이였다.

《얼핏 들어들었다가 래일아침 일찍 나와야겠소. 회전지지틀만 놔두고 한 너덧개로 분해하면 우리 꺼리라도 하루면 되우. 결국 조립도 하루면 될게구. 문제는 가는 시간인데 여드레 팔십리도 못가는 운행속도를 가지고 레루를 해체해가며 갱도길을 따라 간다는건 어방도 없소. 그럴라치면 한달도 더 걸려야 될게구. 그래서 각을 떠서 싣고가면 기껏 한주일이면 된단말이우다. 탄광참모부도 이렇게 타산하고 지시한거요. 자 얼핏 들어들가우.》

운전공들은 생각이 깊어져 누구도 말하지 않고 담배만 피우고있었다.

다만 김정무만이 빠죽한 뒤통수를 쑥쑥 문대며 숨을 죽이고있는 굴착기를 앞뒤로 다니면서 올려다보고 내려다보았다.

마치도 굴착기를 처음 보는 사람마냥 허리를 굽히고 사슬리데판도 들여다보고 정면삽의 팔에도 올라가 여기저기 뜯어보았다. 이때 마침 탄광 경리과 지도원이 세명의 아주머니를 앞세우고 굴착기앞으로 왔다. 알고보니 군인민위원회에서 탄광에 지원물자를 싣고왔는데 소공구만 가지고오기가 뭇하여

먹을것도 좀 가져왔다는것이였다. 그래서 경리과 아주머니들한테 들리워가지고 온것이였다.

《자, 막장휴계실로 모두 나갑시다.》

경리과지도원이 한창 설명글 하고나서 이렇게 말했다.

《정무! 앞장서게! 가져왔다니 먹고가야지.》

로재수의 말이였다. 그런데 정무는 대답이 없었다.

《정무!》

굴착기운전공들속에서 누군가 또 불렀다.

그러나 역시 대답이 없었다. 로재수는 굴착기 주변을 기웃기웃 돌아보았다. 정무는 온데간데 보이지 않았다.

《자, 이런 귀신이 꼭할 노릇이라구야. 이너석이 무슨 엉뚱한짓을 또 할려구... 차 이런.》

로재수는 혀를 찼다.

《오겠지요. 갑시다.》

경리과 지도원이 바쁘다면서 이렇게 재촉하는 바람에 굴착기운전공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맨 나중에 로재수가 뒤를 흘금거리며 따라갔다.

그러나 김정무는 운전공들이 떡을 한그릇씩 다 먹고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로재수는 벌써 굴착기로 두번씩이나 찾아나갔었다.

《그놈의 뒤통수가 나중에 둔갑술까지 쓰는데 아닌가 허 허...》

《글쎄말이야 까마귀 쩡잡아먹을 공리를 하는지 원? 내 아까 이상하다했어. 굴착기를 빙빙 돌면서 그놈의 뒤통수를 굽적거리는품이 분해를 간단하게 해보려구 그러는것 같더라말야.》

《웁소. 저 리데판까지 기웃거리면서 보드라니.》

운전공들은 벌써 담배 한대를 다 피우면서 그를 기다렸다.

《자, 정무는 정무이구 얼핏 들어가라구.》

로재수가 말했다.

《뭘 이러고들 있소. 얼핏 들어가라는데. 난 좀 있어보겠어. 이놈이 무슨짓을 하려구 이러는지 마음이 안놓여, 자 얼핏 들어가라구요.》

이리하여 운전공들은 막장휴계실에서 곧바로 나갔다. 로재수는 정무의 뒤통으로 남겨놓은 떡그릇에 빈사발을 하나 썩워놓고 굴착기로 나갔다, 그런데 이때 마침 김정무가 간데라불을 흔들거리며 나타났다.

《그래 떡을 꽤 잡겠던가?》

《예?》

정무는 로재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짐작을 할수 없었다.

《안전모는 어쨌느냐말일세?》

정무의 머리우에는 안전모가 없었던것이다.

《예? 아차 거기서 벗어쳤구나.》

정무는 얼른 머리로 손을 올렸다. 안전모가 벗겨져 나간것도 모르고있었던것이다.

로재수의 눈길은 정무의 발에로 갔다.

두발이 모두 물에 함박이 젖어있었다.

《어딜 돌아다녀?》

《...》

《거 제발 철이 좀 들라구.》

《예, 그런데 아바이.》

정무는 자못 신중해지며 로재수의 앞으로 다가갔다.

《아바이, 주어진 조건대로 그리구 시키는대로나 하는거야 석탄생산에 화력을 집중하는게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뭐야? 어서 다시 한번 말해봐. 어쩌구어쨌다구?》

《아바인 늘 말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구?》

《우물을 파도 한우물을 파고 그리구 저... 그럼요. 마음이 갈라지면 힘이 갈라지는 법이라구말입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도 한우물을 파잔거지요. 어떻게 하면 석탄을 더 빨리 더 많이 캐가 하고말입니다. 마음도 역시 그렇구요. 그런데 아바이가 하자고하는 건 두 우물을 파자는겁니다. 하나는 보신주의우물이구요, 또 하나는 교조주의 우물이야요. 그러지 말고 통이 크게 한번 해보자요. 120미터 수직갱에 한번 들어가봤는데 우리 굴착기를 그리로 직접 달아내릴수 있겠어요. 좀 위험하긴 하지만.》

《...》

벼락치듯 소리칠줄 안 로재수는 가타무타 말이 없었다.

《120미터 수직갱뿌리가 어딴니까. 전차갱 5편도가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5편도란말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한주일이 아니라 세시간도 못걸립니다. 아바이와 내 마음이 갈라지지 말고 합심해서 한우물을 파보자요.》

《...》

정무는 로재수의 눈치를 슬쩍 보았다.

그러나 얼굴을 다소곳이 숙이고있어서 자기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고있는지 기미를 쫓을수 없었다. 정무는 잠간 생각해보았다. 다음부터 설명해야 할 말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기때문이었다. 그것은 현재이 위치에서 120미터를 내려가는 전 구간을 굴착기의 쇠바줄로 직접 달아내려야 하니만큼 굴착기가 달려서 내려갈 때도 운전공이 타고앉아 쇠바줄통을 조정해야만 하는것이였다.

그리하여 정무는 현지를 보고왔으며 120미터 수직갱턱에 활차를 고정할만한 위치까지 보고온것이였다.

정무는 이 문제를 죄다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로재수는 여전히 묵묵히 듣고만있었다. 정무는 설명을 끝내고 다시 말했다.

《아바이! 크게 맘먹고 해봅시다!》

김정무가 한발 더 가까이 나서자 로재수는 약간 숙이고있던 머리를 번쩍 쳐들었다.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고 높이 흔들었다.

《당장 물러가지 못할가? 스무톤이나 되는 굴착기가 네 주머니에 있는 하모니카같은줄 알아, 썩이라구. 이제 한마디만 더 했다가 굴착기구 뭐구 올리굴로 내쫓겠어.》

그는 막장이 찢렁찌렁 울리도록 소릴 치고 그래도 못미더운지 굴착기로 썩하고 올라가 발동스위치 열쇠까지 꺼내가지고 나가버렸다...

이리하여 정무는 로재수가 나가자 굴착기로 올라온것이였다.

(그래, 나도 나가야 하는가?...)

5

막장은 적막이 깃들었다. 어디선가 배수로우에 식수가 떨어지며 졸랑졸랑 하는 소리만 느닷없이 들려왔다.

정무는 제 주머니를 들추었다. 로재수가 가지고 나간 굴착기의 발동스위치열쇠를 찾는것이였다. 운전공인 그에게도 없을리 만무였다. 모두 운전공에게 하나씩은 다 있는것처럼.

그러니 그것은 문제가 아니였다. 정무 혼자로서는 120미터 수직갱으로 굴착기를 달아내릴수 없는 것이 문제였다.

《늑으면 다 이럴가? 물론 위험할수야 있지. 그렇게 내가 물고가서 내려가는것도 내가 하면 되겠는데두... 누가 아바이 보구 위험하게 하라나 참...》

정무는 도무지 안이 달아 참을수 없었다.

이때 마침 어둠속에서 한점의 불빛이 나타났다. 그것은 차츰차츰 정무가 있는 굴착기쪽으로 가까와지고있었다. 이윽하여 굴착기앞에 도착한 사람은 옥실이였다.

《옥실동무!》

정무는 뜻밖에 나타난 옥실이 얼마나 반가왔는지 몰랐다. 그는 굴착기우에서 훌쩍 뛰어내렸다.

《요즘은 왜 그렇게 안보여?》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사방에서 바람 바람하는데-》

《아, 그랬구만.》

《그런데 굴착기가 이살 간다면서요?》

《그런데 글썽 우리 책임운전공인지 하는 아바이말이요.》

화가 날대로 난 김정무는 옥실이 어떻게 생각

하는지도 모르고 로제수에 대하여 불평을 터뜨렸다.

《다 들었어요. 로제수아바이가 휴계실에 나와서 뭐라고 한줄 알아요. 옥실동무! 예술영화 〈군당 책임비서〉에서 나오는 그 백가지안을 적어가지고 다니는 사람의 이름이 뭐더라. 하고 묻길래 〈태성목〉 이말이에요 하고 말했더니 〈옴소. 그 태성목 이보다 더한 친구가 우리 탄광에 있소, 누군지 모르지? 옥실이 발칸등에 침을 놓은 그녀석이야! 글썽 굴착기를 120미터 수직갱으로 내려보내자는 안도 다 적어가지고있었던. 태성목이는 수첩에나 적어가지고있지만 우리 정무는 이 심장에 적어가지고 있단말이요. 심장에!〉 하고 자기의 가슴을 툭툭 치면서 뼈죽한 뒤통수에 있다는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면서 이렇게 본건 잘못 본거라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어서 들어가 데리고 나오겠어요. 참

휴계실에 딱도 한그릇 있대요.》

《그래서?》

《어서 나가잔말이에요. 막장에서 밤을 새겠어요?》

《흥!》

김정무는 옥실이 가가자는 바람에 굴착기문에 걸어놓았던 자기 간데라에 불을 켜두고 어디론가 갔다. 옥실이는 겁을 먹고 부지런히 그의 뒤를 따라갔다.

그가 간곳은 막장 종합휴계실이었다.

그는 휴계실벽에 걸려있는 지령전화스위치를 돌렸다. 고성기화된 지령전화에서는 《어딜 찾습니까?》 하는 교환수처녀의 목소리가 또릿또릿 울려나왔다.

《종합지령실에 대요.》

잠시후에 교환수처녀는 나오지 않는다는 간단한 말로 전화를 끊었다.

《여보시오! 왜 자꾸 들어가요? 그럼 우리 갱지령실에 대주요.》

정무는 전화앞에서 돌아섰다. 갱지령실에서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제길, 잠을 자고있는가? 그래서 전화를 안받겠지. 어딜 갔을라구.》

정무는 혼자소리로 증얼거렸다.

《그래 지령실엘 가자구요?》

《가야지, 다른 사람들을 동원시켜서라도 오늘밤으로 굴착기를 움직여놔야 돼!》

《정말 가보자요. 거기 갔다 없으면...》

《없으면 집으로 가잔거지?》

《가야지요 뭐.》

정무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갱내 지령실을 찾아 6권도 분기점을 향해 부지런히 걸었다.

《밤새껏 이렇게 따라다니겠소?》

어쩐지 정무는 툭툭하게 말했다. 켄겔음으로 그의 뒤를 쫓고있던 옥실이는 방긋 웃으며 입을 열었

다.

《로제수아바이가 보초를 서렸어요.》

《보초?》

《정무동무를.》

《하. 그것 참 고맙소, 우리 굴착기에 무슨 사령관 편제라도 생긴게 아니요. 날 보초까지 붙이는걸 보니, 하 그것 참.》

《어마나?!》

옥실이는 놀란듯 문득 섰다. 정무는 영문을 알수 없어 옥실이를 돌아보며 그도 걸음을 멈추었다.

《왜 그렇게 놀라오?》

《아니, 아무것도 아니예요.》

옥실이는 다시 걸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방금 정무가 말한것처럼 로제수도 자기네 굴착기엔 김정무가 〈사령관〉 감이라면서 정무는 앞으로 한몫 단단히 할 젊은사람이니 잘 돌보아주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과연 옥실동무답구만. 그럼 왜 굴착기를 저렇게 세워두고 들어간대? 나한테는 그런 께나 가지고는 안되겠는데, 허허. 옥실동무, 걱정 말라구.》

《아이참. 정말 그랬어요.》

《정말이 아닐 땐 그렇게 정말이라고 하는것 같두만.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단거요.》

《애개나, 언제부터 날 그렇게 못믿어요?》

《이 시각부터 그 아바이가 그럴수 없다는건 굴착기를 저렇게 놔두고 들어간게 근거지, 안그렇소?》

정무는 이렇게 갱내지령실까지 갔다. 굴착기에서 퍼그나 먼 거리에 떨어져있는 지령실이었다.

그러나 지령실에서는 잠을 자느라고 전화를 받지 않은것이 아니었다. 지령실바람벽에 걸어놓은 자그마한 칠판에는 다음과 같이 써여져있었다.

《120미터 수직갱에 나감.

교대부갱장동무는 수직갱으로

오십시오. 탄광기사동무의

지십니다. 3교대지령원.》

김정무와 옥실이는 다같이 이런 글을 읽어보았다. 그런데 이때 마침 지령전화에서 요란한 전화종소리가 울려나왔다.

《전차갱지령실! 전차갱!》

김정무는 전화기앞으로 갔다.

《여보시오. 거기 로제수동무 갔소?》

《예?》

《이제 금방 갱에 들어갔다는데.》

《나간지 오랫동안입니다.》

《나갔다구? 들어갔다구 하던데, 좋소!》

전화가 툭 끊어졌다. 아마 탄광참모부나 지배인이 하는 전화인것 같았다.

《들었지? 탄광에서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있단말이요. 틀림없지 않소. 무엇때문에 칠판엔 저런

글을 썼으며 무엇보다문에 로재수아바이를 이밤중에 찾겠소, 갑시다. 굴착기에 들렸다가 120미터 수직갱에 가봐야겠소.》 정무는 급히 지령실을 나섰다. 그리고 옥실이에게 말했다.

《동무는 어서 들어가라구. 내 걱정은 말구.》

《정말 내 걱정은 마세요.》

옥실이는 끝내 따라다닐 차비였다.

정무는 할수 없다는듯 그냥 걸었다.

한참만에야 그는 굴착기막장입구에 들어서게 되었다. 순간 그는 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세워놓은 굴착기뒤쪽에서 간데라불빛이 새어나 오고있었던것이다.

(그럼?) 정무는 무엇인가 뇌리를 치는것이 있었다.

그는 순간도 머물러있을수 없었다. 총총히 굴착기를 향해 걸어나갔다. 누군가 굴착기 뒤쪽에서 하는 말소리가 두런두런 들려왔다. 무슨 소린지는 가려들을수 없었으나 로재수가 온것만은 확실한것같았다. 정무는 한걸음 한걸음 그쪽으로 다가갔다. 말소리가 점점 명확해졌다. 로재수가 틀림없었고 다음 사람은 누군지 알수 없었다.

《아바이! 그게 소원이라면 풀어봅시다. 정무동무가 벌써 그렇게 기능이 높아졌단말씀이지요. 그럼 한급 올려줘야 되겠구만요.》

《내 욕심엔 한급이 아니라 한꺼번에 두급이라도 올려주구실수다.》

《허허... 자, 그럼 시작합시다. 너무 고집쓰지마십시오.》

《부기사장동무! 이건 고집이 아니우다. 절대로 난 부기사장동무를 못태우겠소. 위험하다는걸 번연히 알면서 뿔하러 돌쾅 타겠소. 정무동무도 내 그래서 주먹을 휘두르다싶이 해서 들여보내게 아니우. 그러니 어서 물러나시우다.》

《아바이!》 《부기사장동무!》

《아바이, 글썄 너무...》 《저리 비키우다!》

정무는 모든것을 알수 있었다. 이런 아바이, 이런 책임운전공이었다. 정무는 눈확이 확 달아나 어쩔수 없었다. 이런 아바이를 두고 오히려 고깝게 여기고 오늘밤엔 욕까지 한 자신이었다.

정무의 가슴속에서는 불통치같은것이 꿈틀거리며 더는 서있을수 없었다. 그는 굴착기의 리데판으로 썩하고 올라갔다.

《누군가?》 로재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무는 로재수를 바라볼수 없었다. 그는 운전칸안으로 들어가 와르릉! 하고 발동을 걸었다.

세찬 동음이 잠잠하던 막장안을 들었다놓았다.

《정무! 이진 뭐야!》

로재수의 벽력같은 부르짖음이었다.

《...!》

로재수는 리데판으로 썩하고 올라섰다.

《죄꼬리만한 기능을 가지고, 너같은 기능으론 어렵도 없어! 얼핏 내리지 못해!》

《그러게 아바이가 길잡이를 해주세요. 길잡이를 요.》

《무슨 군소리야!》

《어서 내려가셔서 길잡이를 해주십시오. 어서요!》 정무는 목이 메어 더 말할수 없었다.

이러다간 언제 굴착기가 움직이게 되겠는지 알수 없었다. 부기사장이 굴착기문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그도 목이 메어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아바이, 정무동무의 길잡이야 아바이가 해주셔야지요.》

막장안은 요란한 굴착기소리뿐 누구도 말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얼마후 드디어 굴착기는 무거운 동체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무가 운전대를 틀어잡고 그뒤에는 옥실이가 서있었다. 굴착기의 앞에서는 두사람이 간데라불을 높이 들고 길잡이를 하고있었다. 로재수와 부기사장이었다.

정무는 시창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한손에 간데라불을 추켜들고 로재수가 정무를 마주 바라보고있었다.

정무는 그 눈길과 마주치는 순간 그의 두눈이 어느때없이 깜빡이고있다는것을 알아차렸다. 로재수의 눈에서는 맑은 이슬이 흐르고있었던것이다.

부지중 정무는 그의 손탁에서 보조공으로 일하던 지난날의 그 모든것이 이 순간에 다 떠올랐다. 그때는 그렇게도 무섭게 굴던 로재수의 눈이 이 시각엔 자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있는것이 아닌가. 처음으로 운전대를 잡게 한 날엔 탄발에 내려서서 정무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그 눈이었다. 그때는 그 눈이 《네가 한달밖에 못했는데 굴착기를 운전하겠단말이지?》 하고 못미더운 눈길로 떠보았다. 그러나 이슬이 흐르고있는 저 눈은 젊은 보조공을 반신반의하는 늙은 운전공의 로파심이 깃든 눈이 아니었다.

정무는 그 눈길에서 단 한번의 사고도 없이 단 한번의 실수도 없이 훌륭한 막장의 굴착기운전공이 되어 희망대로, 욕심대로 더 많은 탄을 캐여주기 바라는 로재수의 간절한 마음을 읽을수 있었다.

정무는 간데라불을 흔들어주며 길잡이를 하고있는 로재수에게 답례라도 하는듯 시창밖으로 손을 내밀고 흔들었다.

그것은 자기를 이처럼 키워주고 이처럼 아껴주며 이처럼 믿어주는 로재수에게 보내는 진정한 감사였다.

굴착기는 세찬 동음과 함께 불을 들고 앞서나가며 길잡이를 해주는 로재수를 따라 120미터 수직갱을 향하여 한걸음한걸음 다가가고있었다.

불 씨

김영식

발산우에 달이 떴다.
고지를 휘감은 포아리참호가 뒤집힌 자태를 드러냈다. 동강난 교통호며 아직도 연기를 울리고있는 나무등결, 나딩구는 원주의 잔해, 모든것이 살벌한 고지였다.

전사들은 묵묵히 참호작업을 다그치고있었다.
감시구에 마주선 김철우중대장은 놈들이 도사리고있는 검은 룡선에서 눈에찌고있었다. 낮에 놈들은 거기로부터 다섯번이나 공격해왔다. 그래서 이틀전 이 발산을 빼앗은것처럼 기습하고싶었으나 여기서 물러간 적들까지 한데 집결한 력량이 너무 많아 우에서 동의하지 않았다.

철우는 고지기슭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러자 이 고지를 점령할 때 앞장서 돌격하다가 희생된 연락병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왔다.
늘 보조개 고은 웃음을 짓고 굴러다니는것 같은 연락병이었다. 하모니카를 입에 대면 동무들의 가슴에 격량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윽한 정서도 한가득 안겨주어 사랑속에 반들려온 그였다. 잊지 못할 전사, 아버지를 왜놈 징용에 잃고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난 고향이 이 발산의 어느 골안이라고하던 일이 떠올라 철우는 더욱 가슴아프고 쓰렸다.

《중대장동지! 합지골에 웬 사람이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철우는 흠칫 생각에서 깨어났다. 사관장이 달려와 알리는 소리였다.

《합지골에? 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화선의 정황이었다.

철우는 서둘러 감시소를 나섰다. 그리고는 열구리에 찬 권총을 한손으로 누르며 익측교승이로 총총히 갔다. 어제 새벽 이 발산을 빼앗은 직후에도 합지골에 웬 사람이 나타났다가 종적을 감추었다는 보고를 들은 그였다. (누굴까? 적의 척후병이 아닐까?) 고지를 타고왔은 철우는 놈들의 반격이 시작되리라는것을 예상하였었다. 새로운 정황을 예견한 그는 급히 각 소대에 감시조직을 하게 하고 익측교승이를 돌아보았다. 그러는데 등뒤에서 《중대장동지, 합지골에 방금 나타났다 사라진 그 사람이 또... 그런데 사민같습니다.》 하는 소리가났다. 1소대 감시병 전순호전사였다. 철우는 그의 보고에 더욱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합지골은 사민이 있을수 없는 적아의 공간지대였던것이다. 때문에 그곳 인민들이 오래전에 후방에 소개되어간것을 알면서도 전투전야에 전사들을 파

견하여 다시한번 훑어보게 한 철우였다. 그런데 사민이 나타나다니 이상한 일이었다.

철우는 전사에게 다우쳐 물었다.
《어디 있소?》
《아? 어디 갔나. 금방 있었는데, 에이 또 사라졌습니다.》

순호는 당황하여 어쩔줄 몰라하였다.
합지골은 발산의 익측교승이와 놈들이 어제 얻어맞고 물러나왔은 검은 룡선 사이에 누워있는 분지였다. 철우는 말없이 흙벽에 가슴을 대고 순호와 함께 없어진 사람을 찾기 시작하였다. 어둠속에서 가로 훑고 세로 훑고 삼경이 지날 때까지 살폈으나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눈에 띄우지 않았다. 그래서 의혹을 품은채 물러설수밖에 없었다.

(만일 웬 사람이 얼씬거렸다면 틀림없이 사민으로 가장한 적일것이다. 놈들도 인민에 대한 우리군대의 전통적미풍을 잘 알고있으므로 변복하고 교활하게 우리 군의 화력에 대한 정찰을 할수 있지않는가...)

순호의 감시호에서 나온 철우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대초소로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몇걸음을 못가 조급한 부름소리는 또 철우의 발목을 붙잡았다.

《어디 있소?》
조급해난 철우는 대바람에 묻기부터 하였다.
《저 바위아래에... 농민같았습니다!》
손을 들어 가리키려던 순호는 이번에도 말끝을 얼버무렸다.
《농민같았던말이지? 근거는?》
《허연 수건같은걸 머리에 동이구 부시를 치는지 불꽃을 탁탁 튕겼습니다.》

《응-》
철우는 생각깊은 눈을 전사에게 주었다.
《머리수건을 동이면 꼭 농민같아보이우? 농민만이 불꽃을 탁탁 튕기면서 부시를 치는것이겠소? 놈들이 가장할수 있다고 생각해보진 않았소?》

순호는 예리하게 판단 못한것이 부끄러운듯 머리를 긁었다. 그러더니 이내 바늘끝같은 눈길을 합지골에 박았다. 철우도 가까운데서 먼데로 먼데서 가까운데로 면적사격하듯 살살이 훑어보았다.

등뒤에서 전사들이 참호작업을 끝내가는 삼소리가 이따금 들릴뿐 전상의 밤은 고요히 깊어갔다. 문득 어디선가 전투소음에 놀렸던 소쩍새의 울음소리가 달빛 넘친 고지에 꿈결처럼 들려왔다.

소씩 소씩 누구에게나 고향을 그리게 하는 구성진 새소리였다.

《저 순호도 고향이 멀지 않은곳에 있다지?》

철우는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물었다.

《예? 우리 집두 산골에 있습니다.》

《음, 그럼 동무 아버지두 우리 아버지처럼 노상 덕밭에 붙어살았겠군. 폐도 뿌지구 나무뿌리랑 들춰내면서말이야. 한치의 땅이라도 더 넓히려구.》

순호는 중대장이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기라도 한듯 방불하게 그려내는데 놀랐다.

《그러구 또 달밤이면 부시를 켜 담배를 붙여물군 이삭패는 발머리도 돌구...》

《예, 옳습니다. 그랬습니다!》

순호가 맞장구쳤다. 그러자 철우는 그의 어깨를 툭 쳤다.

《그러니깐 동무는 고향의 아버지를 저 달빛속에 그려본게 아니요?》

순호는 무엇인가 변명하려고 하였으나 그만 대답이 궁해졌다.

《소씩새 울고 달빛은 무르녹았겠다.》

감시대상에 무지개를 척 그려놓군 중대장을 오나라 가니라 한것 같다-》

철우는 무안해하는 전사의 마음을 부드럽게 능쳐주었다. 순호는 절반 웃고 절반 놀란 얼굴로 중대장을 피땀 바라보고는 입을 옥물었다. 자기가 본것을 증명할수 없는것이 딱해서였다. 그랬던 순호의 얼굴이 철우가 돌아가려는 순간 다시 긴장해졌다.

《저게 아십니까? 저기 있습니다.》

이번에는 놀란 철우의 눈이 통방울처럼 커졌다.

경사지끝에서 희숙한 그림자가 얼씬거렸던것이다. 무엇을 하는지 알릴듯 말듯 천천히 이쪽으로 움직여오고있었다.

철호와 순호는 그 모습을 눈시울이 아프도록 주시하였다. 그랬으나 또다시 꼬리를 놓치고말았다. 달이 숨박꼭질하듯 구름속에 들어가버렸던것이다.

그들의 신경은 귀에 쏘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겁에 질린 적들이 아군진지에 대고 눈던 사격을 퍼붓는 소리가 소란하게 들려왔다.

긴장한 시간이 한초 또 한초 흘렀다.

철우는 흰 그림자가 움직여 오던 속도로 위치를 가늠하며 그쪽으로 온 신경을 기울였다. 문득 어둡속에서 《딸깍》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잔돌에 쇠가 부딪치는 소리같았다. 철우는 순호를 돌아보았다.

《들었소?》

《예, 제가 수색해보랍니까?》

《가만!》

철우는 그의 손등을 지그시 누르며 신호줄을 당기었다. 그러자 제1소대장이 달려왔다. 철우는 그에게 방금 《딸깍》 소리가 난곳을 가리켰다.

《내가 직접 가보겠소.》

철우는 감시호를 뛰어넘었다. 순호도 아련한 인상과는 달리 날파람있게 철우의 뒤를 따랐다.

자취 없이 경사지를 내린 그들앞에 무너진 집터가 나졌다. 구들장이 드러나고 연자방아가 나뒹굴었다. 불쑥 총구멍이 나타날것 같은 예감에 그들은 긴장할대로 긴장해졌다. 아닐세라 지척에서 《딸깍》 하는 소리가 또다시 났다. 순간 철우는 연자방아뒤에 앉아 어물거리는 하나의 그림자를 발견하였다.

《손들었!》

철우는 비호처럼 달려나갔다. 흰 그림자가 머리를 들었다. 그러더니 와뜰 놀라며 주저앉았다. 철우는 숨통을 조이듯 바싹 다가섰다.

구름속에 들어갔던 달이 얼굴을 내밀었다. 적이 아니라는것이 대뜸 알려졌다.

호미를 든 백발로인이 공포와 위구에 질려 앉아있었던것이다. 풍채좋은 수염이 가슴팍에까지 드리운 고령의 작달막한 로인이었다.

로인의 뒤로는 허리를 치는 조발이 이랑을 사리고 누워있었다. 그러나 성한 땅보다 포탄웅덩이가 더 많은 밭이었다.

철우는 이런 밭에서 무슨 농사를 짓자고 애쓰는가싶어 로인이 측은해보이기까지 하였다. 얼마후 철우네가 인민군대라는것을 알자 줄곧 눈치만 살피던 로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 인민군대가 저 밭산을 되찾았길래 힘이나서 세벌김을 맨다우.》

로인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철우는 더럭 걱정부터 앞섰다. 아무리 난알이 귀하다 해도 이렇게 위험한 공간지에서 농사를 짓다니... 철우는 생각이 깊어졌다. 로인은 누런 밀쌈지를 꺼냈다. 그것을 본 철우는

《로인님, 이걸 태우십시오!》 하고 가치담배를 권하며 곁에 앉았다.

중대장이 로인과 이야기 나누려는 기미를 눈치챈 순호는 놈들이 타고앉은 산발로 시선을 돌려 예리하게 주시했다.

로인은 철우가 권하는 가치담배를 몇번이나 사양하다가

《그럼 뒤편 비울 때나 피울가.》 하며 쌈지안에 깊이 넣고나서 곰팡대에 엽초를 쟁기였다. 꺾꺾 누르는 엄지손가락이 달빛에 강냉이대마디와 흡사하게 보였다.

《로인님, 난알이 나면 얼마나 나겠다고 이 위험한데서 농사짓습니까.》

철우의 조용한 물음에 로인은 놀라와 마주 바라보았다. 눈도 귀도 밝은 로인이었다.

《위험하다니? 이 함지굴이?》

로인은 오히려 철우를 납득시키려는듯 밭산을 가

리켰다.

《원 참, 인민군대가 저기 있는데두? 개놈들 그제 새벽엔 된벼락을 맞았지. 내 다 봤네.》

손세를 쓰며 이야기하는 로인의 모습에서 인민군대에 대한 믿음이 그대로 뜨겁게 그려져 철우는 코허리가 쩌해났다.

《글쎄 초막에서 자는데 와지끈하기에 내다보니 정말 잘도 조겨대더군.》

로인은 흐뭇하여 수염을 쓸었다. 그럴수록 철우는 로인을 안전하게 후방으로 피신시키는것이 용이치 않으리라는 생각이 점점 커졌다. 그는 로인의 입에서 여기를 못뜨겠다는 말이 나오기전에 오금박기로 마음먹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시면 안됩니다. 놈들이 무시로 쏘아대는데... 그래서 로인님을 안전한곳에 모셔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자 로인은 발산과 철우를 번갈아보더니 실망한듯 눈을 꼭 감았다. 그리고 불이 오물어들도록 곱방대를 들이빨았다. 그럴적마다 이마에 이랑을 짓는 주름살이 더 깊어졌다. 로인이 여기를 뜨지 못하는 이유를 헤아려보는 철우의 가슴은 못내 쓰렸다.

《로인님, 량식걱정이랑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아닐세. 난 아무데도 못가네!》

로인은 부지중 머리를 들더니 곱방대를 탁탁 털었다.

《가다니? 철을 놓쳐서는 안될 세벌김을 매야지. 못가구말구!》

로인은 설레설레 머리를 저으며 입을 꼭 다물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철우의 눈앞에는 불현듯 고향의 덕밭이 떠오르고 한생을 밭에서 살아오는 아버지의 모습이 로인과 겹쳐졌다. 그럴수록 철우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를 여기에 로인을 남겨두서는 안된다는 충격이 더욱 강렬해졌다. 그는 로인의 손목을 뜨겁게 잡으며 다시금 말했다.

《그래도 안됩니다. 어서 여기를 뜯시다.》

《놓게!》

로인은 불쑥 화를 냈다.

로인은 자리를 고쳐앉았다. 오금을 꺾고있는 로인의 모습은 땅에 뿌리를 박은 하나의 바위와도 같았다. 지레대로 떼도 움직여낼것 같지 않은 기상이었다.

망을 서며 돌아보던 순호가 아련한 얼굴에 단호한 기색을 지었다.

《놈들 코앞에서 무슨 세벌김이예요. 예? 어째 중대장동지 말두 듣지 않아요. 증명서 봅시다!》

《증명서?》

로인은 만만치 않은 전사의 요구에 흠칫하였다.

《무슨 증명서를? 나같은게...》

《뭐라고요? 증명서두 없으면 대체 누군지 어떻게

게 알겠어요?》

기가 눌린 로인은 순호를 딱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그것을 본 철우는 순호를 쿡 찔렀다. 그러거나말거나 순호는 으름장을 놔서라도 소개시켜보려고 로인에게 허세를 부렸다. 고개를 숙이고있던 로인이 웬일인지 갑자기 밝아진 얼굴로 품을 들추기 시작하였다. 철우는 거기에 눈이 갔다.

《이거문 되겠소?》

로인은 뭔가 접은것을 꺼냈다. 순호가 그것을 닮은 받아 철우에게 주었다. 인민군야전우편함일부인이 찍힌 봉투였다.

무심히 받아 달빛에 기울여보던 철우는 대뜸 눈이 커졌다.

《아니?!》

그의 목소리는 순간 떨리었다.

《그럼 로인님이 바로...》

철우는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새어나왔다. 그러자 로인은 흐뭇해서 수염발이 드리운 턱을 끄덕이였다.

《그렇네! 내 손자두 인민군대라네. 내 칠십평생 소작살이로 등뿔 날 없다가 김일성장군님이 주신 이 사흘같이 조밭을 받았네. 전장에 끼운 땅이라고 버리고 가면 그게 무슨 땅을 받은 백성의 도리겠나.》

로인은 대견한 눈길로 조밭을 둘러보고나서 말을 이었다.

《그리구 이 조밭머리에서 손자녀석을 잘 싸우거나 하고 떠나보냈는데 그녀석이 나보구 농사를 잘 지어달라구 부탁하겠지. 적들을 다 몰아내고 돌아오면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는가 내기하겠단말일세. 예비두 없이 자란놈인데...!》

철우는 가슴이 터지는듯하였다. 로인은 다름아닌 연락병의 할아버지였던것이다. 철우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듯싶었다. 과연 무슨 말로 손자의 희생을 알리며 위안한단말인가.

장승처럼 섰던 철우는 그 무슨 도움이라도 받으려듯 순호에게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를 들여다본 순호 역시

《아니?! 할아버지가 그럼?》 하고 부르짖었다. 다감한 전사는 두눈을 슴뻑거리며 어쩔줄 몰라하였다. ...

《내 다 아네. 그러니 내 손자똥까지 일하게 여기에 남겨주게...》

로인은 말없이 호미를 들었다. 그러더니 새 이랑을 잡고 김을 매기 시작했다.

딸그닥 딸그닥 딸그닥...

세판게 호미질하는 로인의 두어깨는 세차게 떨고 있었다.

《로인님!》

철우는 목이 꼭 메여 말이 나가지 않았다.

딸그닥 딸그닥...
 점점 드세지는 호미소리는 손자의 희생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심장속에 묻고가는 로인의 숨결인양
 달빛 넘친 공간에 그칠줄 몰랐다.
 딸그닥 딸그닥...
 《련락병의 할아버지가 마음놓고 김매게 하자.》
 그 누구나 명령을 내린적은 없어도 전사들의 땀
 세는 심장마다에서 불씨로 되어 타올랐다.
 전사들은 앞을 다투어 철우를 찾아왔다. 그들의

심정은 하나였다. 할아버지가 안전하게 농사짓도록
 검은 룡선을 당장 땀다치자는것이였다. 그것은 대
 대와 련대에 보고되였다.
 그날밤 드디어 검은 룡선에 대한 기습전이 개시
 되였다. 전투는 반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승리한 고지우에서 전사들은 경사지발머리에서
 번쩍이는 불씨를 내려다보며 미소하였다.
 할아버지가 흡족한 마음으로 부시돌로 담배불을
 불이리라 !

마지막으로 걷는 길

정 성 환

걷자, 철길은 여기서 끝나도
 우리 생활은 여기서 시작-
 첩첩 막아선 아아한 산밭들도
 반가웁다
 우릴 향해 마중 나오는가

우리는 손님이 아니다
 우리는 청년돌격대원들
 두툼한 솜옷에
 배낭을 메었거니!

언뜻 마주치는 눈길도
 구면친구처럼 친근하구나
 여기 북부철길건설장에
 당의 부름따라 우리 함께 가는 이 길
 마음과 마음이 절로 합쳐지는 고향길보다 더
 정다웁구나

친구들아
 산세험한 저 령을 넘어
 벼랑도 천길
 우리 가는 이 길에
 굽이굽이 철길을 놓으며
 청춘의 의지 청춘의 정열
 얼마나 억세인가를 보여주어야 하리니

발걸음 가닿은 첫 지점에서
 돌격대배낭을 나무아지에 걸어놓고
 우리가 마실 우물도
 우리는 또 지어야 하리
 우리가 일하며 살 집도

산악이면 차굴을 뚫고

강물이면 철다리를 놓으며
 청춘, 그 이름 폭풍처럼 떨치며
 철길을 놓아가는 련련 수백리길 우에
 우리 힘 당할 그 어떤 산악이 있으랴
 우리 걸음 막아설 그 어떤 강이 있으랴

번영할 조국의 래일을 위해
 산새 우짖는 소리
 프락프르 발동소리만 울리던
 깊고깊은 산중에
 렬차의 기적소리 강산에 울릴
 아, 조국의 그 래일을 위해
 들끓는 건설장 한복판을
 우리의 마음은 지금 달리고있어라

당이 부르는곳에서
 청춘의 위훈으로 오늘을 바쳐
 후대들과 떳떳이 마주설
 래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걷자, 친구들아
 이고장 이 깊은 산길에
 아직은 그 어느 청춘의 자욱이
 찍히지 않았어도
 우리는 걷자 걸어서 가자
 아, 돌아올 때면
 기적소리 산밭을 흔들며
 렬차를 타고오려니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길을 걸어서 간다
 더 활짝 꽃피날 조국의 래일을 안고
 우리는 지금 걸어간다

-북부철길건설장에서-

력사의 증견자앞에서

황 정 남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우리 나라에서 엄연한 현실로 되었습니다. 우리 인민이 이룩한 세기적인 변혁과 위대한 창조물들은 주체사상의 고귀한 열매입니다.》

갯가지 꽃들이 아름답게 피여난 개선허년공원은 볼수록 황홀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기록하신 그 자욱을 노래하는가 격조높이 웨치며 쏟아져내리는 계단식폭포수, 행복의 분출인양련못의 한복판에 무지개를 그리며 대공에 치솟아오르는 분수들...

여기서 모든 행복을 독차지한듯 쌍을 지은 처녀총각들이 미래를 꿈꾸며 분수가를 거닐고 그날은 가기가 아쉬운듯 저기 산중턱의 정각우에선 꽃같은 얼굴로 온 가족이 모여앉아 기념사진을 찍는다.

그런가 하면 빙글빙글 돌아가는 문어다리를 타고 앉은 로인들이 청춘을 되찾은듯 웃음지을 때 힘과 정열에 차넘치는 진동회전반우에선 젊은이들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터진다. 하늘높이 솟아올라 온 평양을 관망하는 대활차우에선 그 웃음소리에 화답하듯 처녀들의 꽃분홍색수건이 펄펄 휘날린다.

웃음소리, 노래소리, 기쁨에 함뱌 젖은 목소리들...

수도의 하늘을 가득 채우는 그 소리에 이끌려 한 걸음한걸음 다가서던 나는 어디선가 문득 들려오는 말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할아버지, 저건 무슨 글자나요?》

《응- 〈대웅전〉 이라고 쓴 한자로구나.》

《대웅전은 또 뭐나요?》

자그마한 집앞에서 인민학교에 다닐직한 처녀애와 로인이 주고받는 말이다.

《절간이란단. ...》

《절간? 절간이란 뭐예요?》

손녀는 그 말뜻을 몰라 또 묻는다.

로인은 절간이 무엇인지 모르는 손녀에게 그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라 《절간...음.》 하고 되뇌이고는 긴숨만 몰아쉰다.

나는 로인의 말에 놀랐다. 귀를 의심했다. 결응을 멈추었다.

(절간이라니? !

행복의 웃음만이 넘치는 이 유원지속에 그런 절간도 있단말인가? ...)

나는 그 어떤 극적인 충격을 느끼며 대웅전앞으

로 다가갔다.

많은 사람들이 그앞에 서있었다.

절간안에는 불교의 조상이라고 하는 석가모니의 불상이 놓여있고 그앞에는 조그마한 상 하나가 송구스러운듯 앉아있다. 사람들은 이앞에서 무엇을 생각하는걸가?

술한 사람들의 손때가 묻어있을 저 상을 바라보며 여기서 무릎을 꿇고 두손을 빌던 그날의 처량한 모습들을 추억하는것일까. 아니면 이 문턱을 넘나들던 어제날의 무거운 발자욱소리를 되새기는것일까.

하나의 유원지안에 극적으로 마주 서있는 두 시대의 발자취앞에 서있노라니 나의 눈앞에는 피멍든 두무릎을 꿇고 행복을 기원하며 빌던 그날의 애절한 목소리가 들려오는듯하다.

《우리 어머니도 여기서 숨을 거두었다단...》

순간 방금 끊어졌던 그 로인의 축축히 젖은 목소리가 울려왔다. 아마 손녀에게 그 가슴아픈 울분을 호소하는듯... 처녀애는 마치 옛이야기를 듣는것처럼 긴 살눈섭을 깜빡이며 할아버지를 치여다본다. 맑은 눈동자에선 신비한 빛이 쏟아져나온다.

웅글은 목소리로 떠껍떠껍 번지는 로인의 이야기는 나의 가슴을 이상하게 잡아흔들며 해방전의 그 날에로 이끌어간다.

《...그 시절에 이 땅은 〈고노골〉 이라고 불렀단다. 너무도 못살았던 이고장사람들은 노전 한일 짝고 사는것이 그리도 소원이여서 노를 결던 사람의 고가성을 따서 〈고노골〉 이라고 불렀구나. 사람들은 여기에 〈대웅전〉 을 세웠지. 〈부처님〉 에게 집을 팔고 땅을 팔아 시주하면 가난하던 신세를 고치고 원한 많은 이 세상을 떠나서라도 〈극락세계〉 에 갈수 있으리라고 믿으며말이다.

옛날 우리의 집은 지지리도 못살아왔다. 흥년이 들어 농사를 망친 우리 아버지는 지주에게 땅을 빼앗기고 여기에 왔으나 품팔이조차 할데가 없어 입에 거미줄 쓸 지경이었다. 그래서 아버진 나와 어머니를 여기에 남겨놓고 저 산판으로 품팔이하러 떠나갔단다.

그해 추운 겨울날이었구나. 밤엔 남의 집 허청간에서 추위에 떨고 낮엔 샛빨래와 샛바느질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던 어머니는 지쳐서 덜컥 앓아눕게 되었던단다. 나는 아직 어린 몸으로 종일토록 이골목저골목 다니며 밤을 빌었던단다. 겨우 끄끄 언땀 한그릇을 얻어 집에 와보니 어머니가 웬일인지 얼굴에

웃음까지 띄우고 나를 맞아주더구나. 어머니는 글썽 이 대웅전에 가서 부처님께 빌면 아버지도 돌아오고 우리는 잘살게 될거라고 주인집 할머니가 알려주었다고 하더구나.

그날밤 너무 지치고 추위에 떠난 나는 일찍 잠들었지. 그런데 이튿날아침 일어나보니 어머니가 보이지 않더구나... 후유.》

이렇게 말하던 할아버지는 가슴이 터지는듯 긴 숨을 몰아쉬었다.

《글썽 어머니가 그 언밥 한그릇을 가지고 여길 찾아왔을줄이야...시주할 돈이 없으니 그거라도...》

그날 이때나 되어 어머니를 찾았는데 어머니는 이 문턱도 못넘어선채 쓰러져있었고 눈보라만이 기승스럽게 울부짖고있더구나. 뽕뽕 언 어머니의 손에는 그때까지도 언밥 한덩이가 꼭 쥐여져...》

로인의 눈가엔 이슬이 맺히고 처녀애의 두볼에도 뜨거운것이 흐른다. 나의 눈에도 아니 여기 모여선 사람들의 가슴속에도 먼먼 그날의 눈물이 흐르고있었다.

그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이 불상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

안아일으켜주었던가 아니면 따뜻이 품어 주린 창자를 채워주었던가.

아니었다. 그 어머니는 가슴속에 피멍이든 초보적인 소원마저 실현하지 못하고 자기의 념원을 여기에 뿌린채 영영 세상을 떠났다.

그랬었다. 돌이켜보면 력사는 시대의 갈피마다 인간이 바라는 소박한 념원을 간직하고있었다.

사람을 무지몽매하게 다루던 노예사회에서 노예들은 노예주의 예측과 착취에서 벗어나 자유민으로 되려는 요구를 안고있었고 봉건령주들이 토지를 차지하고 농노들의 피땀을 빨아내던 봉건사회에서 농민들은 땅의 주인이 되고싶은 념원을 가슴속에 아로새겼었다. 또한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와 근로자들은 자본의 철쇄를 영영 끊어버리고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사회와 자연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려는 절실한 요구를 가지였었다. 하여 사람들은 기아와 굴욕과 싸웠고 모든 착취계급을 반대하여 싸웠었다. 그러나 올바른 사상과 정도자가 없는 그들에게 차례지는것은 더 크나큰 고통과 죽음뿐이었다.

그들은 바로 이 모든것을 신과 부처에게 의탁하며 무릎을 꿇었다. 기원전 6세기에 인도에서 발생한 이 불교에도 바로 인민의 그 간절한 념원이 담겨져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종교는 자기의 념원, 요구를 것처럼 애타계 기원하는 수천수만의 사람들을 자기 의식에 족쇄를 채운채 시들어가게 하였으며 사람들의 리념을 악용한 피의 향유자들의 정신적착취수단으로 충당되어 노예적굴종사상과 무저항주의로 인민을 속여 값없이 이슬로 사라지게

하였고 자기들의 천당을 영원히 유지하려는데 악용하였다.

불현듯 나의 머리속엔 혁명연극 《성황당》에 나오는 복순이 어머니가 생각되었다.

하나밖에 없는 딸자식이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수 있다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았을 어머니, 피눈물을 뿌리며 키워오던 돼지까지 잡아 딸의 명복을 빌던 복순이 어머니.

하건만 어찌하여 어머니는 자기의 두주먹으로 《신령》 머리우에 징벌을 안기게 되었던가.

그것은 그 어떤 부처도 예수도 신령도 자신의 운명을 구원해줄수 없다는 생활의 철리, 그 어떤 환상적의식이 아니라 자기의 힘, 오직 하나로뭉쳐진 인간의 힘만이 행복을 창조하는 원천이라는것을 깨달았기때문이었다. 바로 여기로부터 나온 새로운 신념이 그에게 투쟁의 길을 가리켜주었고 멸적의 힘을 주었던것이다.

이 고귀한 진리를 누가 주었던가.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안겨주시었다! 사람들에게 참다운 눈을 띄워주고 인간의 주먹에 자주 의 활력을 부여주는 이 불멸할 진리를 우리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렇게 연극으로 밝혀주시었다. 우리 인민들에게 자기 해방의 새길을 활짝 열어주시었다! 바로 그 길에서 우리 인민들은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향도성을 따라 천만리 불길 헤치며 달려오지 않았던가.

그래서 오늘 가냘픈 인민의 애원뿐이었던 이 땅 위에 모든것의 주인이 된 인간의 기쁨이 노래가

되어 웃음이 되어 아름다운 찬가로 울려 퍼지는것이다.

혹시 저기 정각우에 올라 깊은 명상속에 잠겨있는 로인님은 《부처》앞에 꿇어앉아 고생살이를 면하게 해달라고 두손을 빌던 그 머슴군이 아닌지.

저기 꽃밭속을 거닐며 하루로동의 피로를 푸는 젊은 부부는 신령앞에 떡그릇을 퍼놓던 그 종살이의 자손이 아닌지.

아마도 그들은 생각하리라.

이 땅의 행복과 기쁨이 어떻게 얻어진것인가를... 어찌 그렇지 않으랴.

세기와 세기를 두고 것처럼 바라고 동경하던 인간의 숙망이 이 나라 방방곡곡에 현실로 꽃피났음에!

어찌 그렇지 않으랴. 저승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인간이 창조한 재부속에서 온갖 기쁨과 행복을 향유할수 있는 《극락세계》가 펼쳐졌는데야!

하기에 우리 나라를 찾았던 외국의 한 벼은 웅장 화려한 인민대학습당과 평양산원 그리고 창광원과 빙상관들을 돌아보고나서 자기의 걱정을 이렇게 터뜨리지 않았던가.

《세상사람들이여

기적을 찾으려거든
 조선으로 오라!
 〈천궁〉을 보려거든 조선으로 오라!
 교신자들이여,
 예루살렘을 찾지 말고
 조선을 찾으라!
 신을 믿지 말고
 위대한분을 믿으라! …》
 그렇다. 여기에 수수천만년 인간이 것처럼 바라
 고바라던 그 《무릉도원》이 있고 바로 여기에 그
 처럼 동경하던 《천궁》이 펼쳐졌나니,
 조선에 와보시라! 모든것의 주인이 된 참다운 인
 간들이 사는, 그 인민이 받들어모시는 위대한 태양
 이 빛나는 조선에! 향도성의 그 빛발 찬란한 조선
 에!
 나는 대웅전앞에서 마음속으로 웨쳤다.
 개선청년공원을 찾으시는 사람들이여, 이 대웅전

앞을 무심히 스치지 마시라. 그리고 이안에 있는 불
 상들을 한갓 력사의 공동품으로만 생각지 마시라.
 그러면 그대들은 하나의 관성단차에서도, 그대들
 의 아들딸들이 타고 달리는 하나의 비행기에서도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해
 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과 행복의 높이
 를 새겨보게 되리라.
 이 나라 방방곡곡 그 어데 가나 아름답게 만발한
 인민의 념원이 력사의 증견자- 이 대웅전앞에서 어
 떻게 마련되고 펼쳐지게 되었는가를 더욱더 똑똑히
 알게 되리라!
 나는 조용히 대웅전앞을 떠나며 불상을 다시 바
 라보았다.
 그런데 불상이 마치 두손을 마주잡고 우리의 행
 복을 축하하며 단 한번만이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
 이 행복을 함께 누리고싶다는 간절한 념원을 속삭
 이는것만 같았다. ……

무 궁 화

(쏘련) 막심 탄크

맑은 아침의 나라 조선엔
 봄 겨울 없이 사철
 무궁화 곱게 핀다
 마치 힘과 용감성
 자유와 불사조의 상징처럼
 원쑤의 무리들이 물려와서
 인민을 노예로 만들고
 불과 나팔탄으로 폭탄으로
 이 나라를 재더미로 만들려 했다
 싸늘한 죽음마냥
 어둠이 온 조선을 덮게 하기 위하여

무궁화 아름다운 꽃이
 영원히 피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허나 피에 굶주린 야수들
 부질없이 날뛰거니-
 놈들아 조선에서 주인행세 못하리라
 밝아오는 아침노을을 막지 못하리라
 맑은 아침의 나라 조선엔
 봄 겨울 없이 사철
 무궁화 곱게 핀다
 마치 힘과 용감성
 자유와 불사조의 상징처럼

참 나 무

(쏘련) 미하일 이싸콥쓰기

가지들을 넓게 퍼고
 큰 참나무 언덕우에 푸르렀네
 조국땅속 깊이깊이
 뿌리를 내리었네

우듬지에 먹장구름 휘몰아치고
 모진 바람 불어쳐도
 조국땅을 억세게 붙들고있기에
 폭풍도 그를 꺾지 못하네

배길우에 띄워보내는 마음

-남녘땅 고향의 벗에게-

오영재

한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편지들을 써보내고 또 받아보았지만 지금 손에 든 이 붓이 이렇게 무거운 것은 여기에 민족사의 불행과 비극이 실려있기때문이 아닐까.

서신의 왕래란 자유로운것이여서 사회주의나라들은 더 말할것 없고 서로 제도가 다른 나라에도 이 서신의 길만은 열려있는것이 오늘의 세계여서 일본의 도쿄나 오사카 지어는 미국의 뉴욕이나 로스안젤스에 있는 친척이나 친구들에게까지 우리의 국제우편은 정확히 소식을 전해주고있네.

그러나 최승! 세상에서 유일하게 민족분열의 장벽이라는 이 절연체에 의하여 서신의 거래마저 막혀있는것이 북과 남이니 이 얼마나 가슴아픈 일인가.

써놓아도 보낼길 없는 편지를 마음으로 써보고 그것을 종이우에 옮겨본 그 글발들, 그것을 어찌 편지라고 말할수 있겠나. 그것들은 한갓 나의 일기장에 남겨보는 정신적인 위안이라고나 할수 있을가. 드디어 이 편지를 분계선을 넘어 내 고향이 있는 남조선땅에나마 옮겨놓을수 있게 된 한가닥기쁨을 내 얻게 되었으니 이번에 남조선의 수재민들에게 우리 공화국이 구조물자를 보내게 된 실로 감격적인 이 배길, 뜨거운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리념이 분열의 장벽을 넘어 근 40년만에 처음으로 남북의 길을 연 이 배길이네. 그리하여 나는 출선의 시각을 서두르는 남포항, 온 시내가 떨쳐나온 환송의 이 부두가 설레이는 바다기슭에서 고향의 부모형제들과 함께 자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서둘러 쓰고있네. 물론 그곳으로 가는 우리 선원들에게 부탁하게 될 이 편지가 자네에게까지 전해질지 그것을 내 확신할수는 없지만 이제 떠나게 될 우리의 배와 함께 이 편지도 분계선을 넘어갈수있게 된 그것만으로도 나의 가슴은 지금 진정할길없는 흥분으로 차넘쳐있네.

최승!

전쟁이 일어나던 1950년의 그 여름까지 남녘의 고향땅에서 내가 살아온 16년동안에 사귄 벗들이란 내가 태어나 겨우 철이 들기 시작할 그무렵까지의 어린시절의 벗들이었네. 마을의 소꿉동무들, 소

학교와 중학교에 다닐 때 사귄 학창의 동무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동무들은 적지 않아도 34년만에 고향의 한 벗에게 편지를 쓰려고 얼굴을 더듬어 볼 때 자네의 모습이 가장 뚜렷하고 선명하게 떠오르게 됨은 길지 않은 고향생활에서 자네가 제일 가까왔고 또한 인상깊은 우정의 세부를 가장 많이 남겨준탓일거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것은 우리가 중학교에 입학하여 첫 등교를 하던 그날에 있던 일이네. 중학생이 된 기쁨으로 하여 시오리 학교길을 단숨에 달려갔건만 명단을 들고 정문에 서있는 교무주임에 의하여 나는 학교문안에 한발자욱도 들어놓지 못하고 쫓겨났었지. 기부금 2만원을 물지 못한 그죄로 하여 돌아서서 울먹거리며 집으로 올 때 나보다 좀 늦어서 학교로 오던 자네가 이 사정을 듣고는 자기도 첫등교의 길을 단념하고 외로운 나를 동무해주었네. 기부금을 못낸 처지야 다 같은데 굳이 가봐서 뭘하겠는가말이네. 그러나 후에 내가 안 일이지만 자네야 그때 당당히 등교할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가. 그렇게 자네는 인정이 깊었고 또 사람이 진실했었지. 내가 의용군으로 떠나오던 날 자네와 작별하러 집으로 찾아갔을때 어둡컴컴한 사랑채의 어지러운 참대노전우에서 자네는 학질로 몹시 앓고있었네. 앓는 동무의 곁에 있어주지 못하고 가는것이 그리도 가슴 아팠지만 자네는 오히려 떠나는 친구를 바래주지 못함이 그리도 안타까와 열에 들뜬 눈에 석별의 눈물을 머금고 나의 손을 꼭 잡아 주었는데 거기엔 자네가 그리도 애지중지하던 만년필이 쥐여있지 않았던가. 사람들이 흔히 남녀간의 첫 사랑을 잊지 못한다고하지만 그것과 못지않게 잊을수 없는것은 이성의 사랑을 알기전의 깨끗하고 순진무구한 소년시절에 맺어진 어깨동무우정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세상에 나서자라며 부모형제의 사랑외에 그 어떤 다른 사랑이 있다는것을 백지와 같은 가슴에 처음으로 새겨주고 깨우쳐준 사랑이어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최승! 3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도 자네를 그리도 그림계 내가 추억하고있는지 모르겠네. 그동안에 자네가 어떤 생활의

길을 걸었는지 내 바이 알길이 없어도 량심적이고 진실한 그 성품은 결코 민족을 배반하고 정의를 외면하는 그런길로 자네를 이끌지는 않았으리라고 믿고만싶네.

이 편지를 쓰는 순간 나는 자네의 모습을 줄곧 더듬어보고있네. 이제는 자네도 나이 50이 되었으니 인생의 세파도 겪을대로 겪어 정의와 의문도 보았을 것이며 수치와 굴욕에 얼굴도 붉혔을것이네. 진정으로 민족의 운명과 장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나라의 분열을 두고 어찌 단 하루도 밤잠을 편히 쉴수 있을것인가. 조국통일의 절박성에 대하여 우리 민족의 그 누구인들 량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토록 절감하지 않을수 있으랴만 나처럼 고향과 벗을 그곳에 두고있는 경우 해가 아니라 달이, 달이 아니라 날과 시간이 새롭네. 그것은 내가 여기서 누리는 행복이라고 부를수 있는 생활자체가 나에게 순수하고도 웅근 기쁨을 단 한시도 주지 못하고있기때문이네. 근 40년간의 분열은 강토와 민족만을 갈라놓은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가슴까지 둘로 갈라놓고있네. 그래서 행복하면 불행이 울고 불행이 울면 행복도 온통 눈물로 되어버리는것이네.

내가 아무런 혈육도 없는 혈혈단신으로 복에 와서 살고있다는것을 자네는 대체로 소문을 들어 알고있을것이네. 그런데 지금 나는 공화국이 키워준 한사람의 시인으로 되어 시를 쓰면서 수백번 독자들파 따뜻한 교감을 나누고있네. 이것은 아마 고향에서는 내가 상상할수도 없었고 자네도 전혀 기대할수 없었던 인간의 성장이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내가 안겨사는 우리 공화국제도의 은혜로움을 한마디로 말할수 있는 산 실증인것이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내가 학교에 다닐 때는 친히 학부형이 되어주시고 내가 사회에 나왔을 때에는 내 생활과 정치적생명의 따뜻한 보호자로 되어주셨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내가 쓴 시를 여러차례 보아주시기도 하시였으며 미숙한 그 시를 두고 과분한 치하까지 해주시고 높은 표창까지 주시였네. 인간이 한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번만이라도 차례지면 그것으로써 최상의 생의 가치를 얻는 그런 영광을 해아릴수 없이 받아안으며 나의 생각은 그때마다 깊어졌으니 그것은 두고 온 부모형제들과 나누지 못하는 나 혼자만의 자족에 대한 송구함이였고 마음의 무거운 부담이였네. 그것으로

하여 나는 그 몇번 사나이의 더운 눈물을 흘렸는지 벗이여 자네는 다 모를것이네.

나에게는 네 자녀가 있는데 맨 맏이인 딸은 평양 경공업대학의 졸업반이고 둘째인 맏아들은 평양영화대학에 다니고있네. 두 아이가 대학에 다닌다고 국가에서는 장학금까지 주고있네. 해마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하신 4월의 명절이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전체 인민에게 귀한 선물을 보내주시고 특히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교과과 학용품까지 다 주시네. 지난해만 하여도 일반 가정세대에 차례지는 선물외에 4벌의 학생교과과 내의, 신발, 학용품들이 차례졌으니 우리 가정이 얼마나 큰 배려를 받아안았는가를 자네는 짐작하고도 남을것이네. 물론 이것은 내가 공화국에서 누리는생활상 유족한 측면만을 말하려 함은 아닐세. 나는 이 제도에서 받고있는 크나큰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려는것이며 한생을 의지하여 살아갈 마음의 기둥에 대하여 이야기하려는것이네. 인간은 어디까지나 사회적인 존재로서 자기 홀로는 한생의 길을 걸어갈수 없으며 자기 운명을 의탁할 정신적지주가 있어야 할것이 아니겠는가. 만약 그것이 없다면 인간은 허무와 염세, 타락의 구렁텅이로 굴러떨어지게 되며 결국 그것은 인간에게 처참한 말로밖에 줄것이 없네. 인간에게 있어서의 목적과 지향은 생의 뇌수가 아니겠는가. 나는 여기서 그것을 지니였으니 그것은 신에 대한 인간의 신앙보다도 더 현실적인 생활의 진리이며 신념인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품일세. 이것은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릴수 없는 내 삶의 반석같은 지반일세. 이 지반을 마음에 지녔을 때 어려운 역경이 닥쳐온다 해도 비록 허리띠를 졸라매고 풀뿌리를 캐먹는다 해도 이 신념을 어찌 달리 할수 있을것인가. 만약 이 신념이 변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삶의 전체가 무너지는데야.

최승 !

우리 공화국은 조국통일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3자회담을 제기하였네. 민족분열이 더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될 현사태를 놓고 볼 때 이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때문에 이것은 남조선의 애국적인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말할것 없고 세계의 량심적인 인민들의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는것은 주지의 사실이 아닌가. 우리의 방안이 성취되면 갈라진 혈육들이 서로 편지도 하

고 만날수도 있고 경제, 문화의 교류도 실현될수 있
 으련만 왜 남조선의 괴뢰도당은 여기에 한사코 응
 하지 않고있는것인가.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판단
 력이 있고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경제도 문화도
 국사도 미제에게 예속된 남조선 현실에 대하여 굴
 복감을 느껴야 할것이며 총칼로 정권을 탈취하였으
 며 인민의 정의로운 웨침에 광주의 대참극으로 대
 답한 극악한 살인마 전두환과 같은 란폭한 깡패무
 리들이 《정권》을 쥐고 살판치는 사회에 대하여
 평화와 인도주의를 존중히 하는 세계앞에 민족적인
 수치감을 느껴야 할것이 아닌가.

최승 !

언제면 자네와 한자리에 마주앉아 우리 서로 흥
 감을 터놓고 이런 이야기를 나눌수 있겠는가. 초고
 지불 가물거리던 자네집 사랑방 침대노전우에서 서
 로 불안고 덩굴던 그때처럼 한밤을 한자리에 누워
 서 진심의 회포를 나눌수 있겠는가. 뒤울안에서는
 대나무 설레임소리 끝없이 울려왔고 밤이 늦었다고
 나를 데리러온 어머니를 따라 초롱불 앞세우고 집
 으로 돌아가던 그 골목길을 내 어찌 잊을수 있겠는
 가.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그 십년이 세
 번이나 흘러갔으니 어찌 모든것이 달라지지 않았으
 라만 지금도 가끔 그 방에서 자네를 만나는 꿈을 꾸
 고 깨어나서는 한동안 알찌근해오는 가슴을 애써
 달래이군하네.

만나면 통일이 되어 고향에 갈 이야기를 비롯처
 럼 하군하던 우리의 앞선 세대들이 하나하나 우리
 곁을 떠나가고 그날에 제일 나이가 어렸던 우리의
 세대도 이제는 50고개에 들어섰네. 우리가 어찌혈
 육의 뉴대없이 의무만이 남은 다음 세대에 통일문
 제를 넘겨줄수 있겠는가. 그것은 무서운 일이네. 민
 족분렬의 비극을 우리 대에 끝맺지 않고서는 우리
 가 어찌 참답게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조선의 아
 들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최승 !

환송의 주악이 울리고 꽃목걸이를 건 선원들이
 배에 오르고있네. 우리의 뜨거운 동포애가 근 40년
 만에 처음으로 연 이 배길 ! 재난에 허덕이는 내 고향
 땅 자네의 집에도 이 구호물자들과 함께 잊지 못
 할 옛벗으로부터 보내는 이 편지가 가닿게된다면
 얼마나 좋을것인가.

나는 환송의 꽃물결속에 뛰어들어 마이크앞에 나

섰네. 어찌 시인으로 특히 고향을 남녘에 둔 시인으
 로서 이런 격동적인 현실앞에서 한목소리 높이지
 않을수 있으랴. 나는 중앙방송의 마이크를 통해 온
 강토 온 세계를 향하여 뚫어넘치는 흥분을 시줄에
 담아 읊었는데 여기에 그 한두구절만을 적어보내기
 로 하네.

다시 한번 쓸어보자

떠나가는 구원의 이 물자

뜨거운 내 손길이 닿은 이 물자가

바다건너 파도넘어

남녘형제들의 손에 닿으면

근 40년세월 헤어져 그리던

우리의 손이 서로 닿으리

바다길이 멀어 못갔더나

준령이 가로막혀 못갔더나

갈라져 긴긴세월

꿈결마다 오가던 내 고향땅으로

이 몸에 앞서

구호물자여, 네가 먼저 가는구나...

보고싶은 최승 !

이 배가 헤치고 간 분계선의 파도가 다시 메꾸어
 지지 않고 그대로 합작과 교류의 길, 거족적인 통일
 의 대행진의 길로 더 넓혀질수도 있지 않을가. 모든
 사물현상이란 영원한것이 없으며 세월이 오래가면
 분해되기 마련인데 아무리 완고한 분렬의 장벽이
 라도 근 40년세월이 흘렀으니 정의와 량심의 목소
 리와 민족의 피타는 숙원속에 이제는 금이 갈 때도
 되지 않았는가.

그날 위해 우리 서로 마음합쳐 일하며 싸워가세.
 상봉의 그날까지 몸성히 잘 있기를 마음속으로 바
 라는 이 우정 흘러가는 배길우에 띄워보내며 다시
 한번 불러보네.

아, 그리운 땅에 보고싶은 소년시절의 벗이여 !

남포항에서 구호물자를 실은 배를

남녘으로 떠나보내며

옛친우로부터

조선로동당 창건 40돐기념 전국 방송극작품 현상모집요강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 영광스러운 주체형의 당,
조선로동당 창건 40돐을 뜻깊게 기념하며 당
제6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0차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하기 위하여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서는
1985년 10월

10일을 앞두고 전국방송극작품 현상모집사업을
조직진행합니다.

1. 현상모집작품의 종류

방송극, 방송소설, 방송시극, 아동방송극
연속방송극 《천복이와 만길이》
연속아동방송극 《남쪽에서 온 편지》
토막극, 제담

2. 현상모집작품의 주제

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주제로 한 작품.

②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주제로
한 작품.

③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혁명전통과 그들 이어받아
조국해방전쟁시기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 인민군대와 인민들의 투쟁을
반영한 작품.

④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제시하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사회주의대건설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숨은 영웅들과 근로자들의 생활을 반영한 작품.

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반미자주화와
반파쇼민주화를 위해 떨쳐나선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의 투쟁을 반영한 작품.

3. 응모자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참가할수 있다.

4. 응모작품을 보낼곳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문예부앞으로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가지고 올수 있다.

겉봉에는 《현상응모작품》이라고 밝히고
원고에는 응모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직장직위,
집주소를 써야 한다.

투고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5. 응모작품 현상모집기간

1984년 11월부터 1985년 9월까지

6. 응모작품 심사결과발표

1985년 10월 10일을 전후하여 방송과 신문,
잡지들을 통해 발표하며 응모작품가운데서
당선수준에 이른 작품은 심사결과를 발표하기전에
방송하도록 한다.

당선자들에게는 해당하는 시상을 한다.